

정답 및 해설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100발100중

고등 기출
문제집

공통
국어 | 2

2학기·전과정

비상

박영민



내신에 날개를 달아 주는 100발100중!

나, 너, 우리가 만나는 길

01. 문학의 해석과 생활화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12-015쪽

- 01 ① 02 ① 03 ③ 04 ② 05 ② 06 ④ 07 ③ 08 ④
09 ⑤ 10 ④ 11 ① 12 ④ 13 ③ 14 ① 15 ③ 16 ④

01 '~ 엮을 수만 있다면', '~ 비단이 된다면'과 같이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통해 '당신'과 만나 사랑의 결실을 이루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화자가 소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단정적 진술과는 거리가 멀다. ③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행을 종결하였지만 이는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여운을 남기며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④ '겨울'은 화자가 견뎌야 하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라 보기 어렵다. ⑤ 이 글에는 영탄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02 화자는 '당신'과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화자는 어느 날 '당신'과 만나 낯설과 씨실처럼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③ '추운 길목', '오랜 침묵과 외로움'은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④ 화자는 '추운 길목'에서 느끼는 '침묵'이나 '외로움'과 같은 어려움은 '당신'과 만나 손을 주고 그윽한 눈을 들여다보며 서로를 위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⑤ 화자는 '당신'과 만나 함께할 수 있다면 '추운 길목', '오랜 침묵과 외로움'과 같은 시련도 이겨 낼 수 있음을 표현하였다.

03 ㉠은 '당신'과 화자가 '하나의 꿈'으로 엮어 낸 '우리들의 꿈'이 만나 맺어진,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자신과 '당신'을 실에 비유하여 서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기를 소망하므로, ㉠이 '하나의 꿈'을 비유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으로 만나는 '당신'과 화자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감각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은 '당신'과 함께해야 한다는 화자의 소망을 보여 준다. ⑤ ㉠은 '당신'과 화자의 꿈이 만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미래의 상황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담고 있으므로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04 ㉡는 '당신'과 함께한다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라도 '우리'를 '출제'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고난으로 사랑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당신'과 화자가 서로의 슬픔과 그리움을 위로해 주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③ '당신'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의문형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④ 화자는 '당신'과의 만남을 소망하면서, 만남이 실현될 경우 서로를 위안하며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표현하였다. ⑤ '당신'과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추운 겨울도 춥지 않다는 의미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05 이 글의 화자는 '당신'과 만나는 상황을 가정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련을 이겨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에서도 조국 광복의 '그날'을 언급하며 민족 독립에 대한 염원과 조국

광복에 대한 화자의 신념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동해 바다'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③ 지나온 인생에 희망이나 위안이 없었으나 화자는 그러한 삶을 후회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④ 꽃이 지는 자연의 변화와 이별이라는 인간사를 중첩하여, 이별의 아픔을 이겨 내고 이루어 되는 성숙에 관해 노래하고 있다. ⑤ 이상과 희망을 지니고 사는 삶을 송고하게 여가를 나타내고 있다.

06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는 '당신'과 화자가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침묵과 외로움으로 인한 상실감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한 폭의 비단'은 화자와 '당신'이 '하나의 꿈'을 엮어 만들어 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로, 화자는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 사랑의 결실을 이를 그 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③ 화자는 '당신'과 만나 '추운 길목', '오랜 침묵과 외로움', '겨울'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⑤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는 '당신'과 화자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07 이성 간의 사랑의 정서를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암울한 현실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을 위로하고 한 슬픔이 또 다른 슬픔에게 위로와 위안을 전하는 공동체적 연대를 나타낸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소망하는 바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소망하고 있으므로, 세속적인 가치에 초연한 삶과는 관련이 없다. ④ '당신'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염원하고 있으므로, 자연과 벗하며 고요하게 사는 삶을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화자가 소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나, 스스로 성찰하는 삶에 대한 지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C]는 1~3행을 변형하여 반복하면서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처음과 끝 부분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한다. ② 처음과 끝에 유사한 부분을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는 작품에 형태적인 안정감을 부여한다. ③ 반복을 통해 '당신'과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한다. ⑤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은 불완전하게 종결된 표현으로, 시적 여운을 남긴다.

09 '추운 길목'은 화자가 견뎌야 하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보기>의 화자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무기력한 고뇌와 이를 극복하려는 자기희생의 숭고한 의지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는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을 어둠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으로, '추운 길목'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삶의 목표, 희망을 의미한다. ②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보여 준다. ③ 자기희생을 상징한다. ④ 고귀한 희생을 의미한다.

Plus (보기) 십자가 윤동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독백적, 기독교적, 의지적
주제	부정적인 현실 극복을 위한 자기희생의 의지
해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식민지 지식인의 무기력한 고뇌와 이를 극복하려는 자기희생의 숭고한 의지를, 상징적인 소재와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형상화함.

▶ (나) 나의 꿈_한용운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성격	고백적, 희생적
주제	'당신'에 대한 사랑
해제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어체를 사용하여 '당신'에 대한 사랑을 강조함.

10 ㉠과 ㉡은 모두 화자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은 화자가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대상으로,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실적인 존재에 해당한다. 즉, ㉠과 ㉡ 모두 현실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② ㉠과 ㉡ 모두 화자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대상이므로,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와 관련이 있다. ③ ㉠과 ㉡ 모두 화자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존재이다. ⑤ ㉠과 ㉡ 모두 화자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존재이므로, 이르려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1~3행에서는 화자가 소망하는 상황, 즉 '당신'과 만나 '하나의 꿈'을 엮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는 추운 길목에서 기다리리'를 어순을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에서는 위로, 위안을 상징하는 '손'을 통해 화자와 '당신'이 서로 슬픔을 위로해 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④ '어느 겨울인들 / 우리들의 사랑을 출게 하리'는 '당신'과의 사랑을 통해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설의적인 표현이다. 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을 작품의 앞과 뒤에서 반복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며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12 '우리들의 꿈'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으로, '당신'의 소망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옷감을 짜는 데 날실과 씨실이 함께 엮여야 하는 것처럼, '당신'과 화자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소망을 드러낸다. ② '당신'과 화자를 '날과 씨'에 비유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서 함께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한다. ③ '당신'과 화자를 옷감을 짜는 데 필요한 날실과 씨실에 비유하여 '우리들이' 함께 있어야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⑤ '한 폭의 비단'은 '당신'과 '나'가 하나의 꿈을 엮어 만들어 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뜻한다.

13 (나)의 화자는 '당신'의 상황에 따라 '작은 별', '맑은 바람', '귀뚜라미'가 되어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가정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당신이 ~에~ 나의 꿈은 ~이/가 되어서 ~겠습니다'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강조한다. ② '작은 별', '맑은 바람', '귀뚜라미'와 같은 자연물을 활용하여 '당신'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④ '-습니다'는 상대 높임 종결 어미로, '당신'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드러낸다. ⑤ '작은 별'은 시각적 이미지, '맑은 바람'은 촉각적 이미지, '귀뚜라미'는 청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14 '어느 날'은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산업화로 인한 분열과 아픔이 회복된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화자는 '당신'과 만나 사랑의 결실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다. ③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경우, 산업화로 인한 아픔과 분열을 극복하려는 작가의 열망이 '당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경우, '하나의 꿈', '한 폭의 비단'은 산업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서로 연대하며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소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추운 길목'과 '겨울'은 화자가 직면한 암담하고 괴로운 현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산업화 시대의 부정적인 현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15 ㉠에서는 '슬픔'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의 '옛이야기 지 줄대는 / 실개천'에서도 '실개천'이 옛이야기를 '지줄댄'다고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깃발'을 '소리 없는 아우성',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에 비유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으며, '소리 없는 아우성'에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② 화자가 자신이 잃어버린 본질적인 자아를 찾아가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나 의인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임이 떠나는 상황에 울지 않겠다는 방어법이 사용되었다. ⑤ '그리는 동안에 ~ 버린 벗도 있다'의 반복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16 (나)의 화자는 '나의 꿈'이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제 강점하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변화시키려는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승려이자 독립운동가, 시인이었던 작가의 이력을 모두 고려한 해석이므로 적절하다. ② 작가가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이 일제 강점기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화자가 함께하고 싶어 하는 '당신'은 독립된 우리 조국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당신이 ~ 나의 꿈은 ~ 이/가 되어서 ~겠습니다'가 반복되면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과 '당신'에 대한 사랑이 강조된다. ⑤ '작은 별', '맑은 바람', '귀뚜라미' 소리는 각각 시각, 촉각,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당신' 곁에 있겠다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16-021쪽
01 ③	02 ①	03 ③	04 ②	05 ③	06 ④	07 ⑤	08 ④	
09 ⑤	10 ③	11 ②	12 ②	13 ②	14 ③	15 ④	16 ④	
17 ④	18 ③							

▶ (가) 봄은_신동엽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저항적, 참여적, 의지적
주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염원
해제	'봄'과 '겨울'의 대립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표현함.

▶ (다) 희망을 위하여_곽재구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가정적, 의지적
주제	희망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
해제	희망을 '너'로 의인화하고 있으며, 가정법을 통해 희망을 갈구하는 간절한 심정을, 종결 어미 '-리'의 반복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형상화함.

01 (나)는 '당신'을 만나 함께하며 사랑의 결실을 이루는 상황음, (다)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며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봄과 겨울의 대비, 우리의 국토와 외세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 반면, (나)는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즉, (가)와 (나) 모두 현재와 과거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② (가)에서 '봄의 그 눈짓' 등은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이지만, '봄'을 청자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 한편 (다)는 '너(희망)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물을 청자로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가)에는 현재형 진술이 나타나지만, (나)와 (다)는 화자가 소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의지와 바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⑤ (가)~(다)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자연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는 대비를 통해, (나)와 (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2 (가)는 종결 어미 ‘-니다’의 반복, ‘움트리라’, ‘녹여 버리겠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인 어조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봄’이 올 것이라는 확신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종결 어미의 반복은 나타나지만, 시구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봄’은 조국의 독립을, ‘겨울’은 국토의 분단과 그로 인한 군사적 대립 및 긴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봄’이 올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직유법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봄’과 ‘겨울’을 대비함으로써, ‘겨울’이라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의 힘으로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낼 ‘봄’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다. 대구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설의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03 (나)는 화자가 소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시선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어느 날 당신과 내가 ~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다면’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반복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주면서 운율을 형성한다. ② ‘~ 있다면’, ‘~ 된다면’과 같이 상황의 가정을 나타내는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불완전한 표현(‘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으로 작품이 종결되는데, 이는 시적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다. ⑤ ‘기다리리’, ‘출게 하리’에서는 ‘-리’를 통해, ‘추운 길목’, ‘겨울’과 같은 외부의 시련을 ‘당신’에 대한 기다림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형성하고 있다.

04 (다)에서 화자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네 곁에 누울 수 없는 내 마음’에서 희망을 품기 어려울 정도로 절망적 현실이 느껴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불안하고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너’에 대한 마음을 지킬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③, ④ 화자는 ‘잠들지 않고’ ‘어둠 속을 질러 오는’ ‘슬픔’을 직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러한 희망으로 절망을 이겨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⑤ ‘한 세상의 슬픔’, ‘불빛 잃은 발걸음들’, ‘어두워진 들뜬’은 불안한 현실을 의미한다.

05 (가)를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한다면, ‘그리움’은 분단을 극복한 후 통일된 조국에 대해 느낄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을 노래한 작품으로 본다면, ‘그리움’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를 분단 상황과 관련지어 본다면 ‘꿈’은 분단이 극복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는 ‘당신’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꿈’은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슬픔’은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를 분단 상황과 관련지어 본다면 분단으로 인한 비극 때문에 슬픔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④ (가)를 분단 상황과 관련지어 본다면 ‘겨울’은 민족적, 시대적 차원의 힘든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나)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겨울’은 개인에게 닥친 고난,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가)를 분단 상황과 관련지어 본다면 ‘기다림’은 분단 현실에서 통일된 조국을 바라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에서 ‘기다림’은 ‘당신’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자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06 ㉠은 ‘겨울’과 관련이 있는 시어로, 민족의 주체성이나 강인한 의지가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긴장의 상황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남해’, ‘북녘’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세를 가리킨다. ② ‘봄’과 ‘겨울’은 대비되는 시어로, ‘봄’이 통일의 기운,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을 의미한다면, ‘겨울’은 분단의 현실을 의미한다. ③ ‘제주에서 두만까지’, ‘아름다운 논밭’

은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를 의미한다. ⑤ 분단으로 인해 한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서 동족 간에 미움으로 가득 찬 상태로 대립하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 (가) 낙화_이형기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사색적, 역설적, 애상적
주제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
해제	낙화와 이별의 유사성을 연결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꽃이 져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별을 겪은 후에 성숙해질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을 드러냄.

▶ (다) 건우의 노래_서정주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설화적, 긍정적
주제	이별을 통해 성숙해지는 사랑
해제	건우와 직녀 설화를 모티브로 이별이 사랑의 과정이라는 역설적 인식을 노래함.

07 [A]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⑤의 ‘찬란한 슬픔의 봄’ 역시 역설적인 표현을 보여 주는데, 이는 슬프지만 절망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슬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고독한 존재의 모습을 형상화한 소재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이 ‘작은 새’가 꽃이 좋아 산에서 산다는 것에서 의인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봄물, 갈산(가을 산), 달, 들’이라는 구체적인 자연물과 비교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배추밭머리’, ‘배추 꼬리’는 향토적이고 전원적인 고향의 느낌을 형상화한다.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는 ‘개나리’와 ‘진달래’처럼 젊은이들도 내면의 힘을 키우며 꿈을 지니기를 소망하고 있다.

08 (가)는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자연의 순환과, 헤어져야 할 때를 알고 이별을 수용함으로써 영혼이 성숙해지는 인간사를 중점시키고 있다. 또한 (나)는 ‘당신’과 만나 사랑의 결실을 이루는 상황을 가정하며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화자가 재회를 확신하며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을 견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이별의 상황을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이별을 통해 영혼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당신’과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다면 ‘추운 길목’, ‘겨울’과 같은 시련도 이겨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③ (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서, 이별을 통해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을 찾을 수 있다. ⑤ (가)는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을,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다)는 사랑을 위해 이별이 필요하다는 역설적 인식을 보여 주는데, 이는 모두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09 (가)는 봄에 피었던 꽃이 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자연의 순환을 드러내고 있으나,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보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는데, 이는 낙화로 인한 서운함에 잠을 이루지 못한 화자가 동틀 무렵의 시간을 ‘성긴 별이 / 하나둘 스러지고’, ‘춧불을 꺼야 하리’와 같이 인식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화자가 꽃이 지는 것을 보며 삶에 대한 무상감과 비애를

느낀다면, (가)의 화자는 이별을 낙화에 빗대어 이별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해 질 수 있다고 노래한다. ② <보기>의 화자가 낙화를 보며 삶의 무상함을 느낀다면, (가)의 화자는 이별을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순환에 빗대고 있다. ③ <보기>는 '우련', '저어하다' 등의 예스러운 시어를 통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반면, (가)에는 예스러운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④ <보기>는 모든 연이 2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춧불을 꺼야 하리 / 꽃이 지는데'와 같이 7·5조의 정형적인 율격이 느껴진다. 반면 (가)는 5연을 제외한 모든 연이 3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형적인 율격은 느껴지지 않는다.

➔ Plus <보기> 낙화 조지훈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낭만적, 애상적
주제	낙화에서 느끼는 삶의 무상감과 비애
해제	새벽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시간 동안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 세상을 등지고 홀로 사는 적막함과 망국의 한을 노래함.

10 (다)는 견우와 직녀 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화자인 견우가 청자인 직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화자는 참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이별의 아픔을 견뎌야 한다는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재회의 날까지 각자의 본분을 지키며 살 것을 말하고 있지만, 대조되는 상황을 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일 년 중 칠월 칠석에만 만난다는 견우와 직녀 설화를 차용하고 있다. ② '출렁이는 물살', '바람'은 이별의 고통을, '푸른 은하물'은 견우와 직녀를 단절시키며 이별의 상황을 상징하는 자연물이다. ④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고통을 긍정하는 역설적 인식에 해당한다. ⑤ 화자인 견우가 청자인 직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1 ㉠은 화자가 '당신'과 날과 씨로 만나 만드는 것으로 사랑의 결실에 해당하며, ㉡은 이별의 시간 동안 재회를 기다리며 직녀가 행해야 할 본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은 화자의 소망 실현이 가정된 상태이므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은 만남을 기다리며 직녀가 행해야 할 본분에 해당하므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유발하지도 않는다. ③ ㉠을 위해서는 만남이 필요하다. 한편 ㉡은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직녀가 해야 할 본분에 해당한다. ④ ㉠은 '당신'과 화자가 만나 이루어 내는 것으로, 상황의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의 기약과 관련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미래의 기약이나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거리가 멀다. ⑤ ㉠과 ㉡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되므로 개인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외부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에서는 '당신'과 만날 날에 대한 기대를, ㉤에서는 기다림과 고통을 인내한 뒤에 다가올 '당신'과의 만남을, ㉥에서는 다시 '당신'과 만날 날에 대한 기대를 보여 주고 있다. 즉, ㉤를 통해 ㉢와 ㉥에 나타난 소망의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화자의 정서가 점차 고조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당신'과 함께할 날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라도 이겨 낼 것이라고 했다. ③ '추운 길목', '겨울'은 화자가 견뎌야 할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④ 화자가 '추운 길목'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함께라면 어떤 '겨울'도 춥지 않을 것이라며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의 간절함을 보여 준다. ⑤ ㉢와 ㉤는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는데, 이러한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며 주제를 강조한다.

▶ (나) 황혼. 이육사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기원적, 독백적
주제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애정
해제	황혼을 맞이하는 순간 인간이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황혼의 품 안에 안긴 소외된 모든 것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함.

▶ (다) 가시리. 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고려 가요
성격	애상적, 서정적, 민요적
주제	이별의 정한
해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간결한 형식과 소박한 시어를 활용하여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절묘하게 표현함.

13 (가)는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당신'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또한 화자는 이를 위해 어떤 고난도 이겨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나)는 인간의 외로운 처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소외된 존재에게 애정을 베풀려는 마음을 표현한다. (다)는 임이 떠나가는 이별의 상황에서 임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이별을 수용하겠으니 어서 돌아오라고 노래한다. 즉, (가)~(다) 모두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대응 방식이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흰 갈매기', '푸른 커튼'에 색채어를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가)와 (다)에는 색채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에서는 '슬픔'과 '그리움'을, (나)에서는 '황혼'을 의인화하여 그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에는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가)는 '당신'과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는 임이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임을 보내는 이유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상황에 대해 가정하고 있지 않다. ⑤ (가)는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나)는 '황혼'을 세상의 모든 존재를 포근하게 감싸는 존재로 형상화한다. 또한 (다)는 떠나는 임에 대한 소극적인 원망과 체념, 그리고 재회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다. 따라서 (가)~(다) 모두 부정적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14 (다)의 화자는 떠나가는 임을 붙잡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수용하면서 임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시리'가 '가시리'와 '고'와 같이 3·3·2조의 음수율을 통해 3음보의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② '위 증중가 대평성대(太平盛代)'라는 후렴구는 이별의 정한이라는 작품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④ 이별에 대한 화자의 솔직한 심정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평민들의 소박한 감정을 노래하는 고려 가요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⑤ 떠나는 임을 붙잡고 싶지만 이별을 수용하면서 임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5 (다)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붙잡고 싶지만, 임이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봐 이별을 수용한다. 즉, '선'하면 '아니 올세라'의 주체는 화자가 아닌 임이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시리'의 주체는 임이다. ② '엇디 살라 하고'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 부분으로, 주체는 임과 이별하는 화자이다. ③ '잡스와 두어리마는'은 떠나는 임을 붙잡아 두고 싶은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부분으로, 주체는 화자이다. ⑤ '가시는 듯 도서 오소서'는 떠나는 임에게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부분으로, 임이 빨리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16 ㉠은 커튼을 걷고 황혼을 맞이한 후 세계와 연결된 공간으로, 자아 성찰을 위해 화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커-튼'으로 세상과 단절되었던 폐쇄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② '커-튼'은 열고 닫는 행위를 통해 '골방'과 세상을 단절시키기도 하고 연결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커-튼'을 걷으면 ㉠은 ㉡으로 변화하게 된다. ③ 화자는 1연에서 세계와 단절되었던 폐쇄적이고 고립된 공간이었던 ㉠을 '아늑한 공간인 ㉡'으로 인식하고 있다. ⑤ ㉠은 화자가 외부와 단절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폐쇄적 공간이라면, ㉡은 화자로 하여금 내일을 향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아늑한 공간이다.

17 '그윽한 눈'은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습으로, 화자의 절망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기다리리'를 통해 '추운 길목'이 의미하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② '추운 길목'은 차가운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겪어야 할 시련과 고난을 나타낸다. ③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는 것은 '그윽한 눈을 들여다'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⑤ '우리들의 사랑을 좋게 하리'는 '우리들의 사랑을 좋게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적인 표현이다.

18 (나)에서 '황혼'은 세상 모든 존재를 어루만져 위로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화자는 황혼의 품 안에 안긴, 소외된 모든 것들에 대해 애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화자가 '황혼'의 품 안에 안겨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맞이하려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골방'은 '커-튼'으로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커-튼'을 걷어 세계와 연결되는 개방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화자는 이 '골방'에서 '황혼'을 통해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② '황혼'은 어두워지는 시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죽음 또는 성찰의 의미를 연상시키지만, (나)에서는 소외된 존재를 감싸 주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④ '황혼'에 입을 맞추는 것은 고독한 존재의 이상을 구현하는 상징인 '황혼'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보여 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⑥ 화자는 3연과 4연에서 소외된 존재들을 '별', '수녀', '수인', '행상대', '인디언'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22-023쪽

01 [A]: 화자는 '당신'과 만나 사랑과 기다림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고 있다. [B]: 화자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C]: 화자는 외로움과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당신'과 다시 만나 사랑의 결실을 이루기를 기원하고 있다. 02 '당신'을 그리워하며 '당신'과 만나 사랑의 결실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상황에서 화자가 겪을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03 민족의 화합과 통일 04 '당신'과 화자를 '날과 씨'에 비유함으로써 '당신'과 만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 05 ㉠과 ㉡에서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01 [A]와 [C]에서는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을 반복하여 화자가 소망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B]에서는 [A]와 [C]에 나타난 상황의 실현을 위해 화자가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02 화자가 '당신'과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에서 현재 화자는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자는 '당신'과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며 소망의 간절함을 보여 주고 있다.

03 <보기>는 작품이 창작되었던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이 글은 분단 극복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04 '당신'과 화자를 옷감을 짜는 데 꼭 함께 있어야 하는 '날과 씨'에 비유함으로써 '당신'과 만나 함께하며 사랑의 결실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05 ㉠과 ㉡에서는 '~ 있다면', '~ 된다면'과 같이 미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24-02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5 화자는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반어적인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절망과는 거리가 멀다.

06 과거가 아닌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08 이 글을 공동체적 삶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 작품으로 해석하면, '당신'은 암울한 현실에 고통받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당신'은 화자와 매우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09 화자는 '당신'과의 만남을 소망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추운 길목', '겨울'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11 화자는 '당신'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6 '한 폭의 비단'은 '당신'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18 '추운 길목'은 화자가 직면한 암담하고 괴로운 현실로, '오랜 침묵과 외로움', '겨울'과 그 함축적 의미가 유사하다.

02. 사회적 대화로서의 글 읽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28-033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⑤ 06 ③ 07 ⑤ 08 ①
 09 ② 10 ⑤ 11 ① 12 ② 13 ⑤ 14 ④ 15 ① 16 ①
 17 ③ 18 ③

01 발표자는 청중의 연령, 배경지식이나 지적 수준, 흥미나 관심의 정도 등 청중의 특성을 고려해야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발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발표의 목적과 주제를 정해야 한다. ② 예상 청중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말하기 전략을 활용하면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발표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02 (마)에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지 알기 위해 실험 참가자들을 에프엠알아이 안에 놓혀 놓고 그들의 뇌를 찍었다고 했다. 그리고 (바)에서는 그 실험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즉, 에프엠알아이를 활용한 이유는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것을 발명하게 된 계기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창의성과 지능은 상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라)를 통해,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무엇인가를 1만 시간 정도 집중해서 훈련하면 뛰어난 성취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임을 알 수 있다. ④ (사)를 통해,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과 대화하고, 내가 몰랐던 분야의 정보를 받아들여 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바)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가 일어날 때 평소 서로 신경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멀리 떨어져 있던 뇌의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3 청중에게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라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시작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발표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발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발표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발표에서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④ 시각 자료는 (라)에서 제시하고 있다. ⑤ 창의성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창의적이려면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일정 수준이 넘으면 지능이 높다고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지능 지수가 110 이하에서는 지능 지수가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아졌으나, 이 수치가 110~120이 넘어가면 더 창의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② 지능과 창의성은 상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③ 창의적이려면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창의성에 높은 지적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지능 지수가 110~120이 넘어가면 지능이 높다고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05 (다)는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 바둑을 더 잘 두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머리를 덜 쓴다는 내용이고, (라)는 1만 시간 정도 무언가를 집중해서 훈련할 경우 뛰어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충분한 훈련을 통해 무언가를 숙달하면 창의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어떤 분야든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훈련한다면 창의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②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훈련의 시간이 더 길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창의적인 수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바둑 7단인 사람이

아니라 7급인 사람이다. ③ 전문적인 악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 간의 차이는 연습과 훈련의 시도 의지가 아닌 연습량이 다른 것이다. ④ 창의적인 성취에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이다.

06 (바)에서 창의성은 고등한 영역의 뇌 일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를 두루 사용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고등한 뇌 영역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경 세포의 연결을 확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기억은 측두엽에 쌓인 정보이므로, 기억이 풍부할수록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사)에 따르면, 문제를 다양하고 낯선 각도에서 보는 사람들과의 지적 대화를 통해 전혀 몰랐던 분야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보기)에서 기억은 기존의 지식에 새로운 해석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지적 대화를 통해 받아들인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여 의미 조직망을 확장할 수 있다. ④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운전에 대한 정보가 더 많다. ⑤ 1만 시간의 법칙은 시간을 들여 충분히 훈련한다면 창의적인 성취를 할 수 있다는 이론이므로, 충분한 정보를 쌓으면 신경 세포 연결의 확장을 통해 넓은 의미 조직망을 형성할 수 있다.

07 (나)~(라)에서 뇌 과학과 관련하여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며, (마)~(사)에서 일상 속에서 창의성을 증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나, 이것이 발표의 목적은 아니다. ②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나, 창의적인 발상의 목적이나 중요성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남과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창의적인 발상이 시작된다고 했으나, 이것이 뇌 과학과 관련하여 창의성을 설명하고 일상에서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의 목적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④ 창의적인 발상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창의적인 발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으나,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학습법은 확인할 수 없다.

08 창의적인 사고가 일어날 때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창의적인 발상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제시하고 있으나, 창의적인 사고의 특징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② 일상에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 수면, 독서, 여행, 사람 만나기를 제시하고 있다. ③ (다)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순간, 평소 신경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멀리 떨어져 있는 뇌의 영역들이 신호를 주고받는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에서 아인슈타인을 예로 들어 운동이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다)의 실험에서 전두엽과 후두엽이, 측두엽과 두정엽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처리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9 (라)에서, 창의적인 발상은 결과물(㉠)인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체를 흉내 내기보다 남과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즉 그러한 사고방식(㉡)을 흉내 내고 변형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창의적인 발상 자체라면, ㉡은 그것을 위한 다양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③ 남과 다르게 생각하려는 노력이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모두 ㉡과 관련이 있다. ④ 추상적인 개념들을 있고 상관없는 개념들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모두 ㉡과 관련이 있다. ㉢은 그러한 시도를 통해 얻어 낸 창의적 아이디어를 뜻한다. ⑥ 창의적인 사람의 사고 과정은 ㉠이 아닌 ㉡과 관련이 있다.

10 (사)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발표를 요약·정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② (다)에서는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라)에서는 '평소 연결되지 않는, ~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와 같

이 질문한 후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③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준언어적 인 요소에 해당한다. ④ 단호한 표정은 비언어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11 '실험'을 통해 창의성은 가장 고등한 영역의 뇌 일부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를 두루 사용해야 만들어지는 능력임 이 밝혀졌다.

오답 해설 ② 신경 과학자들은 창의적인 발상의 실마리를 신경 과학적인 접근에 서 찾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기발한 발상을 했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③ '실험'에서는 평소 신경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멀리 떨어져 있는 뇌의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 것을 통해 전두엽과 후두엽이, 측두엽과 두정엽이 함께 정보를 처리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④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순간, 평소 신경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멀리 떨어진 뇌의 영역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확인했다. ⑤ 전두엽과 후두엽이, 측두엽과 두정엽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정보를 처리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자신의 지식 안에서 사고하는 사람은 창의적인 발상을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창의적인 사람에 비해 멀리 떨어진 뇌 의 영역들이 서로 신경 신호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처리하는 현 상이 덜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이지, 뇌의 영역들이 신경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이 가진 지식의 틀 안에서 사고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다른 각도로 바라보거나 상관없는 개념을 서로 연결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잇는 현상 이 뇌에서 별로 일어나지 않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③ 뇌 전체를 두루 사용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은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므로, 모 자 그림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다. ④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짜 놓은 틀 안에서 사고한 결과로,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지 않 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모자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보고 전혀 다른 것과 연관시 키거나 관련 없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은 창의적인 사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3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 주는 실험을 제시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창의성을 증진하 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창의적인 사고를 할 때 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 과 함께, 창의적인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 다. ② 창의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물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를 할 때 뇌의 작용을 설명하면서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③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뇌 전체를 사용하는 현상이 벌어진 다는 것을 제시했지만, 이것이 중심 내용은 아니다. ④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 람들과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 이것이 중심 내용은 아니다.

14 청중의 지적 수준, 배경지식 등을 고려하여 청중이 이해하기 쉽 게 발표해야 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표정, 손짓, 몸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어조, 목소리의 높낮이 나 크기 등의 준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말하기의 효과를 높일 수 있 다. ② 도입부에서는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발표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 한다. ③ 전개부에서는 발표의 중심 내용을 제시한다. ⑤ 매체 자료는 독자의 이 해를 돕고 발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15 (가)에서 발표자는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하며 청중의 흥미를 유 발하고 있다. 또한 신경 과학자들이 창의적인 발상의 실마리를 신경 과학적인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제시 하고 있으므로, 창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의 오류 를 바로잡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나)에서는 바둑 7단 기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예로 들어 신경 과 학자들이 실시한 실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다)는 창의적인 발상을 했을 때 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에서 언급한 실험의 결 과가 지니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④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으로 (라)에서는 남들과 다른 생각과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마)에서는 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⑤ (바)는 여태까지의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 하며 청중에게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6 (나)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순간, 평소 신경 신 호를 주고받지 않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뇌의 영역들이 서 로 신호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④ 평소 신경 신호를 주고받지 않았던 뇌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은 것이다. ⑤ 뇌의 멀리 떨어진 영역들이 신 경 신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뇌 전체를 두루 사용한 것이다.

17 이 글에서는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으로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의 지적인 대화, 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창의적인 발상을 할 때 추상적인 두 개념을 잇는 일이 뇌에서 벌어지지만,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많이 접하라는 것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마)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② 모든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것은 (라)에 제시된 내용, 즉 문제를 다양하고 낯선 각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관련된다. ④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 이 생겨 그것을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바)에서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며, (라)와 (마)에서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8 <보기>에 따르면, 창의성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그것을 변형하며 새로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창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결과물의 도출이 '창의적인 순간' 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그것을 변형하며 새로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② (라)에서 남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과의 지적인 대화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④ 운동과 지적인 대화는 이 글에서 창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시한 방법이다. ⑤ (다)에 따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순간 어떤 문제를 다른 각도로 바라보거나 상관 없는 개념을 서로 연결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잇는 일이 뇌에서 벌어진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34~037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①	05 ③	06 ②	07 ④	08 ④	
09 ④	10 ④	11 ④	12 ②					

01 발표에서는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답 해설 ① 발표자는 청중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 해야 한다. ② 발표자는 발표 목적과 주제에 맞게 발표를 구성해야 한다. ③ 발표 자는 청중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하여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 ④ 발표 주제를 고 려하여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발표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02 (마)에 따르면, 수면 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의미 있는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일을 한다. 신경 세포의 재생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창의적인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면서 '만 시간의 법칙'과 함께 일상 속에서 창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창의성은 훈련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안데르스 에릭슨이 말한 '만 시간의 법칙'은 재능보다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④ (라)에서 성인이 되어서도 신경 세포는 계속 만들어지며, 운동을 할수록 신경 세포가 더욱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에서 남과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가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3 (다)에 따르면,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적인 대화를 나누며 내가 전혀 몰랐던 분야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지니는 것은 창의적인 존재가 되는 방법과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가)에 따르면, 창의적인 사람은 많은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고 중요한 기술은 체화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훈련으로 익히고 중요한 순간에 지적인 에너지를 발휘한다. ② (나)에서 '만 시간의 법칙'은 재능보다 연습량, 즉 훈련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창의적인 존재가 되려면 남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과 자주 지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라)에서는 운동, (마)에서는 충분한 수면을 제시하고 있다.

04 운전이 숙련되지 않은 ㉠은 운전이 숙달된 ㉡에 비해, 운전에 대한 기술을 체화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것을 익힐 때부터 훈련보다는 지적인 능력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은 ㉡에 비해 운전에 대한 기술을 훈련으로 익힐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운전이 숙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③, ④ ㉡은 운전이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머리를 덜 쓰고, 중요한 순간에 운전과 관련된 지적 에너지를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은 운전이 숙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도 머리를 많이 쓴다. ⑤ ㉠과 ㉡은 운전 기술을 체화하는 훈련 시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순간에 지적 에너지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과 달리 ㉠은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도 머리를 많이 쓴다.

05 (다)에서는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라)에서는 비언어적 요소인 표정을 활용하여 발표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다)에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니라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해야 하는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라)의 '단호한 표정'은 비언어적 요소가 아닌 비언어적 요소에 해당한다. ② (다)에서는 창의적인 존재가 사고하는 방법이 아니라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사고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은 (라)가 아닌 (가)와 (나)에 나타난다. ④ 지적인 대화는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 중 하나이다. 한편 청중과의 상호 작용은 (라)가 아닌 (가)와 (나)에 나타난다. ⑤ (다)에서는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과의 지적인 대화가 창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주요 내용은 아니다. 또한 시각 자료는 (라)가 아닌 (나)에서 활용하고 있다.

06 (나)에서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을 음식이 숙성되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창의성은 생각의 노동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을 연결해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창의성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또한 남과 다른 선택,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도전, 상상력이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므로, 배경지식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창의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고 있으나, 천재적인 발상과 창의성의 차이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④ 창의성의 핵심과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창의성의 개념 변화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인용하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예로 들어 창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의 경험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07 (가)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사례를 제시하며 창의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고 있을 뿐, 사람들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창의성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을 연결해 새롭게 만드는 데에서 발휘되며,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선택을 하며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② 스티브 잡스는 창의력을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하며,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을 연결해 새롭게 만드는 능력을 창의성의 핵심으로 보았다. ③ 자신이 알고 있는 틀 안에서 사고하는 것은 새로움이 주는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한다. ⑤ 사람들은 기존의 생각,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따르려 한다.

08 독서가 실용적인 목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④는 글을 읽은 후 독서 모임에서 이야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독서를 한 후 공감한 내용이나 공감하지 않은 내용,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①), 함께 논의하고 싶은 점(②), 기억에 남는 구절이나 내용(③), 추가로 찾아보고 싶은 책이나 자료(⑤)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09 (다)와 (라)에서는 창의성과 관련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질문('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말은 사실일까?')을 통해 글을 시작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흥미를 유발한다. ② (가)와 (나)에서는 창의성이 천재적인 발상에서 비롯되며, 창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람들의 오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③ (다)는 사람들이 창의성에 새로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존의 생각,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⑤ (라)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을 예로 들어 상상력이 창의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0 (라)에 따르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사실 관계의 확인만이 아닌 동화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오답 해설 ① (라)에서, 창의성을 위해 자신의 지식의 틀 안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화적인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남과 다른 선택을 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라)에서,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답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길러진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에서, 남과 다른 선택을 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그대로 따르려는 것이며, 사람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이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움으로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을 선택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문제에 대하여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 가는 것은 ㉠이 아니라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이다. ⑤ 경험이 남다른 사람의 방식을 따라 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얻는 것은 ㉠을 따르는 것과 대조적인 태도이다.

12 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오답 해설 ① 지민은 첫 번째 발언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편견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③ 민수는 대화를 바탕으로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④ 희주는 첫 번째 발언에서 뉴턴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민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 ⑤ 지민은 두 번째 발언에서 글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제시하면서 친구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 01 창의적인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한 훈련을 통해 중요한 순간에 지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훈련의 시간이 적은 바둑 7급인 사람과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일주일 된 사람이 더 머리를 많이 쓸 것이다.
- 02 창의성은 재능이나 천재적인 발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과 정보를 머리에 저장하고 충분히 훈련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03 • 남과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을 연결해 본다. • 다양한 생각과 남다른 경험을 하도록 노력한다. 04 청중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말해야 하며, 준비한 발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분배하여 발표해야 한다. 또한 발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몸짓이나 손짓 등을 활용해야 하며, 청중의 표정이나 몸짓 등의 반응을 파악하여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며 말해야 한다.

- 01 (가)에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머리를 많이 쓰는지 질문하고 있으며, (나)와 (다)에서는 많은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고 오랜 시간 훈련을 하면 창의적인 성취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02 (나)와 <보기>는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는 충분한 훈련이 창의적인 성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03 (가)는 창의적인 발상이 남과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나)는 창의성의 핵심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을 연결해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 (다)는 다양한 생각을 통해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04 발표자는 청중의 흥미와 요구, 지적 수준 및 배경지식을 고려하고,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 등 발표 목적과 주제에 맞는 다양한 말하기 전략을 활용하여야 한다.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 01 창의적이려면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일정 수준이 넘으면 지능이 높다고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즉, 창의성과 지능 지수는 상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 07 남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 09 성인이 된 후에도 신경 세포는 계속 만들어지며, 운동을 할수록 더욱 많이 만들어진다.
- 10 독서는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데, 물리적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

- 18 사회적 독서 활동이란 글쓴이와 독자, 여러 독자 간에 대화하며 소통하는 과정으로, 가정, 학교,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공간에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 20 사회적 독서 활동은 개인의 지적·정서적 성장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며 독서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래로 이어지는 국어의 발자취

01. 국어와 매체의 변화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46-049쪽

- 01 ④ 02 ⑤ 03 ③ 04 ④ 05 ② 06 ④ 07 ④ 08 ①
09 ② 10 ④ 11 ① 12 ⑤ 13 ① 14 ④ 15 ④ 16 ③

01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의 글자인 한자와 뜻이 서로 통하지 않아서 훈민정음 28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중국의 글자와 훈민정음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새로 스물여덟자를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훈민정음의 글자 수가 28자임을 알 수 있다. ②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훈민정음에는 우리의 말과 통하는 우리의 글자가 필요하다는 자주정신, 백성들을 사랑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는 애민 정신과 창조 정신, 백성들이 쉽게 익히고 쓰기에 편안한 글자라는 실용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⑤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 흙· 배'는 '바'의 모음 'ㅏ' 뒤에서 주격 조사 'ㅣ'가 실현된 형태이다. 'ㅏ'는 모음 'ㅣ'도, 반모음 'ㅣ'도 아니므로 뒤에 주격 조사 'ㅣ'가 온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④ '말ㅅㅅ·미'와 '·노·미'는 '말ㅅㅅ'과 '놈'의 자음 'ㅁ' 뒤에서 주격 조사 'ㅣ'가 실현되었다. ② '문ㅅㅅ·중·와'에는 주격 조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ㅁ·씩ㅅㅅ·성·이'는 'ㅁ씩ㅅㅅ'의 자음 'ㅇ(옛이음)' 뒤에서 주격 조사 'ㅣ'가 실현되었다.

03 ㉠은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어리다'로 그 의미가 이동하였다. 또한 ㉡은 중세 국어에서는 '불쌍히'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다'로 그 의미가 이동하였다.

오답 해설 ① 어휘의 의미가 이동한 것이지 어휘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② 중세 국어에서 사용되던 의미와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다른 사례이다. ④ 시간이 흐르면서 어휘의 의미가 이동한 것이지 분화한 것은 아니다. ⑤ 현대 국어로 오면서 어휘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04 ㉠은 현대 국어의 '여겨'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두 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오답 해설 ① '·(아래아)'는 현대 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모음이다. ② ㉡는 현대어로 풀이하면 '중국어'이므로, 조사 '에'가 비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는 '놈'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된 '놈ㅣ'를 이어 적기로 표기한 것이다. ⑤ 어두 자음군은 단어의 첫머리, 즉 '어두'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것으로, ㉡의 'ㅅㅅ'이 이에 해당한다.

05 '中國'을 '중국'이 아닌 '둥·꺠'이라고 표기한 것은 세종 당시의 한자음을 중국의 한자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동국정운식 표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훈민정음'은 모두 중성이 있는 글자들 이루어져 있으므로, 발음상 받침이 없는 한자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발음상 받침이 없는 '字·중'에 음가 없는 'ㅇ'을 표기하였다. ④ '姓·성'의 'ㅇ'은 음가가 있는 소리로, 받침이 없는 글자를 한자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것이 아니다. ⑤ '위(爲)'를 '爲·왕'로 표기한 것은 발음상 받침이 없는 글자에 음가가 없는 'ㅇ'을 표기한 예에 해당한다.

06 '·놈'은 중세 국어에서 '사람'을 뜻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을 의미하므로, 의미가 축소된 어휘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서르'는 '서로'를 뜻하는데, 현대 국어와 형태만 다르고 그 의미는 같다. ② '전·츠'는 '까닭'을 뜻하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져 사용하지 않는다. ③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을 뜻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어린'을 뜻하므로, 의미가 이동한 어휘에 해당한다. ⑤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는 '불쌍히'를 뜻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를 뜻하므로, 의미가 이동한 어휘에 해당한다.

07 '·날·로·뿌·메'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날마다 씀'으로, 여기서 '뿌·메'는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형태(뿌- + -음 + 에)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명사형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08 중세 국어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ㅅ', 'ㅁ'과 같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있었으므로, (가)가 아닌 (나)의 첫머리에 한 개의 자음만 온다.

오답 해설 ① '나·랏·말ㅅㅅ·미', '·쁘·들', '·노·미' 등과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주로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 옆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지만, 현대 국어에는 방점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⑤ (나)를 통해 현대 국어에서는 중세 국어와 달리 끊어 적기와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09 '· 흙· 배ㅣ· 서·도'의 '· 배'는 '바(의존 명사) + ㅣ(주격 조사)'가 결합된 것으로, 모음으로 끝난 체언 '바'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하여 '배'로 줄어든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말ㅅㅅ'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되어 '말ㅅㅅ·미'로 이어 적은 것이다. ③ '놈'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되어 '·노·미'로 이어 적은 것이다. ④, ⑤ 주격 조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10 '字·중·를'은 '중'에 사용된 양성 모음 'ㅇ' 뒤에서 목적격 조사 '를'이 실현된 형태이다. '·쁘·들(뿐 + 을)'은 '뿐'에 사용된 음성 모음 'ㅡ' 뒤에서 목적격 조사 '을'이 실현된 형태이다.

오답 해설 '스ㅅㅅ·디'와 'ㅎ·니·라'에는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각각에 결합된 '디'와 '니'에는 'ㅣ'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중성 모음으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11 (가)는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기 전 과거의 의사소통을 보여 주고, (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을 보여 준다. 즉, 매체가 변화하면서 (가)와 (나)의 소통 방식도 달라지게 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가)와 (나)는 의사소통의 수단에 따른 소통 방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 내용에 따라 의사소통의 수단이 달라짐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③ (가)와 (나)는 말하기의 목적이 아닌 매체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 준다. ④ (가)는 수첩에 전화번호를 적어 주거나 도시락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으며, (나)는 링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매체가 발달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⑤ (가)와 (나)를 통해 매체의 변화가 소통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에서는 약속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면, (나)에서는 휴대 전화 대화방에서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매체가 달라졌다고 해서 소통의 목적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12 휴대 전화 대화방에서는 문자 언어 이외에도 이미지로 감정이나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말을 통해 소통하기도 한다.

오답 해설 ① 'ㅎㅇ', 'ㄱㄱ', 'ㅇㅋ', 'ㅇㅇ'은 초성으로 의미를 전달한 것이다. 모음만으로 의미를 표현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② 'ㅎㅇ', 'ㄱㄱ', 'ㅇㅋ', 'ㅇㅇ'은 감

정을 표현했다기보다 자음만으로 의미를 전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영화 가?', '무슨 영화?'와 같은 표현은 각각 '영화 보러 갈래?', '무슨 영화 볼 거야?'와 같은 완전한 문장을 줄여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일상 대화에 가까운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3 '꿀잼'을 대화에서 사용하고 대화 참여자들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 '꿀잼'이 새말로서 인정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자음과 모음만으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새말, 즉 새로운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말의 가치를 뛰어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③ 휴대 전화 대화방 처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소통에서는 빠르게 말하기 위해 줄임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표현이 새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확산되는 것이므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새말을 빠른 시간에 창작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떡볶이 콜?'은 '떡볶이'와 '콜'을 합친 표현으로, (나)에서는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로 인해 다른 누리꾼들에게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 대화 참여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14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대화에서는 줄임말이나 새말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세대에 따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소통하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실시간 쌍방향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③ (가)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를 하고 있으며, (나)에서도 '고래지킴이, 바다물결, 새벽녘, 소크라'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있다. ⑤ (가)와 (나)에는 그림 문자나 이모티콘, 실시간 영상이 활용되고 있다.

15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할 때에는 다른 세대나 집단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답 해설 ① 인터넷 매체에서는 시각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줄임말은 참여자들에게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하지만, 다른 세대나 집단과의 소통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③ 이모티콘, 그림말 등을 활용하여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항상 사용할 필요는 없다. ⑤ 문장 성분을 생략하여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문장 성분을 생략할 경우 오히려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다.

16 휴대 전화 대화방에서는 언어적 표현과 함께 그림말과 같은 시각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그러나 빼빼는 숫자만 수신할 수 있으므로 언어적 표현과 시각 자료를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빼빼, 휴대 전화 대화방,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매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들로, 매체에 따라 소통 방식도 달라졌다. ② 빼빼는 숫자만 수신할 수 있는 매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숫자에 의미를 담아 소통했다는 내용을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빼빼가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번호를 보낼 수 있었다면, 휴대 전화 대화방이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빼빼와 차이가 있다. ⑤ 빼빼는 숫자만 수신할 수 있었으므로 상대방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 반면, 휴대 전화 대화방이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쌍방향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50-053쪽

01 ① 02 ② 03 ⑤ 04 ① 05 ① 06 ③ 07 ⑤ 08 ④
 09 ② 10 ① 11 ⑤ 12 ④ 13 ② 14 ① 15 ④ 16 ②

01 [A]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중세 국어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랏·말·쌈·미', '·노·미'는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후 이어 적은 것이다. 이외의 다른 표현에서도 이어 적기가 주로 사용되었다. ③ '세·생宗 종御·형·쟁'의 '세·생', '御·영', '製·쟁'과 '爲·왕·히·야'의 '爲·왕'는 모두 받침이 없는 글자에 음가가 없는 '이'를 표기한 것이다. ④ '中·동·國·국·에·달·야'와 같이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부·메' 등에서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2 '·노·미'의 '놈'은 중세 국어에서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④, ⑤ 의미 변화가 없는 단어이다. ③ '불쌍히'에서 '예쁘게'로 의미가 이동한 단어이다.

03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씬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에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과 기대 효과가 나타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한자를 편하게 익히게 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訓(가르칠 훈) + 民(백성 민) + 正(바를 정) + 音(소리 음)'으로 이루어진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百姓)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다. ②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리 중국의 문자인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다. ③ 자주정신, 애민 정신, 실용 정신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쉽게 익히 사용하기에 편한 글자인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다. ④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中·동·國·국·에'는 '중국국'로 해석되므로, 중세 국어에서 '에'는 비교를 의미하는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말이 장소임을 표시하는 조사는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아·니·홀·씩'의 '-르씩'은 현대어 '-어서'에 해당하므로, 앞말이 뒤에 오는 내용과 인과 관계로 연결됨을 표시하는 어미이다. ③ '어·린'의 '-니'는 현대어 '-은'에 해당하므로, 앞말이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함을 표시하는 어미이다. ④ '·쁘·들'의 '을'은 현대어 '을'에 해당하므로, 앞말이 문장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다. ⑤ '떠·디'의 '-디'는 현대어 '-지'에 해당하므로,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할 때 쓰는 어미이다.

05 '니르·고·저'를 현대어로 해석하면 '이르고자'로, '니르·고·저'와 '이르고자' 모두 받침이 없어 이어 적기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모·춤·내'에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음자인 '·' (아래 아)가 사용되었다. ③ '스·물어·들·중·를'의 '스·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는 양순음('ㅂ', 'ㅃ', 'ㅍ', 'ㅁ') 뒤에 오는 'ㄱ'이 원순 모음인 '구'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수·비'에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자인 '브(순경음 비읍)'가 사용되었다. ⑤ '부·메'의 '부'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초성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을 함께 쓰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Plus (참고) 원순 모음화

원순 모음화	양순음(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 ㅂ, ㅃ, ㅍ, ㅁ) 뒤에 오는 'ㄱ'가 원순 모음인 '구'로 바뀌는 음운 현상 예 ·스·물 → 스물
--------	--

06 '에'는 중세 국어에서 '中·동·國·국·에'와 같이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 '에'는 '와/과'와 같은 부사격 조사로 쓰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는 없는 '으(엿이음), 히(여린히음)' 등이 사용되었다. ②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④ 중세 국어의 '字·중·를'에서는 양성 모음인 '·' 뒤에 역시 양성 모음인 '·'가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반면 현대 국어의 '자들'에서는 양성 모음인

'ㅏ' 뒤에 음성 모음인 'ㅡ'가 오므로, 중세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를 사용했다.

07 ㉠은 중세 국어에서 '불쌍히'를 의미하지만, 현대 국어로 오면서 그 의미가 '예쁘게'로 이동하였다.

오답 해설 ①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세(世)', '어(御)', '제(製)'의 받침에 음가가 없는 'ㅇ'을 표기한 것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해당한다. ② ㉠을 현대어로 해석하면 '서로'로, 현대 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다. ③ 현대 국어의 '퍼지'에 해당하는 말로, 중세 국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퍼디'로 표기한 것이다. ④ '놈이'를 이어 적은 것이다.

08 '·성'이 자음으로 끝났으므로 ㉠에는 주격 조사 '이'가, '·쫘'가 양성 모음으로 끝났으므로 ㉡에는 목적격 조사 '를'이 들어가야 한다.

09 '어엿·비'에서 'ㅅ'은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하게 하는 자음이다.

오답 해설 ① '·배'는 'ㅂ(의존 명사) + ㅣ(주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모음으로 끝난 체언 '배'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하여 '배'로 줄어든 것이다. ③ '·뿌·메'는 '뿌(동사 어간) + -음(명사형 어미) + 예(조사)'가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④ '퍼·디'는 현대 국어의 '퍼지'로, 중세 국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이다. 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소리에 'ㄹ'이나 'ㄴ, ㄷ, ㄱ, ㅍ, ㅌ'와 결합하는 'ㄴ'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니르·고·저', '니·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예이다.

10 ㉠과 ㉡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어휘로 소멸된 사례이며, ㉢과 ㉣은 중세 국어에서 각각 '어리석은', '불쌍하게'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현대 국어에서 '나이가 어린', '예쁘게'로 의미가 이동한 사례이다.

오답 해설 ㉢은 현대 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모음인 '·(아래아)'가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마침내'로 나타나며,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Plus <참고>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생성, 소멸, 변화의 과정을 겪는 특성	
생성	예 컴퓨터, 휴대폰
소멸	예 즘(천), 가람(강)
변화	의미 확대 예 다리: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 → 무생물의 다리도 포함
	의미 축소 예 놈: 사람 →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의미 이동 예 어리다: 어리석다. → 나이가 어리다.

11 '中(중)·國(국)·꺈(에)'에서 알 수 있듯이 훈민정음에는 한자음을 중국 한자 원음에 가깝도록 표기하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사용되었다(ㄴ). 또한 한자를 먼저 적고 오른쪽에 한자음을 표기했다(ㄷ). 그리고 한자어의 한 음절은 '초성-중성-종성'을 반드시 구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ㅅ·쟁'과 같이 받침이 없는 글자에는 음가 없는 'ㅇ'을 표기하여 중성을 갖추도록 했다(ㄹ).

오답 해설 ㄱ.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는 '초성-중성-종성'을 반드시 구비하여 표기하도록 했기 때문에, 받침이 없는 글자에는 음가 없는 'ㄹ'이 아닌 'ㅇ'을 표기했다.

12 '·스·물·여·뉘'의 '스·물'에는 순음 'ㅁ'이 사용되었으며, '물'에 쓰인 'ㄱ'가 'ㄴ'로 바뀌어 현대 국어에서는 '스물여덟'이 되었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순음과 'ㄱ'가 결합한 어휘가 아니다.

13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소리에 'ㄹ'이나 'ㄴ, ㄷ, ㄱ, ㅍ, ㅌ'와 결합하는 'ㄴ'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러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니르·고·저'로 표기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두음 법칙과 관련이 없는 어휘이다.

14 (가)의 소통 방식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나)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오답 해설 ② 도시락을 전해 주는 것,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는 것, 약도를 보면서 목적지를 찾는 것은 모두 대면 의사소통에 해당한다. ③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사소통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자 기기를 통해 비대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④ (나)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과 그 방송에 참여하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⑤ (나)는 휴대 전화나 컴퓨터 등의 전자 기기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15 ㉠은 과거에 자료를 찾던 방식이다. ㉡과 같은 방식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자료를 얻는 것과 같이 변화했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 자료를 구한다는 영상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찾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외에도 현재에는 전자 우편이나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메시지를 남기거나 휴대 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전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② 이외에도 현재에는 모바일 메신저로 사진이나 동영상, 메시지를 직접 전송하기도 하고, 누리 소통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⑤ 이외에도 현재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길을 찾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6 인터넷 매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때에는 새말이나 줄임말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다른 세대나 집단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해당한다.

서담·서술형 문제

본문 054쪽

01 [A]: 자주정신 [B]: 애민 정신, 창조 정신 [C]: 실용 정신 02 ㉠: 나라의 - 현대 국어와 달리 관형격 조사로 'ㅅ'이 쓰였다. ㉡: 중국과 - '에'가 현대 국어의 '와/과'와 같이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 바가 - 현대 국어와 달리 주격 조사로 'ㅣ'가 쓰였다. 03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없다. 음성, 문자, 시각 자료, 영상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전달하며, 감정과 정서도 표현한다. 지식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즉각적으로 서로의 반응을 공유할 수 있다.

01 [A]에는 우리나라 말과 중국의 말이 다른 인식한 자주정신이 나타나고, [B]에는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긴 애민 정신과 새로운 문자를 만든 창조 정신이 나타난다. 또한 [C]에는 백성들의 편안한 문자 생활을 도모한 실용 정신이 나타난다.

02 중세 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ㅅ'이, '와/과'를 뜻하는 부사격 조사로 '에'가, 주격 조사로 'ㅣ'가 쓰였다.

03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쇄 매체나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에서 인터넷 매체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가 변화하였다.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05 중세 국어에서는 ‘놈이’를 ‘·노·미’와 같이 표기한다. 이는 중세 국어의 특징 중 하나인 이어 적기의 예에 해당한다.
- 09 인터넷 매체를 통해 즉각적으로 서로의 반응을 공유할 수 있다.

02. 한글 맞춤법과 국어 생활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58-063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④ 05 ③ 06 ③ 07 ① 08 ③
09 ⑤ 10 ② 11 ⑤ 12 ④ 13 ② 14 ⑤ 15 ③ 16 ②
17 ③ 18 ⑤ 19 ② 20 ① 21 ⑤ 22 ② 23 ② 24 ①
25 ① 26 ③ 27 ④ 28 ② 29 ⑤ 30 ⑤ 31 ①

- 01 ㉠ ‘이파리’는 ‘잎’에 ‘-아리’가 결합한 말이지만 ‘잎아리’로 적지 않고 ‘이파리’로 적는다. 이는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규정(한글 맞춤법 제20항)에 따른 것이다. ㉡ ‘끝나다’는 [끈나다]로 소리 나지만 각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끝나다’로 적는다.

오답 해설 ① ‘높이’는 ‘높다’의 어간 ‘높-’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으로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며, ‘마중’은 ‘맞다’의 어간 ‘맞-’에 ‘-웅’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으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② ‘구름’과 ‘하늘’은 모두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③ ‘졸음’은 ‘졸다’의 어간 ‘졸-’에 ‘-음’이 붙어 명사가 된 것으로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며, ‘나무’는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⑤ ‘꽃다발’은 [꼇따발]로 소리 나지만 각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혔으므로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며, ‘쓰러지다’는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 02 단어를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며, 단어별로 띄어 쓰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답 해설 ① 조사는 단어에 포함되지만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②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는 문장이다. ④ 의미를 변별하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음운이다. ⑤ 어간은 어미와 결합해야 단어가 되고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으나, 이것이 띄어쓰기의 기준이 단어인 이유는 아니다.

- 03 ‘데’는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나는 나대로 갈 데가 있으니 걱정 말아라.’로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4 ‘바둑이’는 명사 ‘바둑’에 접미사 ‘-이’가 붙은 명사로, 이때의 ‘-이’는 단어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삶’은 동사의 어간 ‘살-’에 접미사 ‘-ㅁ’이 붙은 명사로, 이때의 ‘-ㅁ’은 단어의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꾼다. ② ‘꾸준히’는 동사의 어간 ‘꾸준-’에 접미사 ‘-히’가 붙은 부사로, 이때의 ‘-히’는 단어의 품사를 동사에서 부사로 바꾼다. ③ ‘웃음’은 동사의 어간 ‘웃-’에 접미사 ‘-음’이 붙은 명사로, 이때의 ‘-음’은 단어의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꾼다. ⑤ ‘맛나다’는 명사에 접미사 ‘-나다’가 붙은 형용사로, 이때의 ‘-나다’는 단어의 품사를 명사에서 형용사로 바꾼다.

- 05 ‘마개’는 ‘막다’의 어간 ‘막-’에 접미사 ‘-애’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단어로 ㉠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예이다. 한편 ‘꽤 고’는 ‘괴다’의 어간 ‘괴-’에 ‘-어-’가 어울려 ‘꽤-’로 된 것이므로, ㉡에 따라 준 대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얼음’은 ‘얼다’의 어간 ‘얼-’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으로, ㉠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췌다’는 ‘쇠다’의 어간 ‘쇠-’에 ‘-었-’이 어울려 ‘췌-’으로 된 것이므로, ㉡에 따라 준 대로 적어야 한다. ② ‘높이’는 ‘높다’의 어간 ‘높-’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므로, ㉢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췌다’는 ‘찌다’의 어간 ‘찌-’에 ‘-었-’이 어울려 ‘췌다’가 된 것이므로, ㉣에

따라 준 대로 적어야 한다. ④ '벌'은 '벌다'의 어간 '벌-'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므로, ㉠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뵈다'는 '뵈다'의 어간 '뵈-'에 '-었-'이 어울려 '뵈-'으로 된 것이므로, ㉡에 따라 준 대로 적어야 한다. ⑤ '익히'는 '익다'의 어간 '익-'에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므로, ㉠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뵈'는 '뵈다'의 어간 '뵈-'에 '-어'가 어울려 '뵈'가 된 것이므로, ㉡에 따라 준 대로 적어야 한다.

06 의존 명사는 그 앞에 반드시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의존적인 말이지만, 자립 명사와 같은 명사 기능을 하는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하지만 조사는 단어로 취급되지만 자립성이 없으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오답 해설 ① 띄어쓰기의 단위는 단어이다. ② 한글 맞춤법은 한글로 우리말을 적을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④ 한글 맞춤법 제1장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⑤ 한글 맞춤법은 문자로 이루어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해 준다.

07 한글 맞춤법 제5항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에 따르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오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씩둑'이 맞는 표기이다.

오답 해설 ② 한글 맞춤법 제11항에 따르면,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어야 한다. [붙임 1]에 따라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므로, '흔레'가 맞는 표기이다. ③ 한글 맞춤법 제11항 '다만'에 따르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울'로 적어야 하므로, '할인율'이 맞는 표기이다. ④ 한글 맞춤법 제11항에 따르면,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어야 하므로, '양식'이 맞는 표기이다. ⑤ 한글 맞춤법 제5항 '다만'에 따르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오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깍두기'가 맞는 표기이다.

08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오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법씩'이 아닌 '법석'으로 적는다.

오답 해설 ①, ④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오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딱지'와 '접시'로 적는다. ②, ⑤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엉뚱한'과 '듬뿍'으로 적는다.

09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②, ③ 조사는 단어이지만 자립성이 없어 앞말에 붙여 쓴다. 또한 '학교에서처럼'과 같이 조사가 둘 이상 연속되어 나타나더라도 앞말에 붙여 쓴다. ④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하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10 '둥'은 무슨 일을 하는 듯도 하고 하지 않는 듯도 함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먹는 둥 마는 둥'과 같이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한'은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맛있기만'의 '만'은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④ '자루'와 '개'는 각각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⑤ '이'는 사람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11 '뽀'이 '남자뽀이다. 셋뽀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 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지만, '웃을 뽀이다. 만졌을 뽀이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오답 해설 ① 단어를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다. ② 조사는 단어에 해당하므로 ㉠에 따르면 조사도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고 앞말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앞말에 붙여 쓰기 때문에 ㉠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③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학교에서처럼'은 '학교'에 조사 '에서'와 '처럼'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모두 붙여 써야 한다. ④ '것'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의존 명사이므로 '먹을'과 띄어 써야 한다.

12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발음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대로 적으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은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어야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즉, '꽃이, 꽃만, 꽃도'의 '꽃'을 '꽃, 끈, 끈'보다는 '꽃' 하나로 일관되게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오답 해설 ①, ⑤ '꽃'이란 단어는 쓰이는 환경에 따라 [꽃이[꼬치]], [꽃밭[골뽀]]과 같이 소리가 달라진다. 이처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적으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므로,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은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어야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② '비가[비개], '오니[오니]'는 모두 소리와 표기가 일치한다. ③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적을 때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나무]라고 소리 나는 표준어는 '나무'로 적고, [달리다]라고 소리 나는 표준어는 '달리다'로 적는다.

13 '줄'은 어떤 방법, 셈속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오답 해설 ①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학생이다 ③ '개'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열 개 ④ '만'은 보조사, '이라도'는 조사이므로 모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집에서만이라도 ⑤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다녀간 지

14 ⑤의 '만'은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만나야만'과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④ ㉠에 해당한다.

15 ㉠ '찌개'가 아니라 '찌개'가 맞는 표현이다. ㉡ '맞춤'은 '일정한 규격으로 물건을 만들도록 미리 주문하여 만들.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을 뜻한다. ㉢ 한글 맞춤법 제11항에 따르면,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하지만 [붙임 1]에 따라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므로 '시청홀'이 아니라 '시청률'이 바른 표기이다.

오답 해설 ㉣ '장'은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고, '쟁'은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멋쟁이'로 써야 한다. ㉤ '-던'은 과거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따라서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 '-든'으로 고쳐 '무엇이든'으로 써야 한다.

16 '밖'에는 '그것 말고는'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제41항을 적용하여 '너밖에'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만큼'은 의존 명사, '만'은 조사이므로, '먹을 만큼만'으로 써야 한다. ③ '바'는 의존 명사이므로, '뜻한 바'로 써야 한다. ④ '까지'와 '나'는 모두 조사이므로, '어디까지나'로 써야 한다. ⑤ '컬레'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한 컬레'로 써야 한다.

17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울'로 적어야 하므로, '선률'이 아니라 '선율'이 맞는 표기이다.

오답 해설 ① 'ㄹ'로 시작하는 어미는 뒷말이 된소리로 소리 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ㄹ게'로 적지 않고 '-ㄹ게'로 적는다. 따라서 '일어날

게요'로 써야 한다. ② '웬일'은 '어찌 된 일'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웬일'이라는 단어는 없다. ④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실업'이 맞는 표기이다. ⑤ '하지 않던'의 형태로 쓸 경우에는 '않-'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하던'으로 써야 한다. 이때의 '안'은 부사 '아니'의 준말이다.

18 ㉠의 '만'은 다른 것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의 '만'은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② ㉠은 '손꼽히다'에 보조 형용사 '만하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③ ㉠의 '만'은 다른 것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④ ㉠의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19 '나무[나무]'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오답 해설 ① '해돋이'는 [해도지]로 발음하지만 어법에 맞게 '해돋이'로 표기한 것이다. ③ '늪'은 [늪]으로 발음하지만 어법에 맞게 '늪'으로 표기한 것이다. ④ '산길'은 [산깁]로 발음하지만 어법에 맞게 '산길'로 표기한 것이다. ⑤ '이렇게까지'는 [이러케까지]로 발음하지만 어법에 맞게 '이렇게까지'로 표기한 것이다.

20 한글 맞춤법 제27항의 [붙임 2]에 따르면,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며칠'은 '몇 년 몇 월 몇 일'처럼 '몇'이 공통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몇 일'로 쓰는 일이 많다. 그러나 '몇 일'이라고 하면 [며딜](㉠)로 소리가 나야 한다. 이러한 점은 '몇 월'이 [며월]로 발음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발음은 [며칠](㉡)이라서 '몇일'로 적으면 표준어 [며칠]을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몇'과 '일'의 결합으로 보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며칠'(㉡)로 적는다.

21 <보기>는 띄어쓰기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사례를 보여 준다. 띄어쓰기는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고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음성을 통한 의사소통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띄어쓰기의 단위는 단어이다. ② '나 물 좀 다오.'는 물을 달라는 의미이고, '나물 좀 다오.'는 나물을 달라는 의미이다. ③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④ <보기>에서 '나'와 '물', '나물'의 의미를 구별하는 것은 띄어쓰기이므로 적절하다.

22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하면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ㄴ). 한편 '꽃'이란 단어는 쓰이는 환경에 따라 '꽃이[꼬치]', '꽃밭[꼴뻬]'과 같이 소리가 달라진다. 이처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적으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은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어야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ㄷ, ㄹ).

오답 해설 ㄴ. 한글은 표음 문자이다. 한글 맞춤법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데, 이 중 소리대로 적는 표음주의 원칙은 표음 문자인 한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ㄷ.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또 다른 원칙이 있는 것이다.

23 제35항 [붙임 2]에 따르면 '쇠었다'의 준말은 '썩었다'이다.

오답 해설 ① 제35항에 따르면 '썩었다'의 준말은 '썩었다'이다. ③ 제19항에 따르면 '높이'는 어간 '높-'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④ 제19항에 따르면 '더듬이'는 어간 '더듬-'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⑤ 제19항에 따르면 '그을음'은 어간 '그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24 '들어나다'는 표준어가 아니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

혀지다.'를 의미하는 '드러나다'의 과거형인 '드러났다'로 바뀌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쓰러질'은 '쓰러지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르'이 결합된 형태이다. ③ '돌아가기'는 '돌아가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된 형태이다. ④ '엎드려서'는 '엎드리다'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 '-어서'가 결합된 형태이다. ⑤ '사라지고'는 '사라지다'의 어간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된 형태이다.

25 '오르막'은 '오르다'의 어간 '오르-'에 그렇게 된 곳이라는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막'이 결합한 말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구름'과 '가려지다'도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말이다. 또한 '마중'은 '맞다'의 어간 '맞-'에 '-옹'이 결합한 말이지만 '맞옹'으로 적지 않고 '마중'으로 적는다. 이는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규정(한글 맞춤법 제19항 '다만')에 따른 것이다. 반면 '굳이[구지]', '넘어지다[너머지다]', '밭다[밭따]'는 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26 '이사간'은 '이사'와 '가다'의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사 간'으로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누구보다도'에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다'와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도'는 모두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② '커녕'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를 의미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⑤ '데'는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27 ㉠은 [산깁]로 발음되지만 '산길'로 표기한다. 이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또한 ㉠은 [혹]이라고 발음되지만 '혹'으로 표기하므로 이 역시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며, 형태를 하나로 고정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은 [너머]로 발음되지만 '넘어'로 표기한 것이고, ㉡은 [모탄]으로 발음되지만 '못한'으로 표기한 것이다. 즉, ㉠과 ㉡ 모두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② ㉠의 '넘다'는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다'의 의미인데 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여 '너머'로 적는다면,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을 의미하는 ㉡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③ ㉡의 발음은 [너머]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⑤ ㉡은 [혹]으로 발음되므로, 이를 표기에 적용한다면 '혹'이 아니라 '혹'으로 표기해야 한다.

28 '잡다'는 [잡따]로 발음되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이다.

오답 해설 ① [주대]로 발음되고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③ [들리다]로 발음되고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④ [달려가다]로 발음되고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⑤ [가로지르다]로 발음되고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29 '커녕'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째'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② '대로'는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③ '븐'의 기본형인 '보다'는 어떤 일을 경험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④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30 '주사위'는 [주사위]로 발음된다. 이는 소리대로 적은 것으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오답 해설 ① [빈깡]로 발음되며, 어법에 맞게 표기한 단어이다. ② [온짱]으로 발음되며, 어법에 맞게 표기한 단어이다. ③ [입싸귀]로 발음되며, 어법에 맞게 표기한 단어이다. ④ [마:다지]로 발음되며, 어법에 맞게 표기한 단어이다.

31 '그동안'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만큼의 시간적 길이, 또는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 동안'을 의미하는 명사이므로, '그동안'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③ '만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④ '것'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⑤ '굳게'는 '굳다'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형태로, 자립성이 있다. 따라서 띄어 써야 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64-069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①	06 ②	07 ②	08 ④
09 ④	10 ⑤	11 ③	12 ②
13 ④	14 ②	15 ②	16 ③
17 ②	18 ④	19 ②	20 ③
21 ⑤	22 ③	23 ④	24 ④
25 ③	26 ③	27 ③	28 ⑤
29 ③	30 ②		

01 '나무[나무]'는 '나무도[나무도]', '나무를[나무를]', '나무와[나무와]'와 같이 쓰이는 환경이 바뀌어도 소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웃[웃]'은 '웃이[웃이]', '웃도[웃도]'와 같이 쓰이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② '발[발]'은 '발이[발이]', '발만[발만]'과 같이 쓰이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③ '숨[숨]'은 '숨이[숨이]', '숨도[숨도]'와 같이 쓰이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④ '읽[읽]'은 '읽어[읽어]', '읽는데[읽는데]'와 같이 쓰이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02 '만큼'은 체언의 뒤에 붙어서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질만'의 '만'은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② '듯'은 '듯이'의 줄임말로 유사하거나 같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③ '회한하게도'의 '도'는 보통이 아니거나 이외의 경우에, 예외성이나 의외성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⑤ '커녕'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03 '대'는 차나 기계, 악기 따위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차 한 대'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언니', '대학생', '되었다'는 모두 자립성이 있는 단어이므로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써야 하고, '는', '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② '까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막론하고 모두 포함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모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③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⑤ '2시 30분'의 '시'와 '분'은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 것이다.

04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씩둑씩둑'이 맞는 표기이다.

오답 해설 ①~③ '듬뿍', '물씬', '똥똥'은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소쩍새'는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05 '들었을뿐이네'의 '뿐'은 <보기>의 '뿐' 「1」(다만 어퍼하거나 어찌 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에 해당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들었을 뿐이네'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이것뿐이다'의 '뿐'은 <보기>의 '뿐' 「2」(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에 해당하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③ '대궐만큼'의 '만큼'은 <보기>의 '만큼 「1」'(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에 해당하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들릴 만큼'의 '만큼'은 <보기>의 '만큼 「1」'(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에 해당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⑤ '않았다 뿐이지'의 '뿐'은 <보기>의 '뿐' 「2」(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에 해당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06 '일정한 시간보다 이르게'를 의미하는 부사는 '일찌기'가 아니라 '일찍이'로, 부사 '일찍'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역시 부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슬며시'는 '슬몃이'로 적지 않고 '슬며시'로 적는다. 이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만,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5항 [붙임]에 따른 것이다. ③, ④ '집집이'와 '곳곳이'는 각각 반복적인 명사 어근 '집'과 '곳'에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경우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사례이다. ⑤ '틀림없이 꼭'을 뜻하는 '반드시'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만,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5항 [붙임]에 따른 것이다.

07 '끄트머리'는 '끝'에 '-으머리'가 결합한 말이지만 '끝으머리'로 적지 않고 '끄트머리'로 적는다. 이는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같이'는 '같다'의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③ '그을음'은 '그을다'의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④ '익히'는 '익다'의 어간에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⑤ '웃음'은 '웃다'의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08 '몽둥그려'는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5항에 어긋나므로, 판단 결과는 '×'가 돼야 하며 '몽둥그려'로 정정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살짝'은 'ㄹ'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를 된소리로 적는 것이므로, 바른 표기이다. ② '절뚝거렸다'는 'ㄹ'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5항에 어긋나므로, 틀린 표기이다. 따라서 '절뚝거렸다'로 정정해야 한다. ③ '어찌'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를 된소리로 적는 것이므로, 바른 표기이다. ⑤ '색시'는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를 예사소리로 적는 것이므로, 바른 표기이다.

09 '일정한 규격으로 물건을 만들도록 미리 주문하여 만들,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을 뜻하는 말은 '맞춤'이다.

오답 해설 ①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어야 하나,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므로 '경쟁률'이 맞는 표기이다. ② '겉음'은 '겉다'의 어간 '겉-'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므로 그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③ 'ㄹ'로 시작하는 어미는 뒷말이 된소리로 소리 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일어날게요'로 적지 않고 '일어날게요'로 표기해야 한다. ⑤ '~지 않다'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던'으로 표기해야 한다.

10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하고, '뿐'은 다만 어퍼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또한 '이'는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누구보다도'로 붙여 써야 한다. ② '통'은 편지나 서류, 전화 따위를 세는 단위를 의미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한 통'으로 띄어 써야 한다. ③ '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챙겼는데'로 붙여 써야 한다. ④ '를'은 조사이므로 '대를'로 붙여 써야 한다.

11 <보기>의 [붙임 1]에 의하면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므로 '외형'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⑤ '체류'와 '급류'의 '류'는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것이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② '예의'는 한자어 '례'가 단어의 첫머리에 온 것이기 때문에 다음 법칙에 따라 '예'로 적는다. ④ '나열'의 '열'은 모음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열'이 아니라 '열'로 적은 것이다.

12 '니'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겠'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오답 해설 ① '이' 뒤에 '-어'가 와서 '기'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어야 하나, '사귀었어'는 '귀' 뒤에 '-어'가 온 것이므로 '사귀었어'가 될 수 없다. ③ '되다'의 어간에 '-어서'가 결합한 것이므로 '돼서'로 표기해야 한다. ④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야단법석'으로 표기해야 한다. ⑤ '쓰러졌다'는 소리대로 표기하는 단어이므로 '쓰러졌다'로 표기해야 한다.

13 '돌아가다'는 [도라가다]로 발음되지만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단어이다.

오답 해설 ① [노을]로 발음되며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② [매우]로 발음되며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③ [무심코]로 발음되며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⑤ [사라지다]로 발음되며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14 '웬지'는 '왜 그런지 모르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를 뜻하는 부사로, ②의 문맥으로 보아 '웬지 좋은 예감이 들었다.'의 '웬지'가 올바른 표기이다. '웬지'는 잘못된 표기이다.

오답 해설 ① '웬'은 '왜 그런지 모르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를 뜻하는 '웬지'의 일부로 '왜인지(왜 + 이- + -지)'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웬'만 단독으로 쓸 수 없으며 '웬지'의 형태로만 쓰인다.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을 뜻하는 관형사로 명사 앞에 쓰여 명사를 꾸며 주기도 하고, '웬걸, 웬만큼, 웬만하다, 웬일'과 같은 합성어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웬 선물'을 '웬 선물'으로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③ '에'는 체언 뒤에 붙어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익'은 소유되거나 소속됨을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이다. 따라서 '냉면에'를 '냉면의'로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④ '안'은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 '안 먹다'와 같이 용언 앞에 쓰이며 '아니'로 풀어 쓸 수 있다. '않'은 '않다'의 어간으로 '-지 않다'의 형태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바쁘지 않아서'를 '바쁘지 않아서'로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⑤ '되-'는 '되다'의 어간으로 뒤에 '-어, -고, -면, -는데'와 같은 어미가 붙어 '되어, 되고, 되면, 되는데'와 같이 쓸 수 있다. '돼'는 '되어'가 축약된 것으로, '되어라', '되었다'를 '돼라', '됐다'와 같이 줄여 쓸 수 있으며, '되'가 '-어'와 결합하지 않으면 '돼'로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되기 위해'를 '되기 위해'로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Plus <참고>

'되'와 '돼' 구분 방법
'되/돼'는 '하/해'를 넣어 쉽게 구분할 수 있음.
예 • 내일 전화해도 되요(하요)? (×)
• 내일 전화해도 돼요(해요)? (○)
위와 같이 '되요' 대신 '하요'를 넣었을 때 어색하다면 '해요', 즉 '돼요'로 적으면 됨.

15 '높이'는 용언의 어간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경우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먹이'는 용언의 어간 '먹-'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③ '익히'는 용언의 어간 '익-'에 접미사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경우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④ '고름'은 안에 병균이 들어 염증을 일으켰을 때에 피부나 조직이 썩어 생긴 물질이나, 파괴된 백혈구, 세균 따위가 들어 있는 걸쭉한 액체는 용언의 어간 '끓-'에 접미사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뀌고 어간의 뜻과 멀어져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경우로, ㉠의 예에 해당한다. ⑤ '너비'는 평면이나 넓은 물체의 가로로 건너지른 거리는 용언의 어간 '넓-'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로 바뀌고 어간의 뜻과 멀어져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경우로, ㉠의 예에 해당한다.

16 '웃을'은 '웃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르'이 결합한 것으로, 뒤에 오는 의존 명사인 ㉡를 수식한다.

오답 해설 ① ㉠의 '뽀, 지, 대로, 만큼'을 모두 앞말과 띄어 쓴 것으로 볼 때, ㉠의 품사는 의존 명사이다. ② ㉠의 '뽀'와 '대로, 만큼'은 조사, '-지'는 어미로 모두 앞말에 붙여 쓴다. 즉, ㉠에는 의존 명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는 상반되는 사실을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⑤ ㉢와 ㉣는 모두 조사이다.

17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씩둑씩둑'이 맞는 표기이다.

오답 해설 ① '엉뚱하다'는 제5항-2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③ '어깨'는 제5항-1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④, ⑤ '눈곱'은 '눈'과 '곱'이, '발바닥'은 '발'과 '바닥'이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한 형태로 이루어진 한 단어 안에서 나는 된소리와 관련이 없다.

Plus <참고> 한글 맞춤법 제27항

한글 맞춤법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 합성어: 눈곱[눈곱], 실증[실증]
• 파생어: 엇듣다[엇:듣따], 헛되다[헛되따]

18 '달맞이'의 '-맞이'는 어떠한 날이나 일, 사람, 사물 따위를 맞는다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맞다'의 어간 '맞-'에 '-이'가 붙은 형태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불긋불긋'의 '불긋'은 '붉다'의 어간 '붉-'에 '-웃'이 결합한 말이지만 '붉웃붉웃'으로 적지 않고 '불긋불긋'으로 적는다. 이는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19항 [붙임](㉠)에 따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무덤'은 '묻다'의 어간에 접미사 '-임'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으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별이'는 '별다'의 어간에 '-이'가 붙어 명사로 된 말로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② '비로소'는 '비롯하다'의 옛말 '비롯다'에 접미사 '-오'가 결합한 말이지만 '비롯오'로 적지 않고 '비로소'로 적는데, 이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졸음'은 '졸다'의 어간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로 된 말로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③ '쇠붙이'의 '-붙이'는 어떤 물건에 딸린 같은 종류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붙다'의 어간에 '-이'가 붙은 형태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또한 '실없이'는 '실없다'의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즉, '쇠붙이'와 '실없이' 모두 ㉠에 해당한다. ⑤ 귀머거리의 '머거리'는 '먹다'의 어간에 접미사 '-어리'가 결합한 말이지만 '귀머거리'로 적지 않고 '귀머거리'로 적는데, 이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살림살이'의 '살이'는 '어떤 일에 종사하거나 어디에 기거하여 사는 생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살다'의 어간에 '-이'가 붙은 형태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19 '나무[나무]', '하늘[하늘]'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며 소리대로 표기한 단어들이다.

오답 해설 ① '늪어'는 발음과 표기가 다른 단어로 해당한다. ③ '국어'는 한자어로, [구거]로 소리 나지만 각 글자의 소리를 밝혀 '국어'로 적는다. ④, ⑤ '꽃'은 '꽃이다[꼬치다]', '꽃도[꼬도]', '꽃만[꼬만]'과 같이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므로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한다.

20 <보기>에 따르면, '지'가 어미 '-(으)니지, -(으)리지'의 일부일 때에는 띄어 쓰지 않는다. '할 지'의 '지'는 어미 '-(으)리지'의 일부이므로, '할지'라고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한번'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므로 '한번'이라고 써야 한다. ② '만난 지'의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④ '한 번'의 '번'은 일의 횟수를 나타내므로 '한 번'이라고 띄어 써야 한다. ⑤ '부지런한지'의 '지'는 어미 '-(으)니지'의 일부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21 '뵈다'의 어간에 '-어서'가 결합한 '뵈어서'를 '뵈서'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뇌라'는 '뇌'가 '뇌'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규정(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1])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②, ④ '짓곳이'와 '좋이'는 어간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규정(한글 맞춤법 제19항)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③ '됐다'는 '니' 뒤에 '-었-'이 어울려 '냈-'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규정(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22 한글 맞춤법 제11항에 따르면,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하지만 [붙임 1]에 따르면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므로 '시청율'이 아니라 '시청률'이 바른 표기이다.

오답 해설 ①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② '얼음'은 물이 얼어서 굳어진 물질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어름'은 잘못된 표기이다. ④ 어간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실없이'가 맞는 표기이다. 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꺾임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뽕뽕'으로 표기해야 한다.

23 '이'는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② '요'는 청자에게 존칭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③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⑤ '에서'는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임을 나타내는 조사, '처럼'은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따라서 둘 다 앞말에 붙여 쓴다.

24 ㉠은 '정신(명사)을(조사)▽가늠함(동사)▽수(의존 명사)▽없게(형용사)▽된(동사)▽거(의존 명사)였다(서술격 조사)'와 같이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은 '칠복이(고유 명사)▽자신(대명사)이(조사)▽참(부사)▽알(동사)▽수(의존 명사)▽없는(형용사)▽일(명사)▽과 같이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② ㉡은 '때때로(부사)▽그(대명사)의(조사)▽눈(명사)▽에(조사)▽방울재(고유 명사)와(조사)▽방울재(고유 명사)의(조사)▽옛사람들(명사)이(조사)▽너무(부사)도(조사)▽선명하게(형용사)▽보이면서(동사),와 같이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③ ㉢은 '방울재(고유 명사)▽사람들(명사)과(조사)▽한데(명사)▽어울려(동사)▽살고(동사)▽있는(보조 형용사)▽환각(명사)과 같이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⑤ ㉤은 '낮익은(형용사)▽하늘(명사),▽반갑게(형용사)▽맞아(동사)▽주는(보조 동사)▽마음(명사)▽사람들(명사)만(조사)이(조사)▽눈(명사)에(조사)▽가득(부사)▽들어오고(동사)와 같이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25 '읽는데'의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관형어 '읽는'의 수식을 받으므로, '읽는 데'와 같이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무명만큼'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② '가는데'의 '는데'는 뒤 절에서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관되는 상황인 '학교에 가는 상황'을 미리 말하기 위해 사용한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나는 데'의 '데'는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⑤ '들릴 만큼'의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26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를 뜻하는 부사이므로, ③은 바른 표기이다. '있다가'는 '있다'의 어간 '있-'에 연결 어미 '-다가'가 붙은 말로, '10분만 있다가 출발할게.'와 같이 쓰인다.

오답 해설 ①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를 뜻하는 용언은 '부치다'이므로, '아버지는 집으로 편지를 부치셨다.'로 고쳐야 한다. ②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는 '그러므로'이므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걸잡다'는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를 뜻하는 용언으로, '걸잡아도 일주일도 걸린다.'와 같이 쓰인다. '걷잡다'는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마음을 진정하거나 억제하다.'를 뜻하므로, '불길히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다.'로 고쳐야 한다. ⑤ '조리다'는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 '식물의 열매나 뿌리, 줄기 따위를 풀이나 설탕물 따위에 넣고 계속 끓여서 단맛이 배어들게 하다.'를 뜻하는 용언으로, '생선을 조리다.'와 같이 쓰인다. '졸이다'는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을 증발시켜 분량을 적어지게 하다.',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를 뜻하므로, '오빠는 시험 결과를 앞두고 마음을 졸였다.'로 고쳐야 한다.

27 '마리'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소 한 마리'와 같이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②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④ '십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은 '만' 단위로 띄어 쓴 사례이다. ⑤ '충무공'은 나라에 무공을 세워 죽은 후 충무(忠武)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며, '장군'은 관직명이므로, 각각 띄어 쓴다. 또한 '씨'는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28 '같이'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를 뜻하는 부사이다. '같이'는 '같다'의 어간에 '-이'가 결합한 말로, '-이'는 조사가 아닌 접미사이다.

오답 해설 ① '어머나'는 '어머'를 강조하여 내는 감탄사이므로, 다른 단어와 띄어 쓴다. ② '할머니께서'의 '께서'는 그 대상을 높임과 동시에 그 대상이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③ '오신다'의 '고'는 앞말이 간접 인용 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④ '하니'의 '-니'는 어떤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사실을 이어서 설명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29 '할인율(割引率)'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은 '열'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11항 '다만'에 따라 '할인률'이 아닌 '할인율'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선량(善良)'은 한자음 '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로 적지만,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1]에 따라 '선양'으로 적지 않고 '선량'으로 적는다. ② '양심(良心)'은 한자음 '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11항에 따라 '량심'으로 적지 않고 '양심'으로 적는다. ④ '치열(齒列)'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은 '열'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11항 '다만'에 따라 '치렬'로 적지 않고 '치열'로 적는다. ⑤ '사례(謝禮)'는 한자음 '례'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례로' 적지만,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1]에 따라 '사예'로 적지 않고 '사례'로 적는다.

30 '달맞이'는 '음력 정월 대보름날 또는 팔월 보름날 저녁에 산이나 들에 나가 달이 뜨기를 기다려 맞이하는 일'로, '맞다'의 어간의 뜻과 멀어졌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높이'는 '높다'의 어간에 '-이'가 붙어 명사 또는 부사로 된 단어로,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다. ③ '너머'는 '넘다'의 어간에 '-어'가 붙어 명사로 된 단어로, 한글 맞춤법 제19항 [붙임]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④ '노름'은 '놀다'의 어간에 '-음'이 결합한 말이지만 '놀음'으로 적지 않고 '노름'으로 적는다. 이는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19항 '다만'에 따른 것이다. ⑤ '마개'는 '막다'의 어간에 접미사 '-애'가 결합하여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지만, '막애'로 적지 않고 '마개'로 적는다. 이는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19항 [붙임]에 따른 것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70-071쪽

- 01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뜻으로, '너무, 마중, 하늘, 쓰러지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각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뜻으로, '꽃이[꼬치], 꽃도[꽃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02 '앞'은 '앞에[아페], 앞길[압길], 앞날[압날]'과 같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다. 그런데 이처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적으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은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어야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03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를 '단어'로 정한 것은 단어가 뜻을 가지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다. 띄어쓰기를 하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04 (1) 실패울 (2) 회전울 05 '보아, 주어, 꾸어'와 같이 모음 'ㅛ, ㅠ'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봐, 줘, 꾸' 또는 '봤다, 줬다, 꾸었다'와 같이 'ㅏ/ㅑ, ㅓ/ㅕ'으로 될 때에는 준 대로 적는다. 06 '다섯번만이다'의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다섯 번 만이다'로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받아만'의 '만'은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받아야만'으로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 01 한글 맞춤법 제1장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을 밝힌 것으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가 기본 원칙이라면, '어법에 맞도록 함'은 또 다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적을 때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뜻이고,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
- 02 '앞'은 '앞에'일 때는 [앞]으로, '앞길'일 때는 [압]으로, '앞날'일 때는 [암]으로 소리 난다. 이처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적으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은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어야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 03 한글 맞춤법에서 단어를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다.
- 04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한자음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11항 '다만'에 따라 '실패울'과 '회전울'로

표기해야 한다.

- 05 <보기>는 '보다', '주다', '꾸다'와 같이 'ㅛ, ㅠ'로 끝난 어간이 어미 '-아/-어, -았-/-었-'과 어울려 'ㅏ/ㅑ, ㅓ/ㅕ'으로 줄어들 때는 준 대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06 의존 명사는 그 앞에 반드시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의존적인 말이지만, 자립 명사와 같은 명사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취급되며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한편 조사는 단어로 분류되지만 자립성이 없어 앞말에 붙여 쓴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72-07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04 단어는 뜻을 가지면서 홀로 쓸 수 있는 말의 최소 단위이다.
- 08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 11 '뵤-'에 '-어요'가 결합한 '뵤어요'는 '뵤요'로 표기할 수 있다.
- 14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 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하지만, 모음 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어야 한다.
- 20 한글 맞춤법 제27항 [붙임 2]의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에 따라, '몇 일'이 아니라 '며칠'로 표기해야 한다.

세상과 지혜롭게 소통하는 힘

01. 매체를 보는 다양한 시선

기술 실전 문제

본문 078-081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⑤ 05 ③ 06 ① 07 ① 08 ⑤
09 ④ 10 ① 11 ① 12 ③ 13 ④

01 이 글은 인터넷 신문 기사이다. 주로 음성과 영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방송 매체의 특성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인터넷 신문 기사의 특성으로 적절하다.

02 글쓰이는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예술의 본질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만든 작품을 둘러싼 논쟁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②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만든 작품이 미술전에서 1위를 수상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활용 분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발전 과정이나 앞으로의 전망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03 기사문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글쓴이의 평가나 견해를 덧붙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기사의 필수 요소는 아니므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점검하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신뢰성을 점검하는 질문에 해당한다. ② 공정성을 점검하는 질문에 해당한다. ③ 타당성, 적절성을 점검하는 질문에 해당한다. ⑤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질문에 해당한다.

04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만든 작품이 미술전에서 1위를 수상한 사례를 제시하며,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들을 예술의 영역으로 포함할 것인지,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이슨 앨런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나, 그의 작품에 대한 옹호와 비판의 입장을 모두 제시하여 공정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제이슨 앨런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그림을 예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을 제시하고 있다. ② 신문 기사는 객관적,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사진 기술에 대한 보들레르의 말을 인용하여 기계가 개입한 예술에 관해 비난하는 입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④ 제이슨 앨런의 작품 사진,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동영상 화면을 제시하고 있다.

05 앨런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원하는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정확한 문구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를 인간 고유의 영역, 즉 인간의 창의성이 개입하는 부분이라고 보았다.

오답 해설 ① 앨런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이 예술가가 직접 그린 작품과 비교하여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해서 미술전에 인공지능 그림을 냈다고 밝혔다. ② 글쓰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이미지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역할과 예술의 본질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④ 앨런 쪽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앨런의 작품에 대해 예술의 죽음이

라고 평가하며, 그 작품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누리꾼들도 있었다. ⑤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이 미술전에서 1위를 수상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례가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예술가의 작품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6 이 글은 복합양식성을 지닌 인터넷 신문 기사로, 제이슨 앨런의 작품 사진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전달하고 있다(ㄱ).

오답 해설 ㄴ.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동영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아니다. 이 글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작품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ㄷ. 앨런이 만든 작품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의 작품 활동 과정이 담긴 동영상은 제시하지 않았다.

07 앨런을 옹호하는 입장, 즉 인공지능 그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원하는 그림을 얻기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정확한 문구를 입력해야 하는 것을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오답 해설 ② 앨런의 작품이 미술전에서 1위를 수상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인공지능 그림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③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이미지 도구들이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은 찬성 측의 견해가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설명에 해당한다. ④ 누리소통망 이용자는 앨런의 인공지능 그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게시했다. ⑤ 품질 좋은 이미지를 얻으려면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하듯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하는 작품을 얻으려면 정확한 문구를 입력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림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8 (가)는 배려를 받는 사람이 다시 배려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선순환을 보여 주면서 '존중과 배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익 광고로, 성별, 문화, 나이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배려를 받는 사람이 다시 배려를 하는 구성을 통해 도움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② '돈쫄 낸다'는 것은 모범이 될 만한 가게나 기업의 제품을 고객이 많이 팔아 주는 것을 재미있게 이르는 새말이다. ③ 남성과 여성,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외국인 등을 등장시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표현하며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④ 사회 구성원에게 존중과 배려의 선순환을 보여 주면서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공익 광고이다.

09 '다르지만'과 '이어 가고'를 반복하여 서로의 상황과 입장이 다를지라도 존중과 배려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각각의 상황과 입장의 차이를 보여 주기 위함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② '~은/는 ~지만 ~을/를 이어 가고(는)'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며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존중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가)를 통해 그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10 ㉠은 (가)의 영상 전개 방식이 존중과 배려가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해를 도와준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의 "존중과 배려"라는 핵심어 안에 다양한 소재를 옥여넣다 보니 핵심 메시지가 열려졌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은 (가)가 시선을 끌거나 귀를 사로잡는 요소가 없음을, ㉡은 (가)가 핵심 메시지가 열려지고 광고 자체의 강렬한 인상도 약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④ '겉핥기식으로 주제를 다룬' 것 같다는 평가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은 (가)가 주제를 잔잔한 울림을 주고 영상 전개 방식이 메시지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평가한 후, 시선을 끌거나 귀를 사로잡는 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 (가)가 핵심어가 선순환되는 과정이 잘 드러나나 핵심 메시지가 열려지고 강렬한 인상이 약해졌음을, ㉣은 (가)가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출연시켰으나 주

제를 곁핍기식으로 다뤘고 소수자에 대해 시혜적인 태도가 드러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모두 긍정적 측면을 제시한 후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 것이다.

11 학생 1은 요즘 갈등이 늘어나는 원인이 존중과 배려의 부족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가)에서 존중과 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오답 해설 ② 시의성이란 '그 당시의 사정이나 사회적 요구에 들어맞는 성질'을 뜻한다. 학생 1은 요즘 존중과 배려의 부족이 다양한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제시하며 광고의 내용이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광고에서 믿을 만한 정보를 제시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학생 2는 외국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은 존중과 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즉, '가진 자들이 그러지 못한 자들을 봐준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광고의 관점이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④ 학생 2는 (가)가 외국인을 등장시켜 존중과 배려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광고 내용이 외국인의 공감을 받기 어려움을 지적하지 않았다. ⑤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학생 1뿐이다.

12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주관적으로 평가한 판단을 포함하여 비평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② 매체 자료를 비평할 때에는 매체 자료에 담긴 내용의 타당성 및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분석해야 한다. ④ 매체 자료에 드러난 제작자의 의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비평 자료를 만든다. ⑤ 매체 비평 과정에서 다른 비평 자료를 다양하게 찾아보고 자신이 비평한 내용과 비교해 봄으로써, 시야를 넓히고 아울러 비평 자료 작성 방법을 익힐 수 있다.

13 학생 3은 외국인이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만 연출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했으므로, 등장인물의 역할이 주제를 전달하는 데 아쉽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학생 1은 '돈쫄'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② 학생 1은 '돈쫄'이라는 표현에 제작자의 의도가 잘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③ 학생 2는 얼마 전에 할머니께 휴대 전화로 이모티콘 보내는 방법을 알려 드린 경험을 언급하며 광고에 공감하고 있다. ⑤ 학생 2는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며 광고에서 몰입감을 느꼈고, 학생 3은 외국인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그려지는 것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즉, 두 사람 모두 광고의 형식적 특징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82-085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③	05 ②	06 ③	07 ④	08 ④	09 ②	10 ①	11 ⑤	12 ③	13 ④

01 “마치 판 세상의 악마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누리 소통망 이용자의 말이 아니라 앨런의 말이다.

오답 해설 ① 앨런은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이 예술가가 직접 그린 작품과 비교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하여 미술전에 인공 지능 그림을 출품했다. ③ 기계가 개입한 예술에 관한 논쟁을 설명하면서 카메라와 사진 기술, 디지털 편집 도구와 컴퓨터 기반 디자인 프로그램들을 예로 들고 있다. ④ 앨런이 미술전에 인공 지능 그림을 출품한 이유이다. ⑤ 앨런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원하는 그림을 얻기 위해 인공 지능 프로그램에 정확한 문구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02 이 글은 앨런이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과 그것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기술 발전의 시대에 예술의 본질에 관한 고민과, 인공 지능 시대 인간의 역할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제시하는 인터넷 신문 기사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문 기사에는 글쓴이의 주장이 제시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⑤ 인터넷 신문 기사는 댓글, 추천 등의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글쓴이는 독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인터넷 신문 기사는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관련 내용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 ④ 해시태그는 게시물에 일종의 꼬리표를 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관련 정보를 묶는 정도의 기능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내용 요약, 검색 등 다른 용도로도 쓰인다.

03 부제는 표제를 보완해 주는 간결한 문구로, 표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는 것은 부제가 아닌 본문이다.

오답 해설 ① 표제는 기사의 제목으로, 기사의 전체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② 표제에 앨런의 말을 인용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③ 부제는 표제를 보완해 주며, 표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한다. ⑤ 부제는 압축적으로 표현된 표제를 보완하면서 표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04 ㉠의 입장은 인공 지능으로 만든 작품에도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작동한다는 것이지,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인공 지능으로 만든 작품을 예술이라고 볼 것이다. ②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을 예술에 대한 과거의 기준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④ 인공 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정확한 문구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인간의 창의성이 개입하는 것으로 ㉠은 이를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⑤ ㉠은 인공 지능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것은 디지털 이미징 조작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05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이 미술전에서 1위를 수상한 사례를 소개하며 기술이 발전한 시대적 상황에서 예술의 본질과 인간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므로,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지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인공 지능으로 만든 앨런의 작품 사진과 인공 지능으로 만든 동영상을 제시하고 있다. ③ 앨런이 인공 지능으로 만든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의 제목과, 그 작품이 미국 콜로라도주 박람회 미술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사진 기술에 대한 논란이나 디지털 편집 도구 등에 대한 논란은 인공 지능 작품에 대한 비난과 유사한 것으로, 글쓴이는 이를 통해 독자가 해당 화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⑤ 인공 지능으로 만든 그림을 둘러싼 논쟁의 양쪽 입장을 모두 제시한 것을 통해 글쓴이의 견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6 〈보기〉에서 앨런은 자신의 작품에 80시간의 노동력이 투입된 점을 들어 인간의 작업에만 저작권을 인가할 수 있다는 저작권청의 입장에 반박한 것으로, 앨런이 노동력이 투입된 모든 작업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미 저작권청은 인간의 작업에만 저작권을 인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앨런의 작품에 저작권을 불허했다. ② 미 저작권청은 인공 지능으로 만든 앨런의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저작권을 불허한 것이다. ④ 앨런은 자신의 작품이 인공 지능으로 만들어졌으나, 자신의 노동력이 총 80시간 소요된 점을 들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⑤ 앨런은 인공 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작품에도 인간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다는 점, 즉 인간 고유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을 요구했다.

07 (가)는 공익 광고, (나)는 인터넷 신문 기사로, 모두 글쓴이의 주관적 견해는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신문 기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답 해설 ① (가)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광고로, 사회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인식 공유,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나)는 인터넷 신문 기사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② (나)가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춘 신문 기사인 반면, (가)는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공익 광고이다. ③ (가)는 존중과 배려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담은 상황을 나열하고 있다면, (나)는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는 존중과 배려라는 문제를, (나)는 인공 지능과의 공존을 위한 예술의 본질과 인간의 역할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08 배려를 받는 사람이 다시 배려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선순환을 보여 주면서 '존중과 배려'의 가치와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세대 간의 소통은 존중과 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된 것으로, 세대 차이 극복을 전달하려는 것은 아니다. ② 성별, 문화, 나이 등에서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존중과 배려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이다. 문화의 다양성 존중을 전달하려는 것은 아니다. ③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구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도움을 받기 위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배려의 대상이자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⑤ (가)에 나타난 장면과 관련이 없다.

09 비평 자료를 제작할 때 전문가들의 비평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보는 것은 좋으나, 전문가의 견해를 많이 인용해야 비평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비평 자료는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비평 대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밝혀야 한다. ③ 비평 자료에는 객관적인 내용과 주관적인 평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④ 비평은 대상에 대한 평가이자 견해이다. 비평 자료에는 자신의 평가 및 견해와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⑤ 책이나 인터넷의 다른 비평 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비평 자료 제작에 도움이 된다.

10 <보기>에서 존중과 배려라는 핵심어 안에 다양한 소재를 포함시키다 보니 메시지도 얽어지고 광고가 강렬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

오답 해설 ② 일상생활 속의 장면을 통해 특정한 인물을 중심에 두지 않고 누구나 배려를 받기도 하고 배려를 하기도 한다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③ 핵심어 안에 너무 다양한 메시지를 포함시키다 보니 광고 자체의 강렬한 인상이 약해졌다고 했다. ④ 배려를 받는 사람이 다시 배려를 하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가 존중과 배려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⑤ 배려를 받는 사람이 다음 장면에서는 배려를 하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광고의 구성과 그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11 앨런을 옹호하는 쪽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으나 그들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니다. 또한 앨런의 작품이 미술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둘러싼 논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공 지능 작품이 예술로 인정된 공식적인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누리 소통망에는 앨런의 인공 지능 작품에 대해 '예술의 죽음', '꿈 짝하다', '인공 지능 그림을 예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와 같은 반응이 나타났다. ② 앨런의 작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③ 보틀레르는 사진 기술을 '예술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④ 글쓴이는 인공 지능과 같은 기술이 등장하는 시대에 인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2 인공 지능 그림이 미술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둘러싼 논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미술전에서 1위를 수상한 인공 지능 그림, 사회적 논란 불러일으켜'라는 제목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신문 기사의 제목인 표제에는 기사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무엇이 예술에 대한 논란을 확대시켰는지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로 적절하지 않다. ② 앨런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에 인간 고유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본다. 하지만 (나)에서는 이와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므로 표제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문자를 이미지로 바꿔 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이 미술전에서 1위를 수상한 일로 논란이 불거졌다는 내용을 포괄해야 하므로 표제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글쓴이는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예술의 본질과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 전체를 포괄하는 제목이라고는 볼 수 없다.

13 예술의 개념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연 것은 ㉠과 ㉡ 모두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② 처음 카메라가 발명됐을 당시 화가들은 이를 예술성의 타락으로 여겼다. ③ 앨런의 작품은 예술의 본질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인공 지능 시대의 인간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⑤ ㉠과 ㉡은 시대는 다르지만 예술의 본질에 관한 논쟁을 야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담·서술형 문제

본문 086쪽

01 글쓴이는 제이슨 앨런의 작품이 미술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소개하며 앨런을 옹호하는 입장과 비난하는 입장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관점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을 다룬 것은 기술 발전의 시대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02** '존중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01 앨런의 작품이 미술전에서 1위를 차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것을 둘러싼 논쟁의 양쪽 입장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을 다룬 것은 시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02 <보기>는 서로의 상황과 입장이 다를지라도 존중과 배려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OX로 마무리

본문 08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2 매체에 담긴 내용은 제작자나 편집자 등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한 의도나 관점을 가질 수 있다.

06 공정성이란 내용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08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02. 보고하는 글 함께 쓰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90-093쪽

01 ④ 02 ③ 03 ① 04 ⑤ 05 ① 06 ③ 07 ⑤ 08 ④
09 ⑤ 10 ② 11 ④ 12 ⑤

01 (가)는 글쓰기의 단계 중 계획하기 단계이다.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쓰기 맥락을 분석하는 활동으로, 이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02 '작문 관습'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에서 특정한 방식의 의사소통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고유한 것으로, 작문의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글쓴이나 독자의 태도를 해석하는 일정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오답 해설 ①, ⑤ '작문 관습'은 글의 주제나 내용, 사용하는 어휘, 내용의 조직 방법이나 표현 방법 등과 관련이 있다. ② '작문 관습'은 글을 쓸 때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체나 표현 방식, 규칙 등을 말한다. ④ '작문 관습'은 언어 공동체에서 특정한 방식의 의사소통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03 현민은 작문 관습을 고려했을 때 조사 보고서의 목차를 '조사 동기 및 목적, 조사 계획, 조사 결과 및 소감, 참고 자료'로 구성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정후는 보고서의 성격에 따라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작문 관습에 비추어 보고서라는 글의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③ 예상 독자를 고려한 것은 선주이다. ④ 보고서라는 글의 종류에 맞는 글의 목적과 표현 방법을 확인하고 있지만,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전제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⑤ 글의 내용이 아닌 성격을 고려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목적과 표현 방법을 확인하고 있다.

04 (나)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로,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때 선정된 자료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가공한 자료는 실제와 다르게 왜곡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② 수집하고 선정된 자료는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자료는 글에 활용할 수 없다. ③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 자료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④ 글쓰기의 전 과정에 걸쳐 예상 독자의 지식 수준과 흥미, 요구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05 (가)에서 학생들은 공연 관련 직업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서를 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답 해설 ②~⑤ 공연 관련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서의 세부 내용에 해당하지만,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주제로는 보기 어렵다.

06 [자료 3]은 공연 동아리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활동이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설문 조사로, 공연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의 종류를 알려 주려는 목적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자료 1]은 공연 시장의 성장세를 다룬 신문 기사이다. 공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공연 관련 직업의 전망을 유추해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자료 2]는 공연 관련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 관련 학과, 필요한 지식 영역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적절하다. ④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견해를 글

에 활용하는 것은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⑤ [자료 4]는 공연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를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7 <보기>는 공연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연관시켜 공연 관련 직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료 1]과 <보기> 모두 공연 관람권 판매액을 약 5,590억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보기>에서 판매액을 비유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다. ② 공연 관람권 판매액이 증가한 원인은 [자료 1]에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보기>도 마찬가지이다. ③ <보기>에는 [자료 1]의 출처(《중앙일보》(2023. 1. 31.))가 제시되지 않았다. ④ 공연 관람권 판매액이 늘었다는 것은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공연 관련 직업의 일자리가 많아질 것을 유추할 수 있으나, 공연 관련 직업의 세분화라는 내용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08 '3-㉠ 소감'에서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니 혼자 글을 쓸 때보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2. 조사 계획'에서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및 방법,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② '1. 조사 동기 및 목적'에서 공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공연 관련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4. 참고 자료'에 나타나 있다. ⑤ '3. 조사 결과 및 소감'에 공연 관련 직업 전망, 공연 관련 직업 종류, 공연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태도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 공연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에 관한 시각 자료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09 <보기>는 설문 조사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3-㉠에서는 이 내용을 그래프로 제시하여 독자가 설문 조사 결과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오답 해설 ① 3-㉠는 <보기>의 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직업 체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주관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공연 관련 직업 체험이 진로 탐색에서 가장 도움이 된다고 했으나, 그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학생들의 인터뷰는 제시되지 않는다. ④ 진로 탐색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자료에서 도움이 되는 정도가 낮다고 해서 해당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고서에서는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어야 한다.

10 글쓰기의 절차는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초고 쓰기 및 고쳐 쓰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초고를 작성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선정된 자료를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적절한 위치에 배열한다.

오답 해설 ① 내용 생성하기 단계의 활동이다. ③ 계획하기 단계의 활동이다. ④ 고쳐쓰기 단계의 활동이다. ⑤ 초고 쓰기 단계의 활동이다.

11 3-㉠는 긴 문장을 자르고, 접속어를 넣어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고쳐 쓰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지나치게 긴 문장을 자르고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한 것이지 내용 제시 순서를 바꾼 것은 아니다. ② 삭제한 내용은 없다. ③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면 독자가 의미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길이의 문장으로 자른 것이지, 맞춤법을 점검하고 있지 않다. ⑤ 전문어나 한자어를 수정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공연 관련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서로, 공연 관람 예절을 다룬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1의 '고등학생의 진로 준비 수준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1 ① 02 ④ 03 ⑤ 04 ③ 05 ④ 06 ③ 07 ① 08 ③
09 ① 10 ③ 11 ①

01 (가)에서는 보고서의 주제, 목차, 표현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가)의 현민은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보고서의 목차를 제안하고 있다. ③ 공연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나)에서는 신문 기사, 누리집, 설문 조사,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④ (나)에 제시된 자료들은 그 출처가 명시되어 있다. ⑤ (다)에서는 앞서 선정한 자료를 주제와 목적에 맞게 알맞은 위치에 배열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 개요이다.

02 (가)에서 예선은 공동 보고서를 쓰면 혼자 쓰는 것보다 풍성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답 해설 ① 어려운 주제를 다룰 때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혼자일 때보다 도움이 되는 점이 있겠지만, 공동 보고서를 쓴다고 해서 어려운 주제를 쉽게 다룰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혼자 보고서를 쓸 때나 공동 보고서를 쓸 때 모두 예상 독자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③ 작문 관습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했는지를 점검하거나 수정하는 일에 여럿이 의견을 모을 수는 있으나, 공동 보고서를 쓴다고 해서 작문 관습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보고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다수의 의견을 통해 주장의 근거를 강화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가)에서 현민이 보고서에 참고 자료를 목차에 넣자고 하는 것은 사회적 쓰기 윤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작문 관습을 고려할 때 보고서의 성격에 맞는 표현 방법이지만, 쓰기 윤리와는 거리가 멀다. ② (가)에서 현민은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목차를 제안하고 있지만, 독자의 흥미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 ③ (다)에서 작문 관습에 따라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의 포함을 제안했지만, 쓰기 윤리와는 거리가 멀다. ④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목차를 구성하는 것은 쓰기 윤리와 거리가 멀다.

04 예선은 공동 보고서의 주제를, 선주는 보고서의 목적과 예상 독자, 자료 활용 방안을, 현민은 작문 관습을 고려한 보고서의 목차를, 정후는 보고서의 표현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공동 보고서의 제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선주의 말에 따르면, 보고서의 목적은 공연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예선은 '공연 관련 직업 정보 조사'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④ 현민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선주, 현민, 정후는 모두 글의 종류를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05 보고서의 각 부분에서 어떤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자료를 배열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의 활동이다.

오답 해설 ①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생성할 때에는 수집한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②, ⑤ 배경지식, 자유 연상, 생각 그물 만들기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에 담을 내용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 후에 내용과 관련한 여러 자료를 찾아본다. ③ 자료를 수집할 때는 글의 주제와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06 전문가 면담 자료는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고서의 소감 부분이 아니라 공연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서의 본문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현민은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보고서의 목차를 제안하고 있다. ②

정후는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명료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④ 작문 관습을 고려할 때 보고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나)의 자료들은 모두 객관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는 (가)에서 현민이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제안한 목차대로 구성되어 있다.

07 조사 보고서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④ 보고서는 조사, 연구, 실험, 관찰의 내용을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글이다. ③ 보고서는 자료 조사, 설문 조사,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조사한다. ⑤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08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의 지적 수준과 흥미 등 쓰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자료 수집하기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오답 해설 ①, ④, ⑤ 쓰기 맥락에는 글쓰기의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의 수준과 요구, 매체 등이 있다. ② 조사 보고서 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의 활동으로 적절하다.

09 3-㉠에서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공연 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공연 관련 직업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공연 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공연 관련 직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 3-㉣에 공연 관련 직업의 종류와 관련 전공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초고에는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무대 감독에 대해서만 썼다가 연기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② 3-㉡에서 삭제한 내용은 주관적인 의견에 해당한다. ④ 3-㉢에서 문장의 길이가 지나치게 긴 것을 나누고 접속어를 활용하여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매끄럽게 하고 있다. ⑤ 그래프에서는 공연 관련 직업 체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진로 탐색 방법으로 나타났으므로 '직업인 특강·상담'을 '공연 관련 직업 체험'으로 수정하고 있다.

11 보고서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글로, 이 글에서도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다루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보고서는 사실적, 객관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공연 관련 직업 정보 조사'를 주제로, 긴 문장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수정하고 있다. ③ 보고서에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활용한다. 이 글에도 3-㉢에 그래프가 활용되었다. ④ 보고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조사 과정과 결과에 주관적인 견해나 해석이 개입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 한다. ⑤ 보고서의 형식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예 조사 기간 및 조사 대상이 제시되어 있다.

01 이 글은 계획하기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의 지적 수준과 요구 등의 쓰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02 ㉠은 글을 쓸 때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체나 표현 방식, 규칙 등을 말한다. 글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작문 관습을 이해하고 쓰기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03 ㉡: 내용 조직하기, ㉢: 내용 생성하기

01. 사랑, 그 속에 담긴 아픔 서경별곡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04~107쪽

01 ① 02 ⑤ 03 ① 04 ② 05 ② 06 ④ 07 ① 08 ①
09 ④ 10 ③ 11 ④ 12 ③ 13 ③

- 01 보고서의 주제, 예상 독자, 자료 활용 방안, 목차, 표현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이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는 활동으로 계획하기 단계와 관련이 있다.
- 02 작문 관습은 언어 공동체에서 특정한 방식의 의사소통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고유한 것으로, 작문의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 03 보고서 쓰기의 절차는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초고 쓰기 및 고쳐 쓰기'의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㉓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㉔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O X 토 마무리 check

본문 09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06 가능한 많은 자료보다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여 활용해야 한다.
- 08 사회적 쓰기 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개인적 쓰기 윤리는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침없이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이다.

- 01 사랑하는 입과 이별한 정한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화자의 감정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청각적 이미지는 활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여음구와 후렴구, 동일한 시어 및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가변성, 순간성을 상징하는 구슬과 불변성, 영원성을 상징하는 끈의 대조를 통해, 입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를 사용하여 작품의 흥을 돋우면서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⑤ '긴히션(신잇돈) 그초리잇가'는 입과 이별해도 자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 02 ㉔의 대상이 13연에 나오는 '건너편 꽃'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㉔은 입이 자신과 이별한 후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화자의 불안감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쇼성경'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② 화자는 길쌈하던 베를 버리고서라도 입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이는 입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계 수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입이 자신을 사랑만 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④ '대동강'은 화자가 입과 이별하는 공간, 입과의 단절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03 ㉓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불가능한 일을 가정한 것이 아니라 입과의 이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㉓의 상황은 입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㉔)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③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㉓)은 입과의 이별을,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㉔)은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의미한다. ④ 화자는 자신의 변함없는 마음과 끊어지지 않는 '끈'의 공통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㉔와 같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⑤ 화자는 입과 이별하는 상황이 와도 입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 04 [A]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공간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입이 자신을 사랑만 해 주신다면 그 공간과 생업을 모두 버리고 입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즉, [A]에는 이별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길쌈 베를 버리고라도 입을 따르겠다는 것은, 화자가 입과 이별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일상적 공간과 생업까지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③ 화자는 변함없는 자신의 마음을 끊어지지 않는 끈에 비유하고 있다. ④ 화자는 입을 대동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줄 사공을 원망하며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과 서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는 입이 대동강 건너편의 꽃을 꺾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입이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의미한다.

- 05 고려 가요의 후렴구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데, 이는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 가요가 구전되다가 궁중의 노래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후렴구가 덧붙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오답 해설 ① '질삼빔'은 길쌈을 하는 베로, 화자가 여인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소재이다. ③ 화자는 입과의 이별에 대한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진솔하

게 표현하고 있다. ④ 고려 가요는 3음보의 율격이 반복되어 노래로 부르기에 쉬운 형식을 갖추고 있다. ⑤ 고려 가요가 궁중의 음악으로 수용되었다는 것은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쳐 전해졌다는, 즉 인기가 많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06 '대동강'은 화자가 입과 이별하는 공간(ㄴ)이며, 떠나간 입이 돌아올 기약이 없는 공간(ㄷ)이다. 또한 이별 후에 입이 다른 여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공간(ㄹ)이다.

오답 해설 '대동강'은 입과 화자를 이별하게 하고 단절시키는 공간이지 현실 도피의 공간이 아니다(ㄱ). 또한 화자는 입을 '대동강' 건너로 데려다주는 사랑을 원망하고 있으므로 '대동강'을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ㄹ).

07 이 글은 입이 화자를 떠나는 이별의 상황을, <보기>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는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 글에는 이별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실성을 높이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의 화자는 이별 후에 입이 다른 여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반면 <보기>의 화자는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③ <보기>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 ④ <보기>에서 화자는 누이의 죽음으로 슬퍼하지만 그것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⑤ 이 글은 입과의 이별을, <보기>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다루고 있다.

Plus <보기> 제망매가. 월명사

갈래	10구체 향가
성격	추모적, 종교적, 애상적, 서정적
주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종교적 극복 의지
해제	정제된 형식과 고도의 서정성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형상화함.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상실감을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함.

08 (가)는 고려 가요, (나)는 현대 시로 서로 다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임에도,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정한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가)에는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의 화자는 입이 대동강을 건너면 다른 사람을 만날 상황을 가정하며 이별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나)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가)는 천년을 홀로 살아간다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소망의 간절함이 아니라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강조한 것이다. (나)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⑤ (가)는 사공에게, (나)는 입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모두 청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다.

09 (가)는 고려 가요이다. 고려 가요는 평민들이 창작하고 향유하던 것이 인기를 끌면서 궁중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하위 계층의 문화가 상위 계층의 문화에까지 닿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고려 가요는 평민들 사이에서 창작되고 향유되다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어 전승된 것이다. ② 고려 가요에는 평민들의 소박한 생활 모습과 자연스러운 감정이 드러나 있다. ③ 고려 가요의 후렴구는 주제와 무관하며, 구전 혹은 기록되는 과정에서 덧붙은 것으로 보인다. ⑤ 평민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진솔하게 노래한 고려 가요는 조선 시대 유학자들에게 남녀상열지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0 화자는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도 하고, 이별 후에도 자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임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입을 대동강 건너편으로 데려가는 사공을 원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별을 수용한 것을 후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아즐가와 '나'는'은 노랫가락을 맞추기 위한 의미 없는 여음구이다.

② 화자는 입을 대동강 건너편으로 데려가는 사공을 원망하며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과 불안함을 토로하고 있다. ④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라는 후렴구는 운율을 형성하며 노래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⑤ 입을 향한 화자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끈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11 (가)는 입이 자신과 이별한 후에 다른 여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이별을 원하지는 않지만 떠나가는 입을 위해 꽃을 뿌리며 입의 앞길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인간의 보편적 생활 경험인 이별에서 비롯된 정서를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고려 가요, (나)는 현대 시이다. (가)는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 면에서 (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는 고려 가요로 평민층이 창작하고 향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에는 양반 계층이 아닌 평민들의 생활 모습, 진솔한 감정 등이 표현되어 있다. ③ (나)는 현대 시이지만 7·5조,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보이는데, 이는 (가)의 운율적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이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나, (가)의 화자는 입과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지키려 했다면, (나)의 화자는 표면적으로는 이별을 수용하면서 떠나가는 입을 축복하겠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2 하나의 표현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때 중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에는 중의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아직 이별을 맞이하지 않았으나 그 상황을 가정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화자는 입이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아가 입이 떠나는 길에 꽃을 뿌리겠다고 하였다. ④ 4연은 1연을 변형·반복하여 형태상 안정감을 얻으며 주제를 강조한다. ⑤ 화자는 걸으로는 이별을 받아들일겠다고 하지만, 속 마음으로는 입과 이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13 <보기>의 두 번째 연은 (가)의 5~8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데, (가)와 <보기>의 '바위'는 입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무쇠로 된 소가 쇠로 된 풀을 먹는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것이 실현되면 입과 이별하고 싶다는 표현은, 입과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의도를 반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편 (가)에는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가)와 (나)에서 천년을 홀로 살아간다는 것과, (나)에서 무쇠로 된 소가 쇠로 된 풀을 먹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가정하여 (가)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입과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④ (가)에서 화자는 자신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버리더라도 입과 이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사랑만 해 주신다면 울면서 입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반면 <보기>의 화자는 입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가)의 화자보다는 적극적이지 않다. ⑤ (가)의 5~8연과 <보기>의 두 번째 연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를 통해 당대 이와 같은 표현이 널리 유행했거나, 구전되는 과정에서 후대 사람들에 의해 해당 표현이 첨삭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Plus <보기> 정석가. 작자 미상

갈래	고려 가요
성격	서정적, 민요적
주제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
해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의지를 표현함.

심화 복습 문제 본문 108~111쪽

01 ③ 02 ① 03 ③ 04 ① 05 ④ 06 ② 07 ② 08 ④
 09 ⑤ 10 ① 11 ⑤ 12 ⑤ 13 ③ 14 ④

갈래	유배 가사
성격	한탄적, 비유적, 원망적
주제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과 연군지정
해제	조선 시대 유배 가사의 효시로, 천상계에서 버림받은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여 당쟁의 결과로 유배된 신하의 처지를 드러냄.

01 (나)의 화자는 1행에서 자신의 처지가 '옥황상제 처분'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행에서 '건덕궁'에 가고 싶어 하고 있다. 이로 보아 자신의 상황을 운명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나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임이 자신과 이별한 후에 다른 여인을 만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② (가)는 고려 가요로, 3음보의 율격,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고려 가요인 (가)는 3음보, 가사인 (나)는 4음보로 이루어져 있다. ⑤ (가)는 끈을 통해, (나)는 매화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2 (가)는 임과의 이별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고려 가요로, 이상향에 대한 동경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화자가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게 된 상황을 다루고 있다. ③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하마르는데'에서 반복되는 부분이나 여음구를 제외하면 '서경이V서울하V마르는데'이 되는데,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3·3·3자가 반복되는 3음보의 율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④ 이별 상황에서 느끼는 진솔한 감정이 드러나 있다. ⑤ 고려 가요는 구비 전승되다가 궁중 음악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후렴구가 덧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03 1~4연에서 자신의 생업, 삶의 터전을 모두 포기하고서라도 임을 따르겠다고 하던 화자는, 5~8연에서 이별의 상황이 되어도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4연에도 임과의 이별 상황을 화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② (가)에서 화자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1~4연에 대조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5~8연에서도 역설적인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다. ⑤ 1~4연에서 화자는 '쇼성경'이라는 공간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 공간의 특징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5~8연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04 화자와 임이 이별하는 상황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면서, 그러한 상황에도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의도와 표현이 반대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이나 화자가 임과 이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④ 시적 상황과 화자의 내면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상승 이미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⑤ 바위는 화자와 임의 사랑을 방해하는 자연물로 활용된 소재로, 인간이 본받을 속성을 발견하는 대상이 아니다.

05 '바람비 뿌린 소리'는 '님의 귀에 들리기나'에서 알 수 있듯이,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임과 떨어져 있는 화자가 임에게 알리고 싶은 억울하고 슬픈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쓸쓸함을 돋운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성종과 떨어져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작가가 선왕인 선종을 '옥황상제'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임자 없이 구닐'던 '이 몸'은 화자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성종과 떨어져 유배 생활하게 된 작가를 의미한다. ③ '만장송'은 임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심을, '매화'는 임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소재로, 화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⑤ '7을 돌 볼근 밤'은 임과 헤어져 지내는 화자가 느끼는 애상감이 부각되는 배경이다.

06 (가)의 '질삼뵈'는 화자의 생계 수단이며, (나)의 '빈 낙대'는 욕심 없고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즉, '질삼뵈'와 '빈 낙대' 모두 화자가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뉘든 티'는 '쇼성경'으로, 화자가 사랑하는 공간이자 화자가 현재 머무르는 공간을 의미한다. 한편 (나)의 '건덕궁'은 화자가 가고 싶다고 말하는 공간이다. ③ (가)의 '우러곰'과 (나)의 '슬피 우러'는 모두 화자의 슬픈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쫄노이디다'는 임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마음을, (나)의 '뵈치어든'은 그림자라도 임에게 달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보여 준다. ⑤ (가)의 '그치리잇가'는 '끊어지겠습니까'로, 임에 대한 신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낸다. 한편 (나)의 '반기실가'는 '반가워하실까'로, 임이 자신을 반가워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드러낸다.

07 [A]의 '신'과 [B]의 '붉은 마음'은 모두 화자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고, [A]와 [B]의 '바위'는 모두 화자와 임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뜻한다. 즉, '신'과 '붉은 마음'은 '바위'와 대조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①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깨지거나 흩어질 수 있는, 즉 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끈'은 끊어지지 않는 것, 즉 불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 [A]의 '신'과 [B]의 '붉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④ [A]와 [B] 모두 '구슬'과 '끈'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티프가 사용되었고 두 부분은 각각 고려 가요와 한시의 형식으로 구현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⑤ [A]에는 '아즐가', '나'는 여음구와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 디리'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는 반면, [B]에는 여음구 및 후렴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08 (가)는 '기다리겠노라'를 통해 누이를 잃은 슬픔의 종교적 극복 의지를, (나)는 '뿌리우리다', '흘리우리다'를 통해 떠나는 임을 축복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다)는 '그치리잇가'를 통해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이승을 떠난 누이에 대한 슬픔을, (나)는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고 있으나, 공간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는 '쇼성경'이라는 공간에 대한 화자의 애착이 드러나고 있으나 화자는 임과 이별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공간을 버리겠다고 하였다. 공간의 대비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② (다)는 고려 가요로 3음보의 율격이 나타나고, (나)는 현대 시이지만 7·5조,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계승한 작품이다. 그러나 (가)에는 음보 수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에서 임이 떠난다고 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부분이나 작품 전체에 걸쳐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떠나가는 임을 축복하겠다는 것은 의도와는 반대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와 (다)에는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는 죽은 누이를 대상으로, (나)는 임, (다)는 사공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가)~(다) 모두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지 않다.

09 (나)에서 화자는 임이 자신을 떠난다면 말없이 임을 보내 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임이 떠나가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리겠다고 표현한다. 이것은 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태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현실 극복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7·5조, 3음보의 민요적 율격으로 이루어져 리듬감이 느껴진다. ② 화자는 애상적 어조와 태도를 통해, 임과 이별하려다 그 슬픔을 참고 견디겠다는 인정과 체념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③ 화자는 표면적으로는 임이 떠나가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으로는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④ 1연을 4연에서 변형·반복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하며 주제를 강조한다.

10 (다)의 화자가 임과 이별하지 않을 수 있다면 삶의 터전과 생업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나, 임이 자신을 떠나도 자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솔직하고 적극적인 여성

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화자는 입과 이별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서라도 입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입이 떠나는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질삼빚'은 길삼하는 바로, 화자의 생업과 관련된 소재이다. 즉, 화자는 생업과 관련된 '질삼빚'을 버리고서라도 입을 따르겠다고 표현한 것이다. ⑤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감정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 시대 여인들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 (나)의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으로, 입에 대한 자신의 지극한 사랑을 전하는 동시에 떠나는 입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입을 잇고 새출발하겠다는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

오답 해설 ① (나)는 현대 시, (다)는 고려 가요로, 창작된 시대는 다르지만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② 고려 가요인 (다)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후렴구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한다. ③ 고려 가요의 후렴구는 작품의 내용과 무관한데, 이를 구전의 과정에서 덧붙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어 기록되는 과정에서 덧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④ (나)는 이별을 원하지 않는 화자의 속마음과 달리 이별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입이 떠나는 길을 축복하겠다고 말하는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12 '가는 곳 모르온저.'는 삶의 무상함에 대한 고뇌를 나타낸 표현이다. 종교로 슬픔과 고뇌를 극복하려는 의지는 '도(道) 닦아 가다 리겠노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간다는 말'은 누이가 죽기 전에 남겼어야 할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이 갑작스러웠음을 의미한다. ② 바람은 잎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른 바람'은 예상보다 바람이 빨리 불었음을 뜻하며, 이는 누이의 요절을 암시한다. ③ 떨어지는 잎은 하강적 이미지로, 죽은 누이를 비유한다. ④ 같은 가지에서 났다는 것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로 (가)의 화자가 죽은 누이와 재회할 공간이므로, 종교적 차원의 공간이자 개인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는 (다)의 화자가 입과 이별하는 공간이므로, 공동체 차원이 아니라 역시 개인적 차원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 정토, 즉 극락세계로 상상의 공간이고, ㉡는 실재하는 현실적 공간이다. ② (가)의 화자는 불교적 수행을 통해 누이와 ㉠에서 재회하기를 소망하고, (다)의 화자는 ㉡에서 입과 이별한다. ④ ㉠은 누이를 잃고 슬픔에 빠졌던 (가)의 화자가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그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에서 화자는 입을 ㉡ 건너편으로 데려다주는 사공을 원망한다. ⑤ ㉠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종교적 깨달음으로 전환되는 공간이고, ㉡는 이별 후에도 입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표현하던 화자가 이별 후에 입이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을 불안해하는 공간이다.

14 '긴히쫘 그즈리잇가'는 입과 이별해도 입을 향한 화자의 사랑과 믿음은 변함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상대방과 함께하던 공간에서 상대방을 기다리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소성경'은 화자가 사랑하는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다. ② 화자가 입과 이별하기보다는 '질삼빚'을 버리고라도 입을 따르겠다는 것은 자신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서라도 입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울면서 (입을) 따르겠다는 것은 이별을 하고 싶지 않다는 화자의 심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입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의도를 느낄 수 있다. ⑤ 입이 대동강을 건너 화자와 이별한 후에 다른 여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드러난 표현으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길 원하는 화자의 소망과는 반대되는 입의 움직임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서담·서술형 문제

본문 112~113쪽

01 반복되는 표현을 제외하면 '구슬이▽바회에 디신돌'과 같이 3음보의 율격을 보이며, '아즐가', '나는'과 같은 여음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와 같은 후렴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02** ㉠: 비유적, ㉡: 사공, ㉢: 여인 **03** (가)와 (나)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지만 (가)는 개인적인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며 극복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는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04** ㉠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로 화자가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는 공간이고, ㉡은 화자의 삶의 터전으로 화자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지만 입과 이별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화자는 그 공간을 버리고 입을 따르겠다고 표현한다.

01 음보율은 자연스레 끊어 있는 의미상 텅어리에서 생기는 운율로, 고려 가요는 3음보의 율격을 보인다. 또한 고려 가요는 후렴구, 여음구 등 음악적 요소가 사용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쉬운 형식을 보인다.

02 [A]에서 화자는 불변하고 영원한 '끈'을 활용하여 입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B]에서는 입을 대동강 건너편으로 데려다주는 사공을 원망하며, 입이 다른 여인을 만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03 (가)의 화자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요절에 깊은 슬픔을 느끼지만 그것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나)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공간에 만족하고 있지만 입과 함께 있기 위해서라면 그 공간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를 보인다.

04 ㉠은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극락세계로, (가)의 화자는 ㉠에서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은 (나)의 화자가 살아가며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이지만, 입과 이별하게 되면 ㉡을 버리고서라도 입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14~115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01 고려 가요는 고려 시대에 민간에서 유행하다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었다.

02 고려 가요는 3음보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07 고려 가요의 후렴구는 작품의 주제와 무관하다. <서경별곡>에서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라는 후렴구와 '아즐가', '나는'이라는 여음구는 주제와 상관없이 작품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09 화자는 입과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자신이 처한 공간, 자신의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겠다고 표현하고 있다.

17 한국 문학은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의 안타까움 등을 소재로 다루면서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02. 자연, 그 속의 여유로움_강호사시가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18-121쪽

01 ① 02 ⑤ 03 ⑤ 04 ④ 05 ② 06 ② 07 ③ 08 ④
09 ② 10 ③ 11 ② 12 ④ 13 ② 14 ② 15 ⑤

01 (가)의 화자는 강호에 문혀 사계절의 흥취를 느끼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봄 경치의 아름다움을 완상하며 즐기는 풍류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자연에서 느끼는 화자의 흥취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가)와 (나) 모두 자연이 풍류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인간과 자연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계절에 따른 강호의 모습이, (나)는 봄의 자연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으나,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④ (가)와 (나) 모두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만족감과 즐거움이 드러나 있으며, 화자가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⑤ (가)의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임금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나)의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속세의 번뇌를 잊으려 하고 있지 않다.

02 (가)의 화자가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은 풍류의 공간이자 화자가 완상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자연물을 활용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④ 각 수의 초장은 모두 '강호(江湖)에 ~이 드니'로 시작하여 각 계절에서 느끼는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으며, 종장은 '이 몸이 ~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로 끝나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임금에 대한 화자의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것이 화자의 개인적인 삶이라면, 화자가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임금의 은혜라고 보는 것은 사대부로서의 삶, 즉 공적인 삶의 태도라 할 수 있다. ③ (가)는 전 4수로 된 연시조로, 춘하추동의 네 계절에 대해 각 한 수씩 읊고 있다.

03 <보기>에서 (가)는 유교적 이상이 현실화된 시기에 지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화자가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의 여부는 (가)나 <보기>를 통해 알 수 없다. 또한 화자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조화가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 때문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각 수의 초장과 종장은 화자가 자연에서 즐기는 흥취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사적인 삶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② 각 수 종장의 '이 몸이 ~하움도'는 초장과 종장에 제시된, 화자가 자연에서 느끼는 감정과 삶의 모습을 집약한 것이다. 따라서 사적인 삶의 모습을 압축하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각 수 종장의 '역군은(亦君恩)이샀다'는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도다'라는 뜻으로,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에게 감사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하라는 공적인 삶과 관련된 한 말이라 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가)에는 개인의 평안한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치적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의 만족스러운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04 ㉠은 (나)의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완상하며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므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기 위한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에서 욕심 없이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에서 자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③ (나)의 화자는 ㉡에서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화자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을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⑤ ㉠과 ㉡은 모두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속세와 대비된다.

05 ㉢은 '신의가 있는 강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의인화를 통해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을 보여 준다. 현실 비판적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탁료계변'은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를, '금린어'는 싱싱한 물고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는 것은 전원생활의 여유와 멋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풍요로운 모습을 물고기마다 싹썰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④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던져두었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으려는 의도보다는 느긋하게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누역'은 도롱이의 옛말로 눈이나 비를 막는 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분지족하는 화자의 삶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06 각 수의 종장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이 드러났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각 수의 초장은 모두 계절을 제시한 후 그 계절에서 느끼는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각 수의 종장에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자연 속에서 화자가 유유자적하게 삶을 즐기는 모습이 형성되어 있다. ④ 각 수의 종장은 모두 '이 몸이 ~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임금에 대한 화자의 충성을 강조한다. ⑤ 각 수의 종장에서는 각 계절마다 느끼는 감정과 생활 모습을 집약하며 이 모두가 임금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다.

07 (나)의 화자는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일컬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홍진'은 속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홍진에 못친 분네'는 속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이다. ② 화자는 봄의 경치를 완상하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옛사람의 풍류와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는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④ '조화신공'은 조물주의 신령스러운 솜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을 드러낸다. ⑤ 춘흥을 이기지 못하는 화자의 흥겨운 심정이 '새'에 이입되어 나타난다.

08 (나)의 '홍진'은 산수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사대부에게는 현실 정치의 혼탁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자는 자연에 문혀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후회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강호'에서 사계절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삶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② (가)에서 자연 속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 주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관료 생활을 마치고 산수 자연으로 돌아온 사대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을 '홍진'에 있는 이들에게 자랑하고 있다. 이는 속세의 삶과 은퇴 후 자연에 문혀 사는 삶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 속에서 자신이 누리는 것에 감사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09 (나)는 '미출가 못 미출가', '지락(至樂)을 못할 것가', '벗으로 그려 낸가'와 같이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농부의 분주한 일상에서 느끼는 여유를 보여 주는 작품으로, 논밭을 갈아 김을 매고 나무를 하는 등 공간의 특성과 관련된 일은 제시되어 있으나, 화자의 생각이나 그에 대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다)에 사용된 시어는 자연 속에서의 삶과 관련이 있으며, 대비되는 의미의 시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화자는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④ (가)는 농부의 일과에 따라 사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나)에는 봄의 자연을 완상하며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데 (가)에는 화자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자연물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나)는 '수풀에 우는 새'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⑤ (나)는 순간모욕을 중심으로 봄의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만족감을, (다)는 사계절에 따른 자연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0 (가)에는 분주한 일상에서 여유를 즐기는 농부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고단한 농사일에 지친 농민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논밭 갈아 김 매기, 삭정이 마른 썰 베고 잘라서 지계에 짚어지기, 점심 도시락 먹기, 입담배 피우기 등은 농부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른 농부의 일과를 제시하고 있다. ④ (가)에서 자연은 풍류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의 장이자 생활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⑤ (가)는 사실 시조로, 평시조에서 종장의 길이가 파격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나 종장의 첫 어절은 3음절이 유지되고 있다.

11 (다)는 춘하추동의 네 계절을 각 한 수씩 읊고 있는 연시조로, 사계절 동안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다)에서 자연은 화자가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③ (다)에 화자가 유배 중이라는 단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화자는 이미 자연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고 있다. ⑤ 화자에게 자연은 풍류의 공간이지 삶의 터전이 아니며,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므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

12 (나)의 화자는 '산림'에서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생애에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지칭한다. <보기>에 따르면, 여기서 '산림'은 구체적인 공간이라기보다 '흥진'과 대비되는 개념을 환기하는 추상성을 지닌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따르면, '산림'과 '흥진' 모두 구체적 실상보다는 대상에 대한 관념을 환기하는 추상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화자는 자연에서 머물고 있으므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나)에서 '산림'은 속세의 번잡함과 대비되는 한가롭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화자는 이미 '산림'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 '산림'의 모습을 묘사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수간모옥'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가 지내는 작은 초가집이지만, '흥진'으로 대표되는 속세와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⑤ (나)는 봄 경치를 감상하며 느낀 즐거움과 안빈낙도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여기서 봄은 만물이 소생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는 시간이다. 화자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흥진'과 대비되는 자연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절망적 현실에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 각 수 초장의 초반부는 '강호(江湖)에 ~이 드니'가 반복되는데, 이때 '~'에 해당하는 부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적 배경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은 '역군은(亦君恩)이샷다'로 모두 동일하다. 이를 통해 자연을 즐기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다.

오답 해설 ㉢ <제2수>~<제4수>의 초장 후반부는 각각 '초당', '고기', '눈'이라는 구체적 사물을 통해 화자의 내면적 감흥을 드러내고 있으나, <제1수>의 초장 후반부는 '미친 흥(興)이라는 화자의 감흥을 직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제1수>~<제3수>의 종장은 각각 봄 시냇가의 흥취, 여름의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풍경, 가을에 강에서 낚시하며 소일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4수>의 종장은 주변의 자연 풍광이 아니라 화자의 모습만을 제시하고 있다.

14 ㉠은 자연 속에서 화자가 누리는 풍류와 그로 인한 즐거움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의 탄식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삶이 옛사람들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③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석양 속에 피어 있는 풍경으로, 봄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봄의 자연이 마치 조물주가 칼로 재단하거나 붓으로 그린 것처럼 아름답고 굉장하다는 의미이다. ⑤ 춘흥을 이기지 못하는 화자의 흥겨운 심정을 '새'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15 (다)의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정치적 위기를 크게 겪지 않은 작가에게 강호 자연과 정치적 현실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각 수의 종장에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나타나 있을 뿐, 화자가 강호 자연과 우국충정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다. ② 화자가 자연 속에서 느끼는 감흥과 기쁨에 유교적 틀이 작용한 것이지, 정치적 현실로 복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화자는 정계를 떠나 자연에서의 삶을 즐기면서도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으나, 나라와 임금을 염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신의 삶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노래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강호에서의 미적 감흥과 기쁨에 유교적 틀이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 122~125쪽

심화 복습 문제

01 ④ 02 ⑤ 03 ② 04 ③ 05 ⑤ 06 ② 07 ② 08 ③
09 ④ 10 ③

▶ (나) 접하기 이규보

핵심 정리

갈래	한문 수필, 기(記)
성격	경험적, 교훈적
주제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삶에 대한 성찰
해제	맛이 없는 배나무 두 그루에 맛있다고 이름난 배나무 가치를 접붙이는 것을 본 경험을 제시하며, 개과천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드러냄.

01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하고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나)의 글쓴이는 개과천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두 작품 모두 인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 안분지족하는 삶을 그리고 있으며, (나)는 개과천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두 작품 모두 현실 비판적인 인식과는 관련이 없다. ② (가)에만 해당한다. ③ (나)에만 해당한다. ⑤ (가)에는 현실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글쓴이는 교훈적인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두 작품 모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가)의 화자는 현재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 각 수 종장의 '역군은(亦君恩)이샷다'를 통해 작가가 사대부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화자가 자연으로 오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전 4수로 된 연시조로, 춘하추동 사계절을 각 한 수씩 읊고 있다. ② 4수 모두 초장은 '강호(江湖)에 ~이 드니 ~'로 시작되고 종장은 '이 몸이 ~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로 끝나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③ 화자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며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해 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④ 대유법, 대구법, 의인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03 <제2수>와 <제3수>의 B에는 각각 '초당'에서 화자가 느끼는 한가로움과, '고기'라는 자연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을 뿐, 자연 경관에 대한 화자의 평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제1수>~<제4수>의 A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이 드러나 있다. ③ <제1수>와 <제3수>의 C에는 각각 막걸리와 물고기를 안주 삼아 냇가에서 노니는 화자의 삶의 모습과,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화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④ <제1수>와 <제2수>의 D에는 각각 초장과 종장의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상태인 한가로움과 서늘함이 제시되어 있다. ⑤ <제1수>

~<제4수>의 E에는 D를 가능하게 해 주는 존재로 '군(임금)'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4 여름에 부는 '유신한 강파'는 화자에게 시원한 바람을 보내 주는 대상이다. 화자는 이상적인 공간인 자연을 즐기며 느끼는 만족감을 임금의 은혜 덕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임금의 은혜를 갈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강호, 즉 자연 속에서 사계절의 흥취를 즐기며 그러한 삶에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미친 흥'은 주체할 수 없는 깊은 감흥을 의미하므로 자연을 즐기는 모습에 해당한다. ④ 화자는 사계절의 자연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것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했으므로, 가을 역시 이에 해당한다. ⑤ 누역은 도롱이의 옛말로 눈이나 비를 막는 옷이므로, 안분지족하는 화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05 ㉠은 (가)의 화자가 자연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준 고마운 대상이고, ㉡은 (나)의 글쓴이에게 그리움의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①, ③ (가)의 화자는 ㉠의 은혜 덕분에 자신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서 글쓴이는 돌아가신 ㉡을 그리워하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의 은혜 덕분이라 생각하고, (나)의 글쓴이는 ㉠께서 배나무를 물려주신 까닭을 생각하며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④ ㉠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의 화자의 모습에서 유교적 충의 사상에 기반한 사대부로서의 삶을 발견할 수 있다. ㉡은 (나)의 글쓴이의 아버지이므로 개인적인 삶과 관련된 대상이다.

06 (나)의 글쓴이는 접을 붙인 나무에서 싹이 트고 잎이 돌아났을 때는 괴이하다고만 여기다가, 가을에 배가 주렁주렁 열린 후에야 의심이 사라졌다고 했다.

오답 해설 ① 전씨가 배나무에 접을 붙이는 것을 본 글쓴이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③ 소백과 한선자의 고사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가 배나무를 남기신 이유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배나무 접붙이는 것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배나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 가라'는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다) 입춘_백석

핵심 정리

갈래	수필
성격	회상적, 감각적, 대조적, 사색적
주제	입춘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과 어른이 되어 느끼는 상실감
해제	'입춘'이라는 절기를 중심으로 절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각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풀어냄.

07 (나)에서는 '산수 구경 가자꾸나', '목욕은 내일 하세', '저녁에 낚시하세'와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기를 청하는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자연을 즐기려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각적 이미지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다)는 어린 시절에 글쓴이가 친근하게 생각했던 소재들을 나열하여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글쓴이와 관련된 외적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감정 이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와 (다) 모두 고사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08 (나)의 화자는 세속의 온갖 부귀공명을 멀리하고 자연을 벗어나며 청빈하게 살아가면서, 마치 부귀와 공명이 자신을 끼리는 것처럼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켜 표현하고 있다. 즉, 자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외부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고깃배에 그물을 실어서 흘러가는 대로 던져두는 것은 고기를 잡

으려는 욕심 없이 유희자적함을 즐기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술잔을 세어 가며 먹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정철의 사설시조 중 '곳것거算 노코 무진무진 먹새그려'와 유사한 부분으로,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④ (다)의 글쓴이가 일을 보러 갔던 충청도 진천에서 소대환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변덕스러운 날씨 변화에 입춘이 온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절기가 신묘하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9 ㉠에는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것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에는 패부의 읍음을 느껴야 하는 봄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현재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답답함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현재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며, ㉡는 봄의 아름다움에 더 우울함을 느끼게 될 것을 염려하는 글쓴이의 마음을 드러낸다. ②, ⑤ ㉠에는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에는 봄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글쓴이의 답답함이 드러난다. ③ ㉠에는 자연이라는 대상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이 나타난다. 또한 ㉡에서 글쓴이는 입춘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했으므로 대상을 맞이하는 글쓴이의 즐거움이 나타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다)의 글쓴이가 고향을 생각하는 모습은 드러나지만, 절기 변화에 따라 고향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절기의 변화에 따라 땅의 상태나 기온이 바뀌는 것을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② '봄비'라는 시각적 표현과 '내음새'라는 후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봄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어린 시절의 글쓴이를 '나' 대신 '소년'이라고 객관화하고 있으며, '슬펏던'을 통해 겨울이 가는 것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⑤ 어린 시절에는 겨울이 가는 것이 슬펏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그런 슬픏마저 없다는 의미로,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26-127쪽

01 ㉠: 각 계절에서 느끼는 화자의 흥취를 드러냄. ㉡: 각 계절마다 느끼는 감정과 생활 모습을 집약하고 이 모두가 임금의 은혜임을 강조함. **02** 각 수에서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춘하추동 네 계절을 각 한 수씩 읊고 있다. **03** ㉠은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 ㉡는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며 사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04** 이 글은 연시조로, 사대부 계층이 주로 향유하였으며, '강호'는 안분지족을 느끼는 개인적 삶의 공간이자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유교적 충의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보기>의 (가)는 가사로, 역시 사대부 계층이 주로 향유하였으며, '산림'은 사대부가 속세를 벗어나 풍류를 즐기는 공간을 의미한다. <보기>의 (나)는 사설시조로, 평민 계층이 주로 향유하였으며, '무림산중'은 농민이 건강하게 노동을 하는 구체적인 생활 공간을 의미한다.

01 사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각 계절마다 자연에서 노니는 즐거움을 노래하면서, 이 모든 즐거움이 임금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02 형식적, 내용적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초장은 모두 '강호(江湖)에 ~이 드니 ~'로 시작하고, 중장은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며, 종장은 '이 몸이 ~옴도 역군은(亦君恩)이샅다'로 끝나는 구조를 보인다. 또한 계절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3 ㉠은 자신이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며 만족스럽게 지내는 것을 임금의 은혜 덕으로 돌리는 것으로, ㉡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완상하고 풍류를 즐기며 안분지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04 이 글의 '강호', <보기>의 '산림'과 '무림산중'은 모두 자연을 가리키지만, 그 의미는 각 작품마다 차이가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28~129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 01 시조는 고려 말기부터 발달하여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이다.
- 02 시조는 4음보의 정형률을 보인다.
- 04 평민들은 사설시조를 창작하고 향유했다.
- 08 각 수는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묶여 있다.
- 12 <제3수>에서 화자가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흘러가는 대로 띄워 던져둔 것은,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연과 혼연일체하여 즐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13 <상춘곡>의 화자는 봄 경치를 완상하며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다.

03. 웃음, 그 속에 담긴 현실_봄_봄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32~139쪽

- 01 ④ 02 ③ 03 ① 04 ⑤ 05 ④ 06 ② 07 ① 08 ③
- 09 ① 10 ② 11 ③ 12 ④ 13 ③ 14 ⑤ 15 ③ 16 ⑤
- 17 ② 18 ⑤ 19 ① 20 ① 21 ② 22 ③ 23 ① 24 ③

- 01 '짜증(짜장), 안죽(아직), 불배기(불박이), 승겁다(싱겁다), 씬(수염), 자식, 뺨창(창자)' 등의 어휘를 통해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현장감을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표현들은 작품의 해학성을 높인다.
오답 해설 ① 서술자는 '나'로 작품 안에 있으며, 자신이 관찰하고 생각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② 서술자 '나'는 성례를 둘러싸고 점순이, 장인과 있었던 일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대 현실에 관해 이야기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인칭 주인공 시점의 작품으로 주인공 '나'의 관점에서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점순이와의 성례를 둘러싸고 '나'와 장인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발생한 두 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다.
- 02 (나)에는 점순이의 말이 '나'에게 준 영향이 드러나 있을 뿐, '나'의 과거 행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나'가 장인이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들려라."라고 말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에서 점순이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 (다)에서 '나'와 장인이 싸움을 벌인 이유는 모두 성례 때문이다. ④ (다)에서 '나'는 점순이가 바보라고 한 말을 생각하며 장인의 수염을 채고 있다. ⑤ (다)에서 '나'는 점순이가 상황을 몰래 엿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점순이에게 잘 들리도록 소리를 치고 있다.
- 03 '나'는 성례를 시켜 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 장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삼 년 칠 개월 동안 대가 없이 일을 해 준 것으로 보아 장인의 속셈을 간파하고 그에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② '짜증(짜장), 안죽(아직), 불배기(불박이), 승겁다(싱겁다), 씬(수염), 자식, 뺨창(창자)' 등의 표현들은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다)에서 '나'는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고 "이걸 까벨라 부대!"라고 소리치는데, 이는 일반적인 장인과 사위의 관계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장인은 성례를 빌미로 어수룩한 '나'를 대가 없이 부려 먹고 있다. ⑤ '나'는 점순이의 충동질로 장인과 싸움을 벌이면서 그 장면을 몰래 엿보는 점순이를 의식하고 있다.
- 04 (가)의 '이래서 나는 애취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에서 '나'가 계약이 부당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지만 '나'는 이에 대해 장인에게 의견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다)에서 '나'와 장인이 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나)에서 점순이가 '나'를 충동질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밥을(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나)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를 통해 장인이 '나'에게 인색하게 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성례에 대한 점순이의 충동질로 (다)에서 장인과 싸움을 벌인다. ③ (가)에서 장인이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성례를 미룬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 '나'가 점순이에게 바보라는 말을 듣고 '에미 잃은 형새 새끼처럼 가여운 얼굴이 된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 05 ㉠을 통해 '나'가 불만을 표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인이 '나'를 회유하려는 의도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점순이와 성례시켜 준다는 장인의 약속을 믿고 데릴사위로 와서 대가 없이 일을 해 주는 상황이다. ②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었나'만 생각했던 '나'는 구장님한테 갔다가 그냥 왔다는 점순이의 충동질에 장인과 싸움을

별이다. ③ ㉔은 성례 문제에 관하여 담판을 지으려 구장한테 가더니 아무 성과 없이 그냥 왔다는 의미이다. ⑤ '나'는 점순이가 바보라고 한 것에 충격을 받고 성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인과 싸움을 벌이는데, 장인이 '나'가 일을 안 하면 징역을 간다고 하자 '나'는 점순이에게 바보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징역을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

06 점순이는 '나'가 구장에게 갔다가 그냥 온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데, 이로 보아 점순이는 '나'의 행동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순이가 자신의 키 때문에 성례가 미뤄진다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점순이는 '나'에게 장인의 '심을 잡아채지' 그랬으며 성례 문제를 해결하라고 충동질한다. ③ 점순이는 구장에게 갔다가 실패한 결과를 들고 오지 못한 '나'에게 장인의 수염이라도 잡아채어야지 그냥 두었냐고 말한다. 이는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성례가 성사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점순이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당찬 성격이라면, '나'는 점순이와 달리 우유부단하고 어리숙한 인물이다. ⑤ '나'는 점순이가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라고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장인의 수염을 잡아챌 자신의 행동에 점순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07 '나'와 장인이 구장 앞에서 갈등하는 상황은 일반적인 '장인-사위'의 관계와 거리가 먼 것으로, 갈등 상황을 과장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것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마름으로서의 장인의 인물됨과 '나'를 부려 먹는 장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④ 배경이 강원도 산골로 제시되고 있으나,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장인이 마름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나 '나'에게 하는 행동은 부정적 모습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부조리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08 ㉔은 성례를 시켜 주라는 구장의 말에 대한 장인의 반응으로, 점순이의 키를 이유로 성례에 대한 '나'의 요구가 부적절함을 비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장인은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가지고 일을 안 하는 '나'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며 함부로 대하고 있다. ② '나'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장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장인은 '나'를 때려 놓고 '쓴 침만 삼키는 것이다. ④ '나'는 장모를 '참새'에 비유하여 점순이의 키가 작아 성례를 시켜 줄 수 없다는 장인의 말을 반박하고 있다. ⑤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면서 '나'가 장인을 때리고 있는 상황으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이다.

09 [A]는 장인의 별명, 마름으로 인심을 잃은 상황 등을 제시하며 장인의 인물됨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장인에 대한 동리 사람들의 평가와 마름으로서 장인의 행동을 보여 주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작인들이 뇌물을 주지 않을 경우 소작할 땅을 주지 않는 장인의 행동을 보여 주면서 비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 '나'가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고 있지 않다. ④ 장인의 인물됨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 있으나, '나'가 살아온 이력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장인에 대한 동리 사람들의 평가는 나타나 있으나, '나'의 주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10 '나'는 장인이 어떤 인물인지 알지만, 구장의 말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수룩한 인물이다.

오답 해설 ① 구장이 장인의 귓속말을 들은 후 장인에게 유리하도록 '나'를 헐박, 회유하고 있으나, '나'는 그 말이 자신을 위해 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가 사리 분별을 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대가 없이 장인의 집에서 일을 해주며 구장의 회유에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 '나'는 사람들에게 어수룩한 인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이야기를 듣고 구장도 장인에게 '얼른 성례 시켜 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가 다른 사람을 당황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대가 없이 장인의 집에서 일을 해주며 성례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 '나'는 우직하고 성실한 인물로, 냉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1 [B]는 구장이 장인의 귓속말을 들은 후 '나'에게 해 준 말로, 장인이 어리숙한 '나'를 헐박하고 회유하여 일을 계속하게 하려는 의도가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나'가 장인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계기가 된다. ② '나'가 장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나타난 말로, 장인과 '나'가 화해할 수 없는 이유와는 관련이 없다. ④ '나'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나'가 불리해질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⑤ 구장이 장인에게 유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구장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장인에게 어서 성례를 시켜 주라고 하지만, 장인이 귓속말을 한 후에는 '나'를 헐박하고 회유한다. 이것으로 보아 구장이 '나'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독자는 구장이 장인의 귓속말을 들은 후 '나'에게 하는 말이 장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문태도 '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 준다. 하지만 '나'는 문태의 말을 믿지 않고 구장이 자신을 위해 말을 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② '나'는 장인이 구장에게 귓속말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장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 ③ '나'는 장인의 농사를 버려두면 징역을 갈 수 있다는 말을 사실로 믿고 있다. 성례를 빌미로 대가 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말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나'의 모습은 웃음을 유발한다. ⑤ 구장이 장인의 편에서 말한 것이라는 문태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구장의 말을 믿는 '나'의 모습은 웃음을 유발한다.

13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의 '나'가 경험한 바를 자신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전지적 작가 시점에 관한 설명이다. ② 1인칭 관찰자 시점에 관한 설명이다. ④ 작품 밖 서술자는 3인칭 시점에 해당한다. ⑤ 3인칭 관찰자 시점에 관한 설명이다.

14 (라)에는 성례에 대해 '나'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진 점순이의 2차 충동질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나'가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준다는 장인의 약속을 믿고 대가 없이 삼 년 칠 개월이나 일했다는 것이 나타난다. (나)~(라)에는 이러한 성례 문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② (나)에서 점순이도 성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나'는 '며칠 내에 부쩍(속으로) 자란 듯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게 아니라고 하였다. ③ 구장은 '나'의 편을 들었다가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의 말에 동조한다. ④ (다)에서 '나'가 구장에게 가서 결판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점순이는 (라)에서 '나'를 비난한다.

15 이 글은 '나'가 처한 상황, '나'와 장인의 갈등 장면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보기>는 극심하게 가난한 홍보의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장인은 교활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을 날카롭게 풍자하기보다는 해학적으로 표현하면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보기>는 가난한 상황을 과장하여 웃음을 유발하지만 부정적인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글의 교활하고 계산적인 장인과 어수룩하고 순박한 '나'는 대조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기>에는 대조적인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글의 서술자는 '나'로, 작품 안에 있다. <보기>는 홍보가 말하는 부분으로 서술자는 드러나지 않으나, 작품 전체의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로 작품 밖에 존재한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시대적 상황은 짐작할 수 있으나, 당대의 모순을 폭로하는 것은 아니다.

➔ Plus <보기> 홍보전_작자 미상

갈래	판소리게 소설
성격	해학적, 풍자적
주제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 빈부 격차에 따른 갈등
해제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표현한 판소리게 소설로, 인물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해학으로 극복하려는 특징을 보임.

16 (가)에서 '나'는 장인이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마' 했던 말을 믿고 '돈 한 푼 안 받고'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돈 한 푼 안 받고 삼 년 칠 개월 동안 일을 했으므로,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은 '계약'과 관련이 없다. ② 장인은 점순이가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겠다고 했으므로, '나'가 점순이의 마음에 들면 성례를 한다는 것은 '계약'과 관련이 없다. ③ '나'는 점순이가 자라면 성례를 하기로 하고 데릴사위로 들어가 일을 했으므로, 성례를 하고 일을 해 준다는 것은 '계약'과 관련이 없다. ④ '나'는 데릴사위로 들어가 일을 해 주면서 점순이가 크기를 기다렸으므로, 장인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릴사위가 되기로 했다는 것은 '계약'과 관련이 없다.

17 ㉠은 구장이 '나'의 말을 듣고 장인에게 성례를 시켜 주라고 말하는 부분이므로, 상대방인 장인이 간과한 부분을 짚어 주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점순이는 '나'가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일만 한다며 나무라고 있다. ③ 장인은 성례를 시켜 주라는 구장의 말에 점순이의 키를 이유로 들어 성례를 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나'는 점순이가 거의 4년 동안 키가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이 일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장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⑤ 구장한테 갔다가 성과 없이 돌아왔다는 점순이의 핀잔에 '나'는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 대답한다. 점순이는 이러한 '나'의 반응에 장인의 수염이라도 잡아챌어야 한다면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낸다.

18 (라)는 점순이도 '나'와 마찬가지로 성례를 원하고 있으며, '나'가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점순이가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상황으로, 점순이가 본인의 입장을 우선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나'가 대가 없이 삼 년 칠 개월을 일하면서 점순이가 자라기만을 기다렸으나, 점순이의 키는 자라지 않고 장인은 이를 핑계로 성례를 미루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를 통해 봄의 계절적 특징을 점순이와 관련시키고 있으며, '나'가 이성에 눈을 뜨고 점순이의 변화를 반기워함을 알 수 있다. ③ 점순이가 '성례시켜 달라'고 요구하라며 '나'를 충동질한다는 것을 통해, 성례에 대한 점순이의 생각이 '나'와 같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는 '나'와 점순이가 사랑을 느낌을 드러낸다. ④ '거진 사 년 동안'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성례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 (가)는 판소리 사설이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판소리계 소설은 운문적 문체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듯한 운율감을 형성한다.

오답 해설 ② (가)의 인물들은 서로의 가난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립적인 인물이 나타났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는 장인과 '나'의 갈등 상황을 해학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외양 묘사로 인물들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 '나'는 점순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면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으므로, 인물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공간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20 (가)에서 흥보 아내가 "남 대신으로 맞을까."라며 우는 것과 흥보가 사람들에게 가난을 자랑하여 가장 가난한 사람이 매품을 팔아 가자고 말하는 상황을 통해, 흥보가 매품을 팔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에서 '나'가 장인에게 '부려만 먹구 왜 성례'를 시켜 주지 않냐며 항의하고 있는 것을 통해, 대가 없이 일하는 상황에 불만을 제기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의 '나'는 자신을 대가 없이 부려 먹으려는 장인에게 이용당한 것이 맞다. 그러나 (가)의 흥보는 매품을 팔러 온 다른 사람들의 가난이 자신보다 더한 것을 알고 집으로 그냥 돌아왔으므로 남을 속였다고 할 수 없다. ③ (가)의 흥보 아내의 흥보가 매를 맞지 않고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 장인의 수염을 잡아챌 '나'가 '제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펴기 뻘썩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점순이가 '나'가 자신의 입장을 직접 전달해 주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충동질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흥보는 가난 때문에, (나)의 '나'는 교활한 장인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둘 다 타인의 오해와는 관련이 없다. ⑤ (나)의 점순이는 성례를 시켜 달라고 하라며 '나'를 충동질했으므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의 흥보 아내의 매품을 팔러 갔던 흥보로 인해 울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21 가난을 자랑한 상대방에게 그 정도라면 먹고살 수 있는 처지라고 말할 것은, 상대방의 가난이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매품을 팔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많자 그중 제일 가난한 사람을 가려내어 매품을 팔자는 제안이다. ③ 남편이 매품을 팔러 간 상황을 서러워하던 흥보 아내의 흥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다. ④ '나'는 장인이 자신을 대가 없이 부려 먹기만 하고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⑤ 장인이 '바지가랭이'를 '옹겨잡고 매달'려서 극심한 통증을 느낀 '나'가 장인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 한 말이다.

22 흥보는 매품을 팔러 갔다가 그냥 돌아왔는데, 매품을 팔러 온 사람들의 처지에 비하면 자신은 '장자'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매품을 팔러 온 사람들이 자신보다 가난하다는 뜻으로, 자신이 상대적으로 부자처럼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장자(長者)'는 큰 부자를 점잖게 이르는 말이다. ② 매품을 팔러 온 사람들이 흥보보다 가난해서 흥보가 매품을 팔지 못했기 때문에, 흥보가 자신을 '장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④ 흥보는 가난한 처지로 인해 돈을 벌기 위해 매품을 팔러 가지만,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매품을 팔지 못하고 돌아온다. ⑤ 흥보는 매품을 팔러 온 사람들의 처지에 비하면 자신은 부자라 할 수 있을 정도라며 자기 자신을 '장자'라 표현하고 있다.

23 '나'는 점순이가 자신과 장인을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점순이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점순이의 말대로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며 격렬한 싸움을 벌인다. 따라서 장인과 싸우는 척을 해야겠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부려만 먹구 왜 성례 안 하지유?"를 통해 '나'의 불만이 드러나고 있다. ③ 장인은 '나'가 '정신이 다 아짚'할 정도로 때린다. '나'의 입장에서 성례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데 장인이 '나'를 때리자, '나'는 '온몸에 약이 올라 장인을 때밀어 버린다. ④ '나'가 장인의 수염을 잡아챌 것은 '내 곪이 난 것이 아니라'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툭툭히 못 한다고 바보라는데 매까지 잡자코 맞는 걸 보면 짜정 바보로 알 게 아닌가.'를 통해 '나'가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고 몸싸움을 벌인 이유를 알 수 있다.

24 (나)에서 '나'가 점순이를 의식하는 이유는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나'에게 점순이가 '바보'라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의 아내가 될 점순이에게 바보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으므로, 점순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점순이의 반응을 살피며 행동한다.

오답 해설 ① 매품을 팔러 온 사람들이 많아 서로 자신의 가난을 자랑하여 가장 가난한 사람을 뽑아야 될 정도라는 것은, 빈부 격차가 심해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흥보가 매품을 팔러 간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다. 이는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매를 대신 맞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남의 매를 대신 맞는 일도 있었다는 당대의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④ 성례를 시켜 달라는 '나'의 요구는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커녕 '나'를 때리는 장인의 모습은, 장인이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교활하고 이기적인 인물임을 보여 준다. ⑤ (가)에서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매품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통해 빈부 격차가 극심한 현실을, (나)에서는 딸과의 성례를 빌미로 장인이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실을 해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01 ③ 02 ③ 03 ⑤ 04 ② 05 ⑤ 06 ④ 07 ③ 08 ⑤
 09 ② 10 ① 11 ② 12 ② 13 ④ 14 ③ 15 ③ 16 ④
 17 ④

01 장인과 '나'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혈레벌떡 뛰어나온 장모와 점순이는 장인의 편에서 '나'에게 달려들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부러만 먹구 왜 성례 안 하지유!"라는 '나'의 말을 통해, '나'가 장인이 자신을 부러 먹기만 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아까부터 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장인의 수염을 잡아챈다. ④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 못 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장인이 '나'에게 '남의 농사 버려 주면 이 자식이, 징역 간다.'라고 협박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 장인을 넣 아래로 떠밀은 '나'의 행동은 장인이 '나'를 지계막대기로 내려치자, 화가 치밀어 저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즉, 장인을 힘으로 굴복시켜 뜻한 바를 이루려는 의도가 담긴 계획적인 행동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성례 문제를 결판내기 위해 일을 하지 않고 마당에 드러누워 일종의 시위를 벌였다. ② '나'가 장인의 수염을 잡아챈 것은, 점순이가 장인과 자신을 몰래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점순이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장인이 먼저 '나'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잡고 매달리자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 도는 것'처럼 죽을 만큼 아팠던 '나'는 장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아 뉘아챈다. 이는 성례는 시켜 주지 않고 자신을 아프게 하는 장인에 대한 원망이 담긴 행동이라 할 수 있다. ⑤ '나'는 점순이가 자신의 편을 들어 줄 줄 알았으나 울면서 자기 아버지인 장인의 편을 들자, 점순이의 속내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망연 자실한 모습을 보인다.

03 '할아버지'는 장인이 '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상황에서 장인의 행동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자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바짓가랑이를 붙잡힌 '나'이고 청자는 바짓가랑이를 움켜쥔 장인이다. ② '나'는 장인으로 인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할아버지!"라고 외친 것이다. ③, ④ '나'는 장인이 행동을 멈춰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빙장님'에서 '할아버지'로 호칭을 바꾸고 있다.

04 장모는 점순이와 함께 '나'의 귀를 잡아당기며 장인의 편을 들고 있으므로, 상황에 숨겨진 의미가 드러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장인의 말로 작품이 끝나면서 뒤에 이어질 내용에 대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③ '나'는 점순이가 처음에는 자신의 아버지, 즉 장인을 혼내 주려고 했다. 하지만, '나'의 편이 아닌 장인의 편을 드는 상황에서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나'는 자신을 '얼빠진 등신'에 비유하고 있다. ⑤ '나'는 점순이가 '나'의 편을 들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기 아버지, 즉 장인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고 기운이 빠진다. 또한 [A]에서는 성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도 않았다.

05 장인의 계획은 '나'를 부러 먹는 것이다. 그런데 '나'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장인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나'가 장인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쥐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해설 ① 장인은 성례를 시켜 준다는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배가 아프다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나'를 협박하는 모습을 보인다. 장인이 마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약자인 농민들이 강자에게 수탈당하는 현실을 보여 준

다고 할 수 있다. ② '나'는 자신의 노동력이 장인에게 중요하다는 것, 장인이 약속을 안 지키고 일만 시킨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장인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숙한 인물로 그려진다. ③ 장인이 '나'와 몸싸움을 벌인 후에도 '나'를 내쫓지 않고 성례로 회유하는 것은, 그의 목적이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④ '나'는 성례 문제로 장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지만, 결국에는 장인을 착하다고 생각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일터로 간다. 이러한 장면은 '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장인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숙한 인물임을 보여 주면서 해학적인 웃음을 유발한다.

06 장인의 귓속말을 들은 구장의 회유와 협박으로 볼 때, 장인이 '나'의 말에 공감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장인은 구장 앞에서 '나'의 말에 웃으면서 코를 푸는 척하며 '나'의 옆구리를 치고 '나'에게 눈총을 쏘는데, 이를 통해 장인이 구장을 의식하여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성례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해 구장을 찾아가지만 장인의 말을 들은 구장의 회유와 협박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온다. ③ 구장은 '나'의 말을 듣고서는 장인에게 열린 성례를 시켜 주라고 말하지만, 장인의 말을 들은 후에는 그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 ⑤ '나'가 구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장인과 성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였다.

07 구장은 장인이 귓속말을 한 후 '나'에게 남의 농사를 버리면 징역 갈 수도 있다고 협박하면서, 장인이 가을에 성례를 시켜 준다고 했으며 '나'를 달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구장의 말을 들은 후 '끼소리 없이' 오늘 아침까지 왔다고 했으므로, '귓속말'이 장인과 '나'의 갈등이 깊어지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가 구장의 말을 들은 후 그것이 자신을 위해 해 준 말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침까지 끼소리 없이' 온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귓속말'을 들은 후 구장이 '나'에게 한 말로 보아, 장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해 달라고 구장에게 말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나'가 성례를 요구하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징역 갈 이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은 구장을 시켜 '나'를 협박하고 회유하는데, 이는 '나'의 어리숙함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일을 하지 않는 '나'의 행동이 징역을 갈 수 있다는 것, '정장' 가면 죄를 뒤집어쓰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등은 '나'가 겁을 먹을 만한, 즉 불리한 내용이다.

08 [A]에서 장인은 '나'를 공짜로 부러 먹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를 원하므로, 피고인 장인이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구장은 처음에 '나'의 말을 듣고 장인에게 열린 성례를 시켜 주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장인은 점순이가 자라지 않아 성례를 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는, 점순이의 키가 사 년 동안 자라지 않았다는 장인의 말은 성례를 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과 같으니 자신이 일한 대가를 달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장인은 점순이의 키를 성례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9 '나'에게 일을 안 하면 손해죄로 징역을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하고, 장인이 올 가을에는 성례를 시켜 주겠다고 했으니 일을 하라는 것은 회유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나'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손해죄로 징역에 갈 상황이 아니므로 사실을 과장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장은 '나'에게 겁을 주고 있을 뿐 '나'를 비난하고 있지 않다. ③ 구장의 경험을 언급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왜 요전에 삼포 말서 ~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점순이루 말하면 이제 겨우 열여섯이 아닌가.", "좀 고마울 겐가."에서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나'가 스스로 한계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 ⑤ '삼포 말서 산에 불을 놓은 일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나'와 유사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10 ㉠은 구장이 서울에 다녀온 후 서울의 문화를 동경하는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은 마름으로서의 행세를 하는 장인의 행동을 보여 주고 있으며

로, 보는 사람들에게 호의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구장의 행동이고, ㉡은 장인의 행동이다. ④ ㉠과 ㉡은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 아니라, 언어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⑤ ㉡이 아닌 ㉠이 '예뻐' 소리가 동반되는 행동이다.

11 구장은 처음에 '나'의 말을 듣고 장인에게 어서 성례를 시켜 주라고 하지만, 장인이 반박하자 또 그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장인이 귓속말을 한 후 '나'에게 겁을 주면서 회유하는 것으로 볼 때, 구장이 마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나'는 대가 없이 일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역을 같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장의 말에 겁을 먹는 모습을 통해 '나'가 어리숙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③ 구장은 마름인 장인에게 땅을 얻어 부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인이 시키는 대로 '나'에게 말한다. ④ 장인은 계약과 달리 성례를 시켜 주지 않으면서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이로 보아 교활하고 인색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⑤ 문태는 상황을 간파하고 있지만 '나'는 문태의 말을 믿지 않는데, 이를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12 '나'와 장인이 대립하던 중에 장인이 '나'의 뺨을 때린 현재의 상황에서, 장인이 던진 돌맹이에 맞아 '나'가 태업을 하자 장인이 성례를 시켜 준다고 '나'를 회유했고 '나'가 이에 넘어갔던 '작년 이맘때'의 사건을 회상한다. 이를 통해 '나'가 점순이와의 성례를 조건으로 장인의 집에서 일을 해 주고 있음이 드러나며, '나'와 장인, '나'와 점순이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현재 사건을 서술하다가 '작년 이맘때'의 사건, '그 전날'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치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일상적인 구어체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서술자인 '나'는 자신이 겪은 일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⑤ '나'는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 전해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3 점순이는 '나'에게 "밤낮 일만 하다 말 텨가!"라고 종알거리며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쓰아붙인다. 이는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나'가 성례를 할 생각 없이 일만 한다는 것도, 점순이가 그러한 '나'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성례를 미루는 장인과 같다. ② 점순이는 '나'에게 "밤낮 일만 하다 말 텨가!"라고 종알거리며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쓰아붙인다. 이로 볼 때 점순이는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나'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장인의 농사일을 해 주기 때문에 장인이 '나'에게 큰소리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⑤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음의 배참 덕 마름으로 더 잃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 점순이의 말을 듣고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하는 '나'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나'가 점순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가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몰랐다는 것을 통해 점순이의 반응이 뜻밖임을 알 수 있다. ② [A]는 점순이가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라고 말한 이후의 '나'의 반응에 해당한다. ④ 점순이의 말을 들은 '나'는 봄에 '온갖 초목이 물이 울리고 씨이 트는 것처럼 점순이도 '자란 듯싶다'고 했다. ⑤ 봄의 계절적 특징을 제시하며 점순이도 '자란 듯싶다'는 '나'의 생각을 보여 주고 있다.

15 텨버거리는 점순이의 성격은 '감참외'와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감참외'는 점순이를 비유한 대상(①)으로, '우아레가 몽푹한 것이' '나'의 눈에 '감참외' 같다고 했으므로, 점순이의 생김새와 관련된다(②). 또한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이쁘다'는 것으로 보아 점순이에 대한 '나'의 애정을 '감참외'로 드러냈으며(④), 점순이에 대한 '나'의 인상을 보여 주는 것(⑤)이라 할 수 있다.

16 ㉡은 '나'가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점순이의 불만으로, '나'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비난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장인은 '나'가 일을 안 하면 자신의 농사에 지장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성례를 빌미로 '나'에게 일을 시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다. ②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작다는 것을 내세워 성례를 시켜 달라는 '나'에게 면박을 주고 있다. ③ '나'는 애꿎은 장인의 소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 ⑤ 점순이는 '나'에게 성례를 재촉할 것을 부추기는데, '나'는 '그럼 어떡'이라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 '밭'에서 '나'는 점순이의 키를 보고 생긴 울화를 소에게 풀고 있다. 하지만 점순이는 '나'의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장인은 마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작농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많았다면 소작농들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가을'에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을 것이다. ② 성례를 시켜 준다는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나'는 '논'에서 남들이 이를 걸릴 일을 하루에 해치우는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다. ③ '화전밭'에서 '나'는 생동하는 봄 풍경에 힘쓸려 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울렁거리며 노래를 하는 등 분위기에 취한 모습을 보여 준다. ⑤ '이날'은 '나'가 점순이도 자신과 성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46-147쪽

01 절정과 절정 사이에 결말을 배치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의 해석성을 극대화시켜 보여 주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02** '나'는 성례를 미기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교활한 장인과 싸움을 벌이지만, 장인의 회유에 넘어가 다시 일을 하러 가는 것으로 보아 어리숙하고 순박한 인물이다. **03** 점순이가 제 아버지를 혼내 주라고 했으니 내 편을 들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장인님의 편을 들다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군. **04** 마름인 장인이 '나'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작가는 이렇게 마름이 약자를 착취하는 수탈의 상황을 '나'와 장인을 통해 해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1 사건이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나'와 장인의 몸싸움이 벌어진 절정 부분이며, 중간에 결말, 즉 '나'와 장인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 장면을 배치하고 있다.

02 '나'는 점순이와 혼인을 시켜 주겠다는 장인의 약속을 믿고 대가 없이 일을 해 주다가 언제 혼례를 시켜 줄 것이냐고 따진다. 이로 인해 '나'와 장인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지만, 결국 '나'는 장인의 회유에 넘어가 다시 일을 하러 나간다.

03 '나'는 점순이가 자기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장인의 편을 들며 울자, 망연자실하여 장인이 때리는 것도 피하지 않고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쳐다본다.

04 마름인 장인이 자신의 딸과의 혼인을 빌미로 약자인 '나'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성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01 주인공인 '나'의 회상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07 '나'는 이미 데릴사위로 들어온 상태로, 장인은 점순이와의 성례를 구실로 '나'를 머슴처럼 부린다.
- 08 장인은 '나'에게 돈을 주지 않고 '나'를 머슴으로 부리기 위해, 점순이의 키가 작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 점순이와의 성례를 허락하지 않는다.
- 15 구장은 장인이 귓속말을 하고 간 이후 '나'를 협박하고 회유한다.
- 16 구장은 자신이 마름인 장인의 땅을 얻어 부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장인에게 유리하게 말한 것이다.
- 17 '나'는 장인에 관한 문태의 말을 믿지 않는다.
- 18 점순이는 '나'에게 장인의 수염이라도 잡아채라고 말하는데, 이는 '나'더러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이지 장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5

서로 다른 시선, 함께 찾아가는 삶

01. 주제 통합적 읽기

기출 실전 문제

- 01 ② 02 ④ 03 ② 04 ⑤ 05 ⑤ 06 ③ 07 ① 08 ④
 09 ② 10 ⑤ 11 ① 12 ② 13 ① 14 ③ 15 ③ 16 ⑤
 17 ① 18 ② 19 ①

- 01 (마)에 윤리적 소비의 의의가 제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는지에 따라 소비와 얽힌 여러 관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 환경, 인권, 노동 문제 등의 변화를 추구하는 윤리적 소비의 실천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윤리적 소비의 개념과 의의, 윤리적 소비가 확대되는 상황,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윤리적 소비의 한계는 확인할 수 없다. ③ (다)에서 환경 단체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윤리적 소비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윤리적 소비 단체의 종류는 확인할 수 없다. ④ (다)에서 윤리적 소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윤리적 소비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윤리적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나라는 제시되지 않았다. ⑤ (라)에서 윤리적 소비에 앞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후 변화, 동물 복지, 노동 문제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윤리적 소비 양상이 두드러지는 분야는 제시되지 않았다.
- 02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소비의 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① 윤리적 소비에 부합하는 소비 활동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윤리적 소비에서 소비자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소비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다. 그러나 윤리적 소비가 등장하기 전에 소비자는 시장 경제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객체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소비의 목적이 개인의 만족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⑤ 윤리적 소비를 통해 소비자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03 (나)에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작동 원리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포괄하는 중심 내용은 아니다. (나)의 중심 내용은 '윤리적 소비의 등장'으로, 이는 '소비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에서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가)는 새로운 소비 경향을 나타내는 윤리적 소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③ (다)는 윤리적 소비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달리 점차 윤리적 소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④ (라)는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⑤ (마)는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는지에 따라 소비와 얽힌 여러 관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 환경, 인권, 노동 문제 등의 변화를 추구하는 윤리적 소비의 실천이 중요함을 말하며, 윤리적 소비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04 윤리적 소비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윤리적 소비라 할 수 없다.
- 오답 해설** ① 공정 무역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윤리적 소비에 해

당하며, 소비자가 노동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② 노동 인권을 지키지 않는 회사의 제품을 불매하는 것은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부정적 구매 행동이므로, 윤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다. ③ 동물 복지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 사례에 해당한다. ④ 기후나 환경 문제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 사례에 해당한다.

05 투표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소비를 투표에 비유한 것은,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소비의 사회적 의미를 제시한 것이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소비를 통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소비에 담긴 사회적 쟁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소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현명하게 소비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소비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를 드러낼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가)에서,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거나 개발 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는 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것이 윤리적 소비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윤리적 소비란 윤리적 가치에 따른 소비를 의미하므로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소비가 투표와 같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② (다)에서 윤리적 소비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달리 윤리적 소비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윤리적 소비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자 운동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소비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 즉 윤리적 소비가 나타났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7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윤리적 소비의 개념과 의의를 밝히고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의 다양한 실천 방법이 글쓴이의 주장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가)에서 윤리적 소비에 대해 소개하여 화제와 관련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윤리적 소비가 등장하기 전 소비자의 역할과 윤리적 소비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교를 통해 윤리적 소비가 지향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④ 윤리적 소비 관련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으나 자료의 출처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윤리적 소비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윤리적 소비 관련 물품 구입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08 기존에는 합리적 소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경제적 합리성이었으나, 최근에는 가심비, 가치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오답 해설 ① 합리적 소비의 판단 기준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문제 상황을 통해 합리적 소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② 합리적 소비 기준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합리적 소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라)에서 심리적 만족감이나 가치관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경제 수준을 벗어나는 소비를 하는 것은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⑤ 현대인들의 소비를 통해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다양해졌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9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다양하다고 했으므로, 합리적 소비를 윤

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비에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과거에 경제적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라)에서는 최근의 소비 경향은 경제적 합리성만으로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요즘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중시하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의 충족 여부라고 했다. ④ 기존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심리적 만족감, 자신의 가치관 등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했다. ⑤ (라)에서 심리적 만족감과 가치관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경제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는 것은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10 (나)에서 가심비에 따라 소비하는 사람들은 가격이나 품질보다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라)에서는 그것을 위해 자신의 경제 수준을 벗어나는 소비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라)에서 경제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는 것은 합리적 소비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라)에서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다양하다고 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도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나)의 '요즘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중시하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의 충족 여부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는 취향에 따른 소비를, (다)에서는 가치관에 따른 소비를 제시하고 있다.

11 ㉠이 가격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은 개인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주관적인 기준이다.

오답 해설 ②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이 아닌 ㉡이다. ③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은 ㉠이 아닌 ㉡이다. ④ ㉠이 아닌 ㉡이 최근의 소비 경향과 관련이 있다. ⑤ 세대에 따른 소비 기준은 확인할 수 없다.

12 '가안비'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등장한 말로, <보기>에는 합리적 소비의 또 다른 기준인 건강과 안전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코로나19를 사회적 위기라고 볼 수 있으나, <보기>에서는 이로 인해 등장한 소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위기가 닥쳐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서는 비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소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용을 많이 지불할수록 소비자의 만족감이 증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에서는 건강과 안전이라는 소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소비하는 경향이 늘어났음을 보여 주면서 합리적 소비의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3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했던 과거와 달리 합리적 소비에 대한 기준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후, 그 이유를 (나)와 (다)에서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심리적 만족감에 따라 소비를 하는 예를, (다)에서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에서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충족하는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심리적 만족감에 따른 소비라 할 수 있다. ③ (가)에서 기존에는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상품, 즉 경제적 합리성을 합리적 소비의 기준으로 여겼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⑤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다양해졌다는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

14 환경·사회·지배 구조를 중시하는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지구와 환경, 기후를 고려하고 투명한 경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다)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기후, 환경 문제가 심각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② '알이백', '이에스지 경영'은 지구를 위협하는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경영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④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적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다. ⑤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한 것은 환경과 기후를 위한 방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가치관을 가진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5 (나)에서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경험, (다)에서 접시와 관련된 경험, (라)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하루를 보내기 힘들었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마)에서는 우리가 소비의 편리함에 길들여졌으나 이러한 삶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므로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최소한의 소비 실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비 활동에 담긴 사회적 의미는 확인할 수 없다. ②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의 의미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글쓴이가 깨달은 바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므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주장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현대인들이 소비의 편리함에 길들여졌다는 내용은 (마)에 제시되어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비 형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블랙 프라이데이는 소비를 부추기는 시기이지만,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제시되지 않았다.

16 (마)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산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대규모 쇼핑 기간으로,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서 기업들이 소비를 부추겨 매출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시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글쓴이는 (라)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하루를 보내기가 힘들었던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며, (마)에서 우리가 소비의 편리함에 길들여졌다고 보고 있다. ③ (마)에서 좀 낯설고 번거롭더라도 소비하는 삶보다 지속 가능한 삶 쪽으로 방향을 틀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④ (가)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반동으로 과도한 소비가 언제까지고 가능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했다.

17 블랙 프라이데이는 기업들이 소비를 부추겨 매출을 올리려는 상업적인 목적이 두드러지는 대규모 쇼핑 기간이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이 등장한 것이지, 기업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③ 블랙 프라이데이는 현대인의 소비 실태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이 생겼다는 것은 지나친 소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④ 지나친 소비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덜 소비하는 삶에 대한 지향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⑤ 지나친 소비, 과도한 소비에 대한 반동으로 생겼으므로, 그러한 소비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18 블랙 프라이데이가 과도한 소비와 관련된 것이라면, 세이모어의 삶은 꼭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는 간소한 삶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이들은 소비에 대한 상반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글쓴이는 현대인들이 소비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그릇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며 꼭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는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준다. 따라서 글쓴이의 행동을 비판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과 세이모어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며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하지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확인할 수 없다. ④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제시하는 수필이므로,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읽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꼭 필요한 것에 대한 글쓴이의 성찰과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지만,

소비 철학을 지녀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9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과도한 소비에 대한 반동이라면, 미니멀 라이프는 꼭 필요한 것만을 지님으로써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 둘은 과도한 소비를 지양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삶을 단순화시켜야만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세이모어가 침대를 접어 소파로 만들어 사용하는 모습에서 그가 꼭 필요한 물건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글쓴이는 그러한 세이모어의 모습에서 고귀한 삶의 방식을 발견한다. ③ 미니멀 라이프는 최소한의 소유를 통해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소비가 일상이 된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한다. ④ 미니멀 라이프는 물질의 소유를 최소화하는 삶으로, 글쓴이는 그릇과 관련된 경험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과 필요함의 기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물질의 소유를 최소화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로, 미니멀 라이프가 추구하는 바와 유사하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60~165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①	05 ③	06 ⑤	07 ④	08 ⑤	
09 ①	10 ③	11 ②	12 ④	13 ⑤	14 ②	15 ②		

01 (나)의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며 소비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삶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의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자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개인의 주관적 태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에서 윤리적 소비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서 낯설고 번거롭더라도 소비하는 삶보다 지속 가능한 삶 쪽으로 방향을 틀어 보는 건 어떠한지를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 (나)의 글쓴이는 찬장에 있는 많은 접시 중에 자신이 사용하는 접시는 열 개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은 몇 가지나 되는지, 필요한 것의 기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릇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물건이 흔치 않던 시절에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다녀왔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그릇 중에 정작 사용하는 것은 열 개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아무것도 사지 않는 하루를 보내려면 도사락, 음료 등 필요한 것을 챙겨 다녀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밖에서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 회의를 하느라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3 (가)를 통해, 소비자가 과거에는 소비 시스템의 객체였다면 윤리적 소비가 등장한 이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주체로 그 성격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만족감을 위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윤리적 소비는 당연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이므로, 소

비자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②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윤리적 성격을 가진 상품을 구매하거나 비윤리적 성격을 가진 상품을 불매하는 것으로 실천할 수 있다. ③ 윤리적 소비는 대안적 소비 활동이자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자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기존의 소비자가 소비 시스템의 객체였다면, 윤리적 소비가 등장한 이후의 소비자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

04 고양이 카페는 고양이를 테마로 한 공간이지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재생 섬유로 만든 옷을 구입함으로써 생산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줄이려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옷을 오래 입음으로써 옷으로 인한 쓰레기를 줄여 궁극적으로는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어린이 노동력을 착취한 브랜드를 불매하는 것은 어린이 인권, 노동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한 것이다. ⑤ 지역 생산품을 구입하면 운송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한 것이다.

05 (나)에서는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소비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과잉 소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윤리적 소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나)는 최소한의 소비 실천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 제시된 윤리적 소비는 소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자 운동이다. ④ (가)는 윤리적 소비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고, (나)는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소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 글이다. ⑤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하면 소비라는 공통된 화제를 다룬 (가)와 (나)를 읽고 소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할 수 있다.

06 ①은 가격보다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선택이 만족감을 높여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③은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입했을 때 만족감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시함을 알 수 있다. ③ ⑥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제품을 구매했을 때 만족감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했다. ④ ⑥은 가격과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제품을 구매했을 때 만족감을 느낄 것이라 했다.

07 (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소비의 합리성을 가능하던 기존의 관점과 달리 최근에는 심리적 만족감, 윤리적 가치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을, (나)는 윤리적 소비의 개념과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경제적 합리성, 심리적 만족감의 충족 여부 등을 합리적 소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윤리성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는 합리적 소비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는 윤리적 소비의 개념과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③ (나)는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합리적 소비는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합리적 소비의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⑤ (나)는 윤리적 소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합리적 소비에 대한 기준을 경제적 합리성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08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은 제품은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가심비를 중시하는 사람들도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로 볼 때, 사회적으로 승인받은 제품을 선택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려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가)로 볼 때, 그러한 제품이 자신의 가치관과 개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다. ② 윤리적 소비에 대한 경험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나누는 것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윤리적 소비 실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불공정 무역 제품에 대한 정보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공유된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불매가 늘어날 것이다. ④ <보기>를 참고하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09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소비를 하고 그러한 소비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윤리적 가치를 지닌 제품도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꼭 윤리적 가치를 지니지 않아도 디자인이나 가격, 가성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것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③ 가성비를 중시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합리성을 판단한 것에 해당한다. ④ 윤리적 소비가 등장한 이후 소비자는 자신의 윤리적 신념에 따라 소비 생활을 하며 사회 문제를 실천하려는 적극적인 주체로 변모했다. ⑤ 제품의 가격보다 제품이 지닌 윤리적 가치나 그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10 <보기>에 따르면 공정 무역은 불공정 무역 구조로 인한 부의 편중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이다. 따라서 생산자가 무역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공정 무역은 환경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형태이자 사회 운동이라고 했으므로, 공정 무역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환경 문제에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② 공정 무역이 지향하는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불공정 무역으로 생산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④ 노동력에 대한 보상과 노동 인권 보장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어떤 무역 구조로 생산된 제품인지를 먼저 고려할 것이다. ⑤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공정 무역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생산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기를 바랄 것이다.

11 (나)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설득력을 높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세이모어의 다큐멘터리를 본 경험, 그릇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최소한의 소비 실천에 대한 반성을 드러낸다. ③ (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 윤리적 가치의 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④ (가)는 세이모어와 사사키 후미오의 집, (나)는 긍정적 구매 행동과 부정적 구매 행동을 예로 들고 있다. ⑤ (나)는 개인의 주관적 태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 소비를, (다)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합리적 소비를 보여 주고 있다.

12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며, 세이모어의 삶은 꼭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는 간결하고 소박한 모습이다. 법정 스님과 세이모어는 꼭 필요한 것만을 지니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소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세이모어는 침대를 접어 낮에는 소파로 활용하고 밤이 되면 다시 침대로 활용한다. 소파와 침대를 모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물건을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소박한 생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글쓴이는 자신이 사용하는 접시의 개수에 비해 소유하고 있는 접시의 개수가 많다는 것을 깨달고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을 생각해 본다. ③ 물건을 적게 소유하고 있는 세이모어와 달리 글쓴이는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는 그릇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소비하는 삶에 대해 성찰한다. ⑤ 글쓴이는 소박한 세이모어의 삶에서 고귀함을 느꼈으며, 자신이 쓰지도 않는 그릇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음을 깨달고 난 후 '내게 필요한 물건은 몇 가지나 되며,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은 뭘까 생각해' 본다.

13 ㉓는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다. 즉, 소비에 있어 제품의 가격보다 윤리적 가치의 실현 여부를 중시한다.

오답 해설 ①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은 가격보다 윤리적 가치의 실현을 중시하는 것이지, 비싼 제품일수록 더 많이 사려는 것은 아니다. ② 가성비보다 소비를 통한 윤리적 가치의 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③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공정 무역 제품이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한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확대될수록 윤리적 소비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윤리적 소비에서는 심리적 만족감이 아니라 윤리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다. ④ 소비에서 심리적 만족감보다 윤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다.

14 ㉑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오답 해설 ① ㉑은 소비자의 우선순위에 맞는 제품, 윤리적 성격을 가진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③ ㉑은 비윤리적 성격을 가진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제품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불매함으로써 환경을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내는 것을 ㉑의 예로 들 수 있다. ⑤ ㉑과 ㉒은 자신의 가치관, 우선순위에 따라 무엇을 구입하고 구입하지 않을 것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15 (가)는 최소한의 소비를 실천하는 삶을, (나)는 윤리적 소비를, (다)는 합리적 소비의 다양한 기준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보기>는 소비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행위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소비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그것의 실천은 소비의 절제나 윤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바람직한 소비 문화의 정착을 위해 윤리적 소비를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은 자신의 개성 표현이나 자기표현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의 소비가 아니라 일차적인 소비 욕구라고 할 수 있다. ③ (가)~(다)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태도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는 소비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 언급된 개인적 선택으로서의 소비와 관련된다. ④ 친환경 제품이나 공정 무역 제품은 그것이 지닌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그러한 소비를 전염시킬 수 있다. ⑤ 개성을 드러내는 제품은 일차적인 소비 욕구를 넘어서 자기표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66-167쪽

- 01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윤리적 소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 02 이 글은 가격보다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는 소비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했지만, <보기>에 따르면 자신의 경제적인 수준을 넘는 소비는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윤리적 소비를 하더라도 경제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윤리적 소비도 좋지만 경제 활동에서 자신의 경제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03 소비에 앞서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다.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것을 소유한 적은 없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04 글쓴이는 ㉑, ㉒과 같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는 소박하고 간결한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01 윤리적 소비의 개념을 밝히면서, 윤리적 소비에 있어서 소비자의 역할이 능동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02 (가)에서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면, <보기>는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다양해졌으나 자신의 경제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03 (가)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나)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을 소유한 삶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관점에서는 소비에 앞서 그것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04 글쓴이는 ㉑이 소박한 공간에서 꼭 필요한 것만 지니고 살아가는 삶을 보며 고귀함을 느낀다. 또한 ㉑의 '무소유'는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세이모어, 사사키 후미오가 보여 주는 삶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68-169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03 윤리적 소비는 개인의 주관적 태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4 윤리적 성격이 아닌 비윤리적 성격을 가진 상품의 구매를 자제하거나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불매 운동을 벌이는 '부정적 구매 행동'을 통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도 있다.

11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최근의 소비 경향은 경제적 합리성만으로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3 블랙 프라이데이는 대규모 쇼핑 기간으로,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서 기업들이 소비를 부추겨 매출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기업들의 판매 전략과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과도하게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15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8 동일한 화제를 다룬 글이나 자료도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정보를 제시하거나 화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02.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 03. 논증하는 글 쓰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72-177쪽

- 01 ③ 02 ② 03 ⑤ 04 ⑤ 05 ① 06 ③ 07 ⑤ 08 ③
 09 ⑤ 10 ④ 11 ④ 12 ③ 13 ⑤ 14 ⑤ 15 ④ 16 ③
 17 ③ 18 ①

01 (가)의 지도 교사의 말을 통해, 학교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가사실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당 공간의 이용 권한과 동아리 지원금을 주기로 했고,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신청서를 낸 상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협상의 쟁점은 가사실 공간과 동아리 지원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사실 개방 시간을 결정하는 협상이 아니라 가사실 공간과 동아리 지원금의 사용 여부에 관한 협상이다. ② 학교에서는 가사실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당 공간의 이용 권한과 동아리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신청서를 낸 두 동아리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④ 가사실을 실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제과·제빵 동아리의 입장이다. ⑤ 가사실 이용 순서가 아니라, 가사실 공간과 동아리 지원금의 사용을 두고 두 동아리가 협상하고 있다.

02 (가)는 협상의 시작 단계이다.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상대방의 관점을 반박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⑤), 또한 서로의 입장과 목표를 밝히며(③), 문제가 되는 지점을 확인한다(④).

03 ㉠과 ㉡은 모두 가사실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가사실 이용 권한과 동아리 지원금을 받고 싶어 하므로, 가사실 관리에 부담을 느낀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은 가사실을 빵을 굽고 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② ㉡은 현재 학교에 실습할 공간이 없어서 다른 학교의 실습실을 빌릴 수 있을 때만 실습을 할 수 있는 상황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③ ㉠은 도서관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음을 제시하며 가사실을 책 읽는 공간으로 만들고 지원금으로 새 책을 구입하고자 한다. ④ ㉡은 가사실이 도서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04 도서부에서는 현재 동아리 시간에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며,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가사실을 사용하면 동아리 활동을 준비하는 동아리 부원들로 인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이 독서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오답 해설 ① 도서부에서는 가사실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② 제과·제빵 동아리는 소음 문제를 우려하는 도서부의 말에 방음 시설을 설치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③ 제과·제빵 동아리에서는 자신들이 가사실을 사용한다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과자와 빵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다. ④ 제과·제빵 동아리에서는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음료를 판매한다면 매점 설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도서관 이용률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05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오답 해설 ② 협상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므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토의에 관한 설명이다. ④ 패널 토의에 관한 설명이다. ⑤ 토론에 관한 설명이다.

06 ㉢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07 (다)는 협상의 조정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상호 검토하며 입장 차이를 좁혀 가게 된다. 해결책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는 것은 해결 단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도서부에서는 가사실을 책 읽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원금은 새 책을 사는 데 쓰기를 원하며, 제과·제빵 동아리에서는 가사실을 실습 공간으로 사용하고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입하기를 원한다. ② 가사실 공간과 동아리 지원금을 두고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가 갈등하는 상황이다. ③ (나)에서 제과·제빵 동아리는 자신들이 가사실을 사용하면 해당 공간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며 도서관 이용자에게 간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도서부에서는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와 같은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④ (다)에서 지도 교사는 제안 및 대안을 상호 검토하여 조정된 내용에 대해 '도서관 이용률도 높이고, 제과·제빵과 관련하여 잠재적 고객들의 평가도 받아 볼 수 있다'며 평가하고 있다.

08 (가)를 통해,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원하는 것은 가사실을 빵을 굽고 시식하는 동아리실로 활용하고,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입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제과·제빵 동아리에 따르면, 현재 학교에는 실습을 위한 공간이 없어 동아리 시간에 다른 학교 실습실을 이용한다. 따라서 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실습실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② 제과·제빵 동아리는 가사실을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사용하고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입하면 동아리 구성원들의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가사실 공간에 대한 언급 없이 동아리 지원금에 대한 입장만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제과·제빵 동아리에서는 가사실을 빵을 굽고 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지원금으로는 오븐을 사겠다고 했다. ⑤ 가사실을 옮긴다는 제안은 (가)에서 확인할 수 없다.

09 제과·제빵 동아리는 동아리 시간에 자신들이 가사실을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도서부가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답 해설 ① 제과·제빵 동아리는 가사실을 동아리실로 쓸 수 있다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서관 이용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② 동아리 활동 준비로 소음이 발생하면 도서관에서 책 읽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도서부의 말에, 제과·제빵 동아리는 방음 시설을 설치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③, ④ 도서관 이용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겠다는 제과·제빵 동아리의 말에, 도서부는 지금도 간식을 주면서 도서관에 자주 오도록 격려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면서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10 제과·제빵 동아리는 가사실을 실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입하기를 바랄 뿐, 가사실 사용을 매점을 대신할 공간 확보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자는 도서부의 제안에 제과·제빵 동아리는 그렇게 되면 가사실을 양측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② 가사실을 동아리 시간에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사용하는 대신 그 외의 시간에 독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도서부 측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제과·제빵 동아리는 자신들의 입장, 즉 가사실을 실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입한다는 것에는 양보를 하고 있지 않다. 대신 도서관 이용 학생들에 대한 간식 제공, 동아리 시간 이외에 도서부의 가사실 사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⑤ (다)에서 제과·제빵 동아리는 음료 판매 수익금을 새 책을 구입하는 데 쓰자고 제안하는데, 이는 도서부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의 입장은 (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제과·제빵 동아리가 원하는 것은 동아리 실습을 할 수 있

는 공간과 오븐이다.

오답 해설 ① 제과·제빵 동아리의 제안으로, 도서부가 제과·제빵 동아리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② 협상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다. ③ 도서관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도서부의 입장이다. ⑤ 도서부에서 소음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자,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방음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12 이 글에서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와 (다)에서 각각 주장에 대한 이유(개인에게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중요함, 개인 정보 유출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짐.)와 근거(유럽 연합은 2018년에 개인 정보 보호법을 채택하면서 제17조에 '삭제권'을 명시함,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 시행 두 달 만에 3,488건의 삭제 요청이 접수됨.)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한 사례는 제시하고 있으나, 글쓴이의 경험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에서 잊힐 권리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잊힐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④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한 것, 유럽 연합이 삭제권을 명시한 것을 제시하여 우리나라도 잊힐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전문가의 견해는 제시되지 않았다.

13 현실적으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기 어려운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가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라)에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삭제 요청 건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잊힐 권리의 법제화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에서 헌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가 예측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없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4 (가)에서 우리나라는 피해가 분명한 불법 정보는 임시로 차단하거나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요청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나)에서 삭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예측 가능한 피해도 예방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피해 가능성이 있는 불법 정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삭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② (나)에서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있다고 했다. ③ (가)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고 했으며, (다)에서 개인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문제가 된다고 했다. ④ (나)에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전달되는 인터넷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찾고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15 주장하는 글에서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이다. 그런데 ④에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문제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② 이유는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해 주는 주관적 요인이다. 따라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공개할 권리만큼 중요하다는 의견은 이유로 적절하다. ③ 잊힐 권리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주장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이유에 해당한다. ⑤ 근거가 객관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삭제 요청 건수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6 반론은 논증에서 사용한 전제나 근거를 동일하게 사용하되 전혀 다른 입장을 도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논법이다.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자가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이 글에서 사용한 근거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도출한 상반된 입장이라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잊힐 권리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반론으로 적절하다. ④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잊힐 권리의 필요성과 상반된 주장을 제시했으므로 반론으로 적절하다. ⑤ 유럽 연합에서 삭제권을 인정했다는 것을 근거로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주장한 이 글과 달리, 유럽 연합과 관련된 근거를 통해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반론으로 적절하다.

17 ㉔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온라인 서비스의 발달로 개인 정보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의식에 해당한다. ②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의 잊힐 권리 인정은, 잊힐 권리가 등장한 배경인 외국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개인 정보 삭제권이 필요하다는 이유의 근거에 해당한다. ⑤ 개인 정보 유출 피해 예방 방안 마련의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다는 이유의 근거에 해당한다.

18 온라인 서비스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커진 상황을 제시하며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한 사례를 통해 잊힐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잊힐 권리의 법제화가 가져올 다양한 기대 효과는 서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가)의 '개인 정보의 침해나 악용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라)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78-183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②	05 ②	06 ⑤	07 ③	08 ①	
09 ⑤	10 ④	11 ③	12 ⑤	13 ④	14 ⑤	15 ④	16 ③	
17 ⑤	18 ⑤							

01 제과·제빵 동아리와 도서부가 가사실 사용 권한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으나, 학교 측에서 해당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기를 바라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지도 교사와 동아리 부장은 제과·제빵 동아리이고, 도서부장과 사서 교사는 도서부이다. ② 가사실을 어느 동아리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두고 제과·제빵 동아리와 도서부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③ (가)에서 동아리 부장이 "저희가 이 공간을 사용한다면 용도에 맞게 가사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 사서 교사가 가사실을 스테디 카페처럼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지도 교사는 이에 찬성하고 있다.

02 (가)에서 동아리 부장은 첫 번째 발언에서 '가사실은 조리 시설과 수도 시설을 갖춘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해당 공간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동아리 부장이 첫 번째 발언에서 현재 학교에는 관련 수업이 없어 가사실이 방치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동아리 부장이 두 번째 발언에서 '학생회에서도 학교에 매점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도서부장이 첫 번째 발언에서 '동아리 시간에는 우리 도서부도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동아리 부장이 두 번째 발언에서 도서관 이용자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것이라고 하자, 사서 교사는 간식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한다.

03 동아리 활동을 준비할 때 소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도서관의 말에 제과·제빵 동아리는 방음 시설을 설치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소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동아리 부장은 두 번째 발언에서 '책은 음료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구입하면 어떨지' 제안하고 있다. ② (가)에서 동아리 부장이 두 번째 발언에서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 주고 음료도 함께 판매한다면 매점 설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동아리 부장은 첫 번째 발언에서 '동아리실은 동아리 시간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지금과 같이 조용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⑤ (나)에서 동아리 부장은 두 번째 발언에서 '가사실을 책 카페로 만들어 간식을 먹으면서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자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이용권과 특별 간식을 제공하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04 (가)에서 도서관장은 소음이 발생하여 도서관을 활용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고 있으나, 그 문제에 대해 제과·제빵 동아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동의를 보류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동아리 활동을 준비한다고 동아리 부원들이 ~ 독서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④ (나)의 "매점이 없는 우리 학교에 간식을 먹거나 ~ 일거리가 늘어나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가)의 "동아리 시간에 제과·제빵 동아리가 실습하면 ~ 우리 도서관의 몫이 되지 않을까요?"를 통해 알 수 있다.

05 협상을 통해 두 동아리는 가사실을 제과·제빵 동아리의 동아리실로 활용하고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입하되, 가사실을 책 카페(㉠)처럼 만들어 동아리 시간 이외(㉡)에는 도서관에서 이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간식을 제공하고 책상을 치우는 일은 학생회와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도와주기로 하였다.

06 협상을 할 때에는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먼저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와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협상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협상이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책임감 있게 수용해야 한다. ③ 협상은 갈등 상황에서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므로, 타협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④ 협상에서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 가능 영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07 제과·제빵 동아리는 도서관에 책 읽을 공간이 부족하고 새로운 책이 별로 없다는 도서관의 입장을 파악했다. 하지만 도서관이 이미 책 읽는 공간으로 활용할 공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동아리 부장이 첫 번째 발언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새로운 책을 구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동아리 부장이 첫 번째 발언에서 "저희가 이 공간을 사용한다면 용도에 맞게 가사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 동아리 부장이 첫 번째 발언에서 '가사실은 조리 시설과 수도 시설을 갖춘 공간'이며 제과·제빵 동아리가 '이 공간을 사용한다면 용도에 맞게 가사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나)

에서 동아리 부장이 첫 번째 발언에서 "동아리실은 동아리 시간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지금과 같이 조용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08 (가)는 협상의 시작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또한 서로의 입장과 목표를 밝히며 문제가 되는 지점을 확인한다.

오답 해설 ②, ④, ⑤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③ 협상의 해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09 제과·제빵 동아리에서는 자신들이 가사실을 사용하고 동아리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입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제과·제빵 동아리 측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간식을 제공하면 매점 설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도서관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매장 매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자신들이 매점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② 제과·제빵 동아리가 아닌 도서관이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와 같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도 생기고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③, ④ 도서관은 제과·제빵 동아리가 가사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하여 뒷정리가 자신들의 몫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제과·제빵 동아리는 그러한 생각이 편견임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가사실이나 조리실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대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0 제과·제빵 동아리는 가사실을 동아리실로 사용하고 동아리 지원금으로 오븐을 사겠다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동아리 시간 이외에는 도서관에서 가사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따라서 동아리 시간에 도서관에서 가사실을 이용하기로 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사실 공간과 동아리 지원금을 두고 도서관과 제과·제빵 동아리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② 제과·제빵 동아리는 가사실을 동아리실로 활용하고 지원금으로는 오븐을 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③ 도서관은 책 읽을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가사실을 학생들이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⑤ 도서관은 간식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데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면 학생들이 책을 더 많이 읽고 대화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1 유럽 연합의 사례, 개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잇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오답 해설 ① '신상 털기'는 개인의 정보가 침해된 사례에 해당하지만 이는 주장의 근거로, 개인 정보 침해 사례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글의 목적은 아니다. ②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있다는 것, 헌법 제17조의 내용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글의 목적은 될 수 없다. ④ 우리나라도 피해가 분명한 불법 정보는 임시로 차단하거나 그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게시 당시 기준으로 불법 정보가 아닌 경우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밝히며 잇힐 권리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을 뿐, 불법 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하는 것은 아니다. ⑤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주장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온라인 서비스 발달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12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가 2014년에 잇힐 권리를 인정했다는 내용을 (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것이 잇힐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잇힐 권리란 정보 주체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우려되거나 지워지길 원하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에서 잇힐 권리 사범 사업에 접수된 삭제 신청 건수를 언급하여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③ (나)와 (다)에서 개인에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④ (다)에서 잊힐 권리 시범 사업에 예로 들어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13 2014년에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에서 잊힐 권리를 법제화했다는 것, 2018년에 유럽 연합이 삭제권을 명시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든 나라에서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전달되는 인터넷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찾고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2014년에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가 잊힐 권리를 인정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에서 우리나라도 피해가 분명한 불법 정보는 임시로 차단하거나 그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에서 잊힐 권리 시범 사업에 3,488건이나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14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이다.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이 드러난 글은 수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주장하는 글은 어떤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로, 내용이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예상할 수 있는 반론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③ 주장하는 글에서는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④ 주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논증 방법과 설득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15 근거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인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3,488건의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음을 근거로 들어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헌법 제17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에서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가 2014년 잊힐 권리를 인정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변화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나)를 통해 2018년 유럽 연합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채택하면서 삭제권을 명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결정의 사회적 배경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다)에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3천 건이 넘는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을 급히 도입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6 우리나라에서 삭제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예측할 수 있는 피해도 예방할 수 없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삭제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잊힐 권리란 정보 주체가 자신에게 해로울 것이 우려되거나 지워지길 원하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2014년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우리나라에서 삭제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예측할 수 있는 피해도 예방할 수 없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잊힐 권리 시범 사업에 접수된 삭제 요청 건수를 통해 알 수 있다.

17 (라)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시 정리·요약하고 있으나,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한 외국의 경우와 법제화하지 않은 우리나라를 비교하며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② 삭제권이 보장되어야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에 접수된 삭제 요청 건수를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④ 이유는 글쓴이가 내세우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으로, (나)의 개인에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 (다)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에 해당한다.

18 <보기>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에서 아동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작 삭제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시범 사업이 그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는 시범 사업의 대상인 아동이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서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의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이지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아동이 스스로 잊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잊힐 권리는 개인 정보 보호법과 지향하는 바가 같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는 미성년자인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을 통해야 그것이 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서담·서술형 문제

본문 184~185쪽

01 협상의 조정 단계로,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상호 검토하며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02** 양측이 자기 주장만 내세웠다면 결론이 나지 않고 다툼만 발생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면 상호 이익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양측에 최선의 결과를 줄 수 있다. **03** • 주장: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 • 이유: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중요하다. • 근거: 유럽 연합은 2018년에 개인 정보 보호법을 채택하면서 제17조에 '삭제권'을 명시하였다. **04**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가)에는 글쓴이의 주장이, (나)에는 그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나타난다. (다)는 '다음으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로 볼 때 ㉡는 글쓴이의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인 이유이고, ㉢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이다.

01 제과·제빵 동아리는 소음 발생을 우려하는 도서부의 견해에 방음 시설을 설치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자신들이 가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한다. 이에 대해 도서부는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지는 못한다며,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와 같은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양측이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협상의 조정 단계임을 알 수 있다.

02 협상은 갈등 상황에서 서로가 만족하는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방의 관심사나 요구를 파악하고,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정한 후 양측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다.

03 '주장'은 글쓴이가 내세우는 의견이고, '이유'는 그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이다.

04 (가)와 (나)는 주장하는 글로, 글쓴이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

하는 이유, 근거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다)는 '다음으로'라는 표지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에는 (나)에 제시된 것처럼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이어져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86~18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02**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자신에게뿐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 05**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 07** 제과·제빵 동아리는 가사실을 제과·제빵 동아리실로 사용하고 지원금으로 오븐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10** 제과·제빵 동아리는 도서부에게 학생회와 함께 책 카페 운영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 11** 도서부는 도서관 운영 시간인 아침 시간과 점심시간에, 제과·제빵 동아리는 그 외의 시간(동아리 시간과 방과 후)에 가사실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 18** 논증하는 글을 쓸 때는 근거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한 후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 19**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근거가 아닌 이유에 해당한다.

최종 점검 모의고사

제1회

본문 190~197쪽

01 ①	02 ④	03 ①	04 ②	05 ④	06 ③	07 ①	08 ③
09 ⑤	10 ②	11 ④	12 ⑤	13 ③	14 ⑤	15 ①	16 ③
17 ⑤	18 ④	19 ③	20 ③	21 ④	22 ④	23 ①	24 ④
25 ②	26 ③						

- 01** (가)는 '당신'과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간절히 소망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는 '내 영혼의 슬픈 눈'과 같이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여 이별에 대한 화자의 통찰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다)에서 화자는 새벽, 여름, 가을의 모든 시간에 '당신'과 항상 함께 하고 싶은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인간과 자연을 대비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는 겨울의 추위를 통해 '당신'과 함께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내하겠다는 화자의 내면이, (나)에는 봄에 꽃이 피고 지는 것을 통한 사랑과 이별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가)와 (나) 모두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나)는 사랑과 이별에 대한 통찰이, (다)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 있으므로, 화자의 고단한 삶을 형상화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2** (가)에서 화자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공간의 이동이나 화자의 정서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소망하는 상황, 즉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상황과 그것을 위해 견뎌야 하는 고통과 시련을 대비하고 있다. ② '비단'은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눈에 보이는 사물로 형상화한 것이다. ③ '어느 날 당신과 내가 ~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을 앞부분과 뒷부분에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며 형태적인 안정감을 얻고 있다. ⑤ 화자는 낱실과 씨실이 만나 온전한 비단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당신'과 자신이 만나야 사랑의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 03** [A]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꽃이 져야만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도 이별을 겪고 나서야 정신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낸다. ①은 임이 떠나면 매우 슬퍼할 것이라는 의미를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표현한 것으로, 역설적 표현이 아닌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는 희망을 통해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역설적 표현이다. ③ '찬란한 슬픔의 봄'은 봄이 모란이 피는 찬란한 계절이면서 모란이 지는 슬픈 계절이기도 하다는 역설적 표현이다. ④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괴로웠으나 인류를 구원했기에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자 역시 '피'를 흘리는 괴로움을 견뎌라도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는 역설적 표현이다. ⑤ '외로운 황홀한 심사'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 죽은 자식을 다시 보는 듯한 황홀감을 동시에 나타내는 역설적 표현이다.
- 04** ㉠은 '당신'과의 사랑의 결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소망하는 바이다. 또한 ㉡은 화자가 직면한 암담하고 괴로운 현실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감당해야 할 것은 ㉠이 아닌 ㉡이며, 화자가 과거에 겪었던 바는 제시되지 않는다. ③ 사랑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화자가 견뎌야 하는 시련과 고난은 ㉠이 아니라 ㉡이다. 한편 ㉠은 사랑의 결실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실 자체를 의미한다. ④ 화자는 '당신'과의 만남과 사랑의 결실(㉠)을 위해서라면 힘들고 혹독한 현실(㉡)도 견디겠다고 말한다. 따라서 화자가 도달하기를 소망하는 미래는 ㉡이 아니라 ㉠이다. ⑤ ㉡은 화자가 견뎌야 하는 시련과 고난, 즉 어려움이 맞다. 한편 ㉠은 화자의 소망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5 (다)에서 화자는 '맑은 새벽'에는 '작은 별'이 되어, '여름날'에는 '맑은 바람'이 되어, '가을밤'에는 '귀뚜라미'가 되어 '당신' 곁에 머물렀다고 노래한다. 따라서 '더위'가 화자가 견뎌야 하는 현실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작은 별', '맑은 바람', '귀뚜라미'가 되어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한다. ② 화자는 '맑은 새벽', '여름날', '가을밤'에 항상 '당신'의 곁을 지키겠다는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③ '지키고 있겠습니다', '떠돌겠습니다', '울겠습니다'에서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⑤ '고요한 가을밤'에 '귀뚜라미'가 되어 울겠다는 것을 통해, 항상 '당신'의 곁을 지키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6 ㉔는 사랑하는 이와 이별해야 할 때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이별해야 할 때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별해야 할 때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이별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별할 때를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별해야 할 때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언젠가 올 이별을 대비하며 현재에 충실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7 <보기>에 따르면, '당신'은 분열되어 있는 민족의 현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존재이자 현실의 부조리를 뛰어넘어 참다운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인적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분열된 민족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이는 '우리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소망하는 것이므로, 공동체 의식을 통해 민족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한 폭의 비단'은 '당신'과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보기>에 따르면, 민족적 분열의 현실을 극복한 이후의 참다운 삶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오래 침묵과 외로움은 '당신'과 만나기 전의 상황으로, <보기>에 따르면, 지배 계급에 의해 왜곡된 역사, 부조리한 현실, 분열된 민족의 현실과 관련된다. ⑤ 화자는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당신'을 만나 사랑의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한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부정적인 현실을 버리는 시간이 길지라도 민족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그 긴 시간을 기꺼이 견디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08 '바둑을 둘 때 7급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7단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을 들어 보셨나요?', '창의적인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등과 같이 청중에게 질문하고 그에 답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아인슈타인이 창의적인 발상을 주로 자전거 위에서 했다는 것을 제시하며 운동이 창의적인 발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나,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지는 않았다. ②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으나, 창의성의 개념이나 창의성에 대한 편견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창의적인 발상에 대한 사례와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발표자의 개인적인 경험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바둑이 7급인 사람과 7단인 사람을 비교하며 창의적인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고 중요한 기술은 체화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훈련으로 익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아인슈타인을 통해서도 운동이 창의적인 발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밝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9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과 같이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으나, 발표 순서와 진행 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1만 시간의 법칙'을 설명하며 화면을 제시하고 있다. ② 청중에게 질문을 한 후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③ 바둑 7급인 사람과 7단인 사람을 비교하고, 운전 경력이 7년 된 사람과 일주일 된 사람을 비교하며 창의적인 발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아인슈타인을 예로 들어 운동이 창의적인 발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④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는 것이나 단호한 표정을 짓는 것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10 '남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자주 지적인 대화를 나누며 내가 몰랐던 분야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 나와 다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나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즐기'라는 것을 통해,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자신의 주관과 관점을 확고히 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창의적인 사람들은 암기를 안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그들은 기본적인 것을 훈련으로 익힌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생산적인 활동인 수면이 창의적인 발상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운동을 할수록 신경 세포가 더 많이 만들어지며 창의적인 발상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창의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을 훈련으로 익혀 중요한 순간에 지적인 에너지를 발휘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1 자전거 타거나 산책 같은 격렬하지 않은 운동이 창의적인 발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오답 해설 ① 창의적인 사람은 충분한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것을 익혀 중요한 순간에 지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며, 일상생활에서 운동과 수면이 창의적인 발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② 창의적인 사람들은 암기를 안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했다. ③ 아인슈타인은 창의적인 발상을 주로 자전거 위에서 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마>에서 수면 시간 동안 뇌는 의미 있는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넘긴다고 했다.

12 창의적인 발상을 하려면 충분한 훈련, 남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지적인 대화, 운동, 수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①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누구나 창의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누구나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창의적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창의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③ 창의적인 발상은 충분한 훈련, 지적인 대화, 운동, 수면과 같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으므로, 창의적인 사람이 경험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린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누구나 노력을 통해 창의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창의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3 [A]는 창의적인 성취에 있어 훈련의 중요성을, <보기>는 '1만 시간의 법칙'의 의의와 한계를 보여 준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나지만 연습을 게을리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는 훈련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A]를 반박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A]는 훈련과 연습을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보기>는 재능, 환경, 연습의 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체계적이지 않은 연습의 문제점을 제시한 것은 [A]를 반박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② 같은 시간 동안 훈련이나 연습을 해도 성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훈련 이외에 선천적 재능이나 환경적 요인, 연습의 질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보기>의 관점에 부합한다. ④ 선천적인 재능이나 소질 등의 중요성은 충분한 훈련이 중요하다고 한 [A]의 관점을 반박하는 것에 해당한다. ⑤ 적절한 교육이나 지원 등의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A]의 관점을 반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4 (가)는 황혼, (나)는 '당신', (다)는 직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에서 어순을 도치하여 시련과 고통을 견디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가)와 (다)는 어순의 도치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다) 모두 음성 상징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다)의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에서 영탄법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와 (나)에는 영탄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가)는 '~들에게도', (나)는 '어느 날 당신과 내가 ~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다)는 '우리들의 ~을 위하여서는 / ~이 있어야 하네'와 같이 문장 구조가 반복될 뿐 동일한 문장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가)는 황혼을 맞이하는 순간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인식하고, 황혼의 품에 안긴 소외된 모든 것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작품으로, 비유와 열거,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조를 통해 삶에 대한 반성을 나타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황혼'을 의인화하여 그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3연의 '별들', '수녀들', '수인들', 4연의 '행상대', '인디언'을 열거하여 소외된 존재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④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에서 '황혼'이라는 시각적 대상을 '시냇물 소리'에 비유하여 '황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커튼을 여는 행위를 통해 곁방의 안과 밖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16 [B]에서 화자는 '추운 골목'에서 시련과 고통을 견디며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데, '추운 길목'은 화자가 직면한 암담하고 괴로운 현실을 의미하므로 낭만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C]에서 화자는 '당신'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우리들'을 방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적 공간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당신'과 화자를 '날과 씨'에 비유하여 사랑의 결실('아름다운 비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② '어느 날 당신과 내가 ~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할 것이다. ④ 화자가 '추운 길목'으로 표현된 시련과 고난의 현실을 견뎌 내겠다고 하는 것은 '당신'과 만나 '하나의 꿈'을 엮는 날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반복되는 수미상관의 형식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17 ㉠은 화자가 소망하는 상황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시련과 고통을, ㉡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와 ㉣가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은 마지막 연의 '골방'과 달리 화자가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폐쇄적 공간을 의미한다. ② ㉡는 화자가 직면한 암담하고 괴로운 현실을 의미한다. ③ ㉢는 화자가 직녀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이별과 단절의 상황을 의미한다. ④ ㉣는 화자가 인간이 고독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공간이고, ㉥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의미한다.

18 ㉢은 (나)의 화자가 '당신'과 만난다면 어떤 겨울도 '우리들'을 좁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현실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흰 갈매기들'이라는 자연물에 빗대는 방식으로 인간이 고독한 존재임을 드러낸다. ② (가)의 1연에서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고독한 공간이었던 '골방'은 '황혼'으로 인해 밝고 희망적인 공간으로 변화한다. ③ (나)의 화자는 '당신'과 자신을 '날과 씨'에 빗대고 '우리들'이 만나 사랑의 결실을 이루는 것을 '한 폭의 비단'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다)의 화자는 '직녀'와 재회의 날, 즉 '칠월 칠석'을 기다리며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자고 노래한다.

19 (다)에는 이별을 사랑의 끝이 아닌 성숙한 사랑을 위한 계기로 파악하는 역설적 인식이 나타난다. 반어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화자는 '당신'과 자신을 '날과 씨'에 비유하여 '하나의 꿈을 엮기'를 소망하는데, 이는 '당신'과의 사랑의 결실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나)의 '추운 길목'은 시련과 고난의 현실을 의미한다. 화자는 '당신'과 사랑의 결실을 이룰 수만 있다면 힘든 현실도 이겨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④ (다)의 화자는 이별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성숙하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다)는 일 년 중 칠월 칠석에만 재회하는 경우직녀 설화를 차용한 작품으로, 화자인 경우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 이별의 아픔을 견뎌야 한다는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0 사회적 독서 활동이란 독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지식을 공유·확장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자신의 독서 노트에 기록하는 것은 사회적 독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독서 모임에 나가서 글의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회적 독서 활동에 해당한다. ② 다른 사람들과 글에 대한 생각이나 감상을 나누는 것은 사회적 독서 활동에 해당한다. ④ 온라인 독서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을 읽고 내 생각도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독서 활동에 해당한다. ⑤ 누리 소통망에 글에 대한 감상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독서 활동에 해당한다.

21 (가)와 (나)에서 창의성은 천재적인 발상에 있다는 것과 창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오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창의성에 관한 오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뉴턴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엄청난 양의 계산을 직접 했고, 더 발전된 분석과 계산을 하려고 미적분을 고안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천재적인 발상에 있다는 생각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에서 기존의 생각, 익숙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라)에서 동화적인 상상력은 사실에 대해 내가 갖는 새로운 주관적인 생각이며,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답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길러진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2 창의성은 천재적인 발상에서 비롯된다는 것, 창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오해를 제시한 후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창의성에 대한 사회적 의미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그것을 변형시켜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야 하고, 남과 다른 선택을 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동화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② (가)에서 질문을 제시하며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③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을 제시하며 창의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⑤ 창의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먼저 제시한 후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23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천재적인 발상에 있다고 했으므로, 세상에 없던 발명품을 창조하기 위해 천재적 영감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창의적 발상과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②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남과 다른 선택을 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다)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③, ⑤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다)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④ (라)에 제시된, 지식이나 사실 관계의 확인만이 아닌 동화적인 상상력, 사실에 대해 내가 갖는 새로운 주관적인 생각과 관련이 있다.

제2회

01 ④	02 ②	03 ④	04 ④	05 ④	06 ①	07 ③	08 ②
09 ⑤	10 ③	11 ④	12 ②	13 ⑤	14 ①	15 ⑤	16 ①
17 ②	18 ②	19 ②	20 ④	21 ⑤	22 ②	23 ②	24 ④
25 ⑤							

24 ㉔를 모자로 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대상을 보는 사람이므로, 엉뚱한 생각이나 자유로운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라)에 따르면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짜 놓은 틀 안에서 생각할 때와 창의성을 발휘할 때 같은 그림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② 동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㉔에 관해 상상하여 뱀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지식이나 사실 관계의 확인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짜 놓은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림을 이해할 것이다. ⑤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짜 놓은 틀 안에서 생각한다면 그림에 대해 상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기 때문에 ㉔를 모자로 볼 것이다.

25 (가)에서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천재적인 발상에 있다 (㉑)는 것이지만, 실제로 창의적 아이디어는 생각의 노동에서 얻어지는 것(㉒)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창의성은 천재적인 발상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창의적인 발상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창의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㉑과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을 관련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생각의 노동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은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모든 사람이 ㉒을 경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㉑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재능이라는 것은 창의성에 대한 오해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㉒은 창의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지닌 재능이라고 볼 수 없다. ④ ㉑이 위대한 업적이나 창의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창의성에 대한 오해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㉒은 창의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위대한 업적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⑤ ㉑을 통해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창의성에 대한 오해이다. 또한 ㉒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창의성을 가로막는 장벽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6 (가)에 따르면 생각이 오래 쌓이고 숙성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어느 순간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이를 창의성의 오해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창의성에 대한 또 다른 오해로 창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서 제시한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이다. ④ (라)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답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성은 길러진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의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남과 다른 선택을 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1 이어 적기는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결합할 때, 받침을 뒤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것을 말한다. (가)로 볼 때 중세 국어에서는 대체로 이어 쓰기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달·아'를 이어 적는다면 '달'의 받침을 '아'로 옮겨 적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달·아'는 이어 적기의 예로 들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췌·생宗宗'은 받침이 없는 글자인 '췌(세)'를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 받침에 음가가 없는 'ㅇ'을 붙여 표기한 동국정운식 표기를 보여 주는 단어이다. ② 성조란 소리의 높낮이로,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 옆에 방점을 찍어 표시했다. 방점이 없는 것은 낮은 소리의 평성, 방점이 하나인 것은 높은 소리의 거성, 방점이 두 개인 것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의 상성을 나타낸다. ③ '中東國·곡·에달·아'는 현대어 '중국과 달라'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 '에'가 '과'와 같은 비교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니르·고·저'의 '니르다'는 현대어 '이르다'에 해당하는데, 이는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02 조사는 현대 국어에서도 앞말과 붙여 쓰기 때문에 '·쁘·들'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말ㅅㅅ·미'는 '말ㅅㅅ'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와 결합하여, 받침을 뒤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가 나타난 단어이다. ③ '하다'는 중세 국어에서는 ' 많다多'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하다(爲)'의 의미로 사용된다. ④ '방'은 현대 국어에는 없는 자음이다. ⑤ 중세 국어에는 단어의 첫머리에 'ㅼ', 'ㅽ'과 같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있었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서 된소리로 바뀌었다.

03 (가)의 '·눔'은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오답 해설 ① '서르'는 현대어 '서로'에 해당하며, 형태만 다를 뿐 의미 변화가 없는 단어이다. ②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어린'으로, 의미가 이동한 단어이다. ③ 'ㅁ·츨:내'는 현대 국어 '마침내'에 해당하며, 형태만 다를 뿐 의미 변화가 없는 단어이다. ⑤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는 '불쌍히',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로', 의미가 이동한 단어이다.

04 ㉔는 성조(ㄹ), 어두 자음군 'ㅼ'(ㄷ)과 이어 적기(ㄱ)가, ㉕는 성조(ㄹ), 어두 자음군 'ㅽ'(ㄷ)과 이어 적기(ㄱ)가, ㉖는 성조(ㄹ), 어두 자음군 'ㅼ'(ㄷ)과 이어 적기(ㄱ)가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ㄴ. ㉔는 조사 '을', ㉕는 조사 '에', ㉖는 조사 '이다'가 사용되었으므로, 모두 주격 조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05 '·뿌·메'는 음성 모음을 가진 어간 '쁘-'에 명사형 어미 '-움'이 결합된 것으로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또한 '·쁘·들'은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결합할 때 받침을 뒤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가 된 형태로, '뿌 + 을'로 분석된다.

오답 해설 ① '달·아'는 어간 '다ㄹ-'에 어미 '-아'가 결합한 것으로 모음 조화가 지켜졌지만, 'ㅁ·뵵姓·성'은 이어 적기와 관련이 없다. ② '·쁘·들'은 '뿌 + 을'로 분석되는데, 음성 모음을 가진 명사 '뿌'에 조사 '을'이 결합된 것으로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어엿·비'는 이어 적기와 관련이 없다. ③ '·노·미'는 '눔 + 이'로 분석되며 모음 조화와 관련이 없다. 또한 '·이런전·츨·로'도 이어 적기와 관련이 없다. ⑤ '便便安안·키'는 모음 조화와 관련이 없다. 또한 '사름:마·다'도 이어 적기와 관련이 없다.

06 '世宗御製'를 중국 원음에 가깝게 적기 위해 중성이 없는 '世(세), 御(어), 製(제)'에 'ㅇ'을 적어(世·생, 御·영, 製·쟁)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도록 표기했다.

오답 해설 ②~⑤ 모두 중성이 있는 글자이므로,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 'ㅇ'을 중성에 받쳐 표기하지 않았다.

07 '나·랏'의 'ㅅ'은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한다(ㄱ). 또한 '말썸·미'는 '말씀'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후 이어 적기된 것이다(ㄴ), 그리고 '中囯·꺈·에달·야'가 '중국과 달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볼 때, '에'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되었다(ㄷ).

오답 해설 ㄹ. '니르·고·저·흫·배이·셔·도'에서 '배'는 '바 + ㅣ'가 결합된 것으로,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다.

08 매체란 의사소통을 할 때 정보와 지식, 정서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이다. (가)에서는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주고받아 편지나 전화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휴대 전화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인터넷 매체의 특징으로, (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09 현대에는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휴대 전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그림이나 사진, 이모티콘 등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거에는 의사소통의 매체가 현대와 달랐던 것뿐이지 편지나 전화 등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또한 (가)에서 도시락으로 마음을 표현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감정 표현의 수단이 없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약도를 보며 빵이 맛있다는 가게를 찾았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③ 할아버지가 수첩에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할머니에게 주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학교 과제에 필요한 책을 찾으려고 도서관 서점에 함께 갔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 (나)의 ㉠은 문자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는 실시간 방송으로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 언어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휴대 전화와 인터넷 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의 형태, 즉 구어에 가깝다. ② 'ㅎㅇ', 'ㄱㄱ' 등은 휴대 전화나 인터넷 매체에서 의사소통을 빠르게 하기 위한 표현에 해당한다. ④ ㉠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에서는 실시간 방송 화면을 활용하고 있다. ⑤ ㉡에서 영화의 줄거리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활용하고 있다.

11 (나)-㉢는 인터넷 방송 생산자가 속초 여행 중 라이브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따라서 사회적 상호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이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생산자는 자신의 여행 중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므로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므로 특정 소수나 불특정 소수가 수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생산자가 공유하는 바다 풍경에 시청자들이 호응하고 있으므로, 생산 목적이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알 수 있다.

12 (나)의 ㉣와 ㉤는 각각 휴대 전화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 상황을 보여 주는데, ㉣에서는 세 명이 동시에 대화를 하고 있으며 ㉤는 인터넷 방송의 생산자와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하고 있다(ㄱ). 또한 ㉣와 ㉤ 모두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반응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ㄴ),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동영상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ㄷ).

오답 해설 ㄷ. 휴대 전화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올릴 수 있으므로,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기까지의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ㄹ. 정보 제공자가 제한되지 않아 개방적인 특성을 보이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될 확률도 높다.

13 '꿀잼', '웃프네', '삼귀는' 등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맞춤법을 정확하게 지켰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ㅠㅠ'는 모음만으로 슬픈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② 댓글과 '좋아요'를 통해 게시물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③ 예선이 지연의 댓글에 답글을 게시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태우가 '삼귀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 '궁전 만큼'에서 '만큼'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②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③ '뽀'는 다만 어떠한거나 어지랄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④ '데'는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⑤ '갓'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15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위해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원칙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한글 맞춤법 제1장 제1항에서 한글 맞춤법이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이라도 발음하는 조건에 따라 소리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는다는 규정과,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써야 의미를 이해하기 쉽다는 규정을 통해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규정'이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한글 맞춤법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 '가을'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② '나무'는 소리대로 적은 것으로, '나무도', '나무가', '나무를' 등과 같이 소리대로 적어도 의미 파악에 문제가 없다. ③ '굳이'는 소리와 표기가 다르며 어법에 맞게 표기한 단어이다. ④ '입고'는 소리대로 적으면 [입꼬]가 되지만 의미 파악을 위해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단어이다. ⑤ '줍다', '줍아서'는 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리대로 적었을 경우 의미 파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17 '노름'은 어간 '놀-'에 '-음'이 결합한 말이지만, '놀음'으로 적지 않고 '노름'으로 적는다. 이는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제19항 '다만'에 따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웃음'은 어간 '웃-'에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으로, '졸음'과 같은 이유(제19항)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③ '길이'는 어간 '길-'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으로, 제19항에 따라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④ '마개'는 어간 '막-'에 '-애'가 결합한 말이지만, '막애'로 적지 않고 '마개'로 적는다. 이는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제19항 [붙임]에 따른 것이다. ⑤ '귀머거리'에서 '머거리'는 어간 '머-'에 '-어리'가 결합한 말이지만, '귀머어리'로 적지 않고 '귀머거리'로 적는다. 이는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제19항 [붙임]에 따른 것이다.

18 <보기>의 '다만'에 따르면, 'ㄱ, ㅅ'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씩뚝'이 아닌 '씩둑'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⑤ '어깨'와 '소쩍새'는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다. ③, ④ '잔뚝'과 '산뜻해는' 'ㄴ'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다.

19 한자음 '례'는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예'로 적지만,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1]에 따라, '혼예'로 적지 않고 '혼례'로 적는다.

오답 해설 ① 제11항 '다만'에 따라, 의존 명사 '리'는 '이'로 적지 않고 본음인 '리'로 적는다. ③ 제11항에 따라 '례'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예'로 적는다. ④ '력'이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 온 경우이므로 제11항 [붙임 1]에 따라 본음대로 적는다. ⑤ '류'가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 온 경우이므로 제11항 [붙임 1]에 따라 본음대로 적는다.

20 '밤만'은 소리대로 적을 경우 '밤만'으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어법에 맞게 원형을 밝혀 '밤만'으로 표기했다.

오답 해설 ① '아주'는 [아주]로 발음한다. 따라서 소리대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② '하늘'은 [하늘]로 발음한다. 따라서 소리대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③ '너머'는 [너머]로 발음한다. 따라서 소리대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⑤ '쓰러지고'는 [쓰러지고]로 발음한다. 따라서 소리대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21 '세시간'의 '시간'은 하루의 24분의 1이 되는 동안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따라서 '세 시간'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마리'는 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따위를 세는 단위를 의미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②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③ '것'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④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22 '바'는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이'는 사람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쓴다. ③ '이나마'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거나 어떻다고 말해지기에는 부족한 조건이지만 아쉬운 대로 인정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앞말에 붙여 쓴다. ④ '한'은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관형사이고, '채'는 집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과 제43항에 따라 모두 앞말과 띄어 쓴다. 따라서 '집 한 채'로 써야 한다. ⑤ '두'는 그 수량이 둘임을 나타내는 관형사이고, '돈'은 무게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과 제43항에 따라 모두 앞말과 띄어 쓴다. 따라서 '금 두 돈'으로 써야 한다.

23 '이번'은 곧 돌아오거나 이제 막 지나간 차례를 의미하는 명사이므로, '이 번에는'이 아니라 '이번에는'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것'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서 '떠난 것도'로 표기해야 한다. ③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서 '볼 수'로 표기해야 한다. ④ '줄'은 어떤 방법, 셈속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서 '있을 줄만'으로 표기해야 한다. ⑤ '만'은 다른 것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서 '한숨만'으로 써야 한다.

24 '너·겨'는 현대 국어에서 '여겨'로 표기한다. 이로 볼 때 '너·겨'는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ㄴ'이 'ㅣ'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랏'은 '나라의'로, 두음 법칙과 관련이 없다. ② '·노·미'는 '놈이'로, 두음 법칙과 관련이 없다. ③ '·내'는 '내가'로, 두음 법칙과 관련이 없다. ⑤ '·날·로'는 '날마다'로, 두음 법칙과 관련이 없다.

25 ㉠은 '씩 립이나라'를 이어 적은 것으로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말삼 + 이'의 형태로, 자음 'ㅁ'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② '빅성 + 이'의 형태로, 자음 'ㅇ'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③ '바 + ㅣ'의 형태로, 모음 'ㅑ' 뒤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것이다. ④ '쓰- + -음 + 예'의 형태로, 음성 모음 'ㅡ' 뒤에 명사형 어미 '-음', 조사 '예'가 결합한 것이다.

01 ②	02 ①	03 ⑤	04 ②	05 ①	06 ④	07 ④	08 ①
09 ①	10 ⑤	11 ②	12 ②	13 ③	14 ⑤	15 ④	16 ⑤
17 ④	18 ⑤	19 ③	20 ②	21 ⑤	22 ⑤	23 ④	24 ②
25 ③							

01 인공 지능 프로그램이 만든 작품이 미술전에서 1위를 수상했고 그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인공 지능의 개념을 설명한 부분은 없다.

오답 해설 ① 기사의 앞부분에서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인터넷 신문 기사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④ 카메라가 발명했을 당시의 반응을 제시하여 인공 지능을 이용한 앨런의 작품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⑤ 인공 지능을 이용한 앨런의 작품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을 모두 제시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02 이 글은 인터넷에 게시되는 신문 기사로, 디지털 통신 매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쇄물을 매개로 독자와 소통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디지털 통신 매체는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③ 디지털 통신 매체는 시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으며, 대량 정보 유통이 가능하다. ④ 이 글의 댓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지털 통신 매체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 ⑤ 댓글을 통해 기사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03 신문 기사의 부제는 표제를 보완해 주는 간결한 문구로, 표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부제가 아닌 신문 기사의 본문이다.

오답 해설 ① 신문 기사의 표제는 제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기사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② 표제는 앨런이 인공 지능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인용하여 제시하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③ 부제는 표제의 내용을 보완하며 '예술의 죽음' 대 '예술의 개념 확장'이라는 논란의 내용을 제시한다. ④ 부제에 인공 지능과의 공존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인공 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04 앨런의 말은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에 담긴 그의 생각에 해당한다. 그러나 글쓴이는 앨런의 작품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므로, 글쓴이가 인공 지능 기술을 유용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앨런의 작품 사진과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③ 앨런의 작품이 미술전에서 수상한 것은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이 예술로 인정된 사례에 해당한다. ④ 보들레르는 사진 기술을 '예술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고 비난했는데, 이는 기술이 개입한 작품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앨런을 옹호하는 이들은 인공 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정확한 문구를 입력해야 하며 이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05 앨런은 인공 지능 프로그램이 만든 작품이 예술가가 직접 그린 작품과 비교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해서 미술전에 그림을 출품했다고 했으므로, 앨런이 인공 지능 작품과 예술가의 작품을 비교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앨런이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이 미국 콜로라도주 박람회 미술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③ 앨런의 수상 이후 수상작 사진이 누리 소통망에 공유되면서 인공 지능 그림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④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이미지 도구들은 나름의 독자적 세계를 구축하면서 예술의 개념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어 갔다. ⑤ 앨런을 옹호하는 이들은 인공 지능

을 이용해 원하는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구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인간 고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06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앨런의 작품이 미술전에서 1위를 수상한 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이 미술전에서 수상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공 지능이 인간의 손길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제시되어 있으나, 예술을 예술답게 만드는 요소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인공 지능을 이용해 만든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제시되어 있으나, 윤리성에 관한 논란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인공 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을 둘러싼 논란을 보여 주고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인공 지능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시기와 관련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므로 공정한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글쓴이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오답 해설 기사문은 객관적인 글이므로 주장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자료는 참신한 것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08 (가)는 공익 광고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광고와는 다르다.

오답 해설 ② 공익 광고는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③ 공익 광고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공익 광고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⑤ (가)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인종, 성별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배려와 존중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09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주관적으로 평가한 판단을 포함하여 비평하는 글을 써야 하므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석한 내용만 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다양한 비평 자료를 찾아보고 자신의 비평과 비교하는 것은 비평 자료에 대한 인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③ (가)와 같은 공익 광고를 비평할 때에는 공익 광고의 성격과 광고의 내용이 부합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④ 매체 자료에 나타난 글쓴이 혹은 제작자의 관점이나 의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비평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⑤ 광고의 내용이 광고의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점검하고, 그러한 내용을 적절한 표현 방법으로 담았는지 평가해야 한다.

10 (가)에서는 배려를 받은 인물이 다음 화면에서는 배려를 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구성이 반복된다. 이는 존중과 배려가 선순환된다는 제작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돈쫄'이라는 신조어가 광고에 사용되었으나, 그것의 문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② 존중과 배려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행동으로만 존중과 배려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황을 제시하며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존중과 배려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인물들의 대화를 말풍선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대화를 통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11 '~지만 ~ 가오'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존중과 배려가 선순환된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황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상반된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는 비유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배려, 도움, 응원, 소통이라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황의 의미를 암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비평 자료 2에서는 (가)에 대해 '핵심 메시지가 열어지고 광고 자체의 강렬한 인상도 약해져 아쉽다.'라고 평가했으므로,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영상 전개 방식이 존중과 배려가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이해를 돕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배려를 받는 사람이 다시 배려를 하는 사람으로 입장이 바뀌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성으로 작위성을 줄인 부분도 좋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요즘 가장 민감한 주제인 다양성을 가지고 만든 공익 광고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출연시켰지만 민감한 주제임을 의식한 티가 많이 나서 결할기식으로 주제를 다룬 듯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 학생 1은 광고의 소재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광고의 소재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을 바탕으로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학생 1은 최근 갈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평 자료 1에 동의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② 학생 1은 '요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며 비평 자료에 동의하고 있다. ④ 학생 2는 광고에 등장하는 외국인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비평 자료 3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⑤ 학생 2는 도움을 받았던 외국인이 다시 도움을 주는 주제로 등장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평 자료 3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14 (가)에서 보고서를 쓰기 위해 학생들이 역할 분담을 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예선이 '공연 관련 직업 정보 조사'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제안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선주가 '공연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정후가 보고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문장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선주가 '동아리 누리집에 게시할 글이니까 사진, 그래프, 동영상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자고 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 [자료 3]은 진로 탐색 활동이 도움이 되는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진로 탐색 활동이 도움이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자료 1]은 공연 시장의 규모가 커졌고 이러한 공연 시장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공연 관련 직업 전망이 밝다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료 2]는 공연 관련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 관련 학과, 필요한 지식 영역 등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자료 2]는 무대 감독, 무대 디자이너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연 관련 직업을 추가한다면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자료 4]에서 면담 대상자가 공연 관련 분야의 전문가임을 밝힌다면 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6 (가)는 계획하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보여 주는데, 예상 독자가 공연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독자의 요구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예선이 '공연 관련 직업 정보 조사'를 주제로 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④ 선주가 공연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선주가 동아리 누리집에 게시할 글이라고 한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 자료가 지나치게 오래될 경우 효용이 떨어질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정보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경우 그 자료는 믿을 만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②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신뢰성을 높인다. ③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생산한 자료는 그렇지 않은 자료에 비해 믿을 수 있다. ⑤ 공신력이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는 신뢰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18 쓰기 윤리에는 개인적 쓰기 윤리와 사회적 쓰기 윤리가 있다. 전자는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것으로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이라면, 후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 활용하거나 출처를 밝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학생들은 공동 보고서 쓰기를 계획하고 있다. 보고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쓰는 글이므로,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자료 4]는 전문가 면담으로, 전문가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담긴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객관적인 사실만을 다룬다고 해서 쓰기 윤리가 잘 지켜졌다고 볼 수 없다. ④ 쓰기 윤리를 지킨다는 것은, 자료를 활용하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 활용하거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함을 의미한다.

19 현민은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조사 보고서에 맞는 목차 구성을 제안하고 있으며(ㄹ), 정후는 보고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ㄱ).

오답 해설 작문 관습을 고려한 내용 중 예상 독자를 고려한 문체와 관련된 것은 확인할 수 없으며(ㄴ), 매체 자료 활용 계획도 나타나지 않는다(ㄷ).

20 (가)에서 '공연 관련 직업 전망'을 조사 결과의 첫 부분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독자의 흥미를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글의 성격을 고려하여 내용 조직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공연을 관람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은 통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제안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성을 해친다는 것은 주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③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공연 관련 직업 전망'을 조사 결과의 첫 부분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무대 감독'은 '공연 관련 직업 종류'라는 상위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보고서의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을 추가해야겠다는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 보고서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므로 예상 독자의 수준과 요구를 고려하여 독자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보고서의 예상 독자는 공연 관련 진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므로, 수준 높은 내용은 독자의 수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작문 관습이란 글을 쓸 때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체나 표현 방식, 규칙 등을 말한다. 따라서 보고서에 맞는 작문 관습에 따라 글을 써야 한다. ② 주제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삭제해야 한다. ③ 글의 주제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④ 내용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2 (가)의 '조사 결과 및 소감'에 공연 관련 직업에 필요한 자질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조사 결과 및 소감에 '마. 공연 관련 직업 전망'이 제시되어 있고,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이 내용을 조사 결과 및 소감의 첫 부분으로 옮기자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 공연 관련 직업 종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나. 공연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다.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나)의 3-㉠에 제시된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보여 주는 그래프에서 공연 관련 직업 체험이 가장 효과적인 진로 탐색 방법임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전문가의 견해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 조사 동기 및 목적'에 공연 장면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2. 조사 계획'에서 조사 내용 및 방법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③ 공연 관련 직업

종류로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무대 감독을 제시했고, 여기에 '연기자'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⑤ 공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글쓴이의 의견에 해당한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글쓴이의 주관적인 견해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24 '3-㉠ 공연 관련 직업 전망'의 '코로나 19로 위축됐던 공연 시장은 회복세를 넘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를 통해 공연 관련 직업의 규모가 커질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1. 조사 동기 및 목적'의 '청소년기는 앞으로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시기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3-㉠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태도'의 '한 편의 공연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서로 협력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3-㉡ 공연 관련 직업 종류'의 '조명 디자이너' 부분에서 '무대에서 빛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고, 조명을 이용하여 빛을 조절함으로써 극적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특수한 효과를 표현하는 직업'이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3-㉠ 공연 관련 직업 전망'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추세여서 공연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25 (나)의 3-㉠은 원래 하나의 긴 문장으로 작성되었으나, 문장을 나누고 접속사 '그리고'를 활용하여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을 매끄럽게 했다.

오답 해설 ① 3-㉠에 문장 성분의 호응은 문제가 없다. ② 3-㉠에 여취를 고친 부분은 없다. ④ 3-㉠에 소감은 잘 드러나 있다. ⑤ 3-㉠에서 삭제한 내용은 없다.

제4회

본문 214~223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④	05 ②	06 ②	07 ⑤	08 ③
09 ④	10 ④	11 ③	12 ④	13 ②	14 ③	15 ④	16 ②
17 ③	18 ⑤	19 ⑤	20 ②	21 ③	22 ⑤	23 ①	24 ①
25 ⑤							

01 (가)와 (나)의 '그즈리잇가'는 '끊어지겠습니까'라는 의미로, 의문의 형식을 통해 입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내면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는 모두 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이야기하는 듯한 어조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나, 동병상련의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의 밤, 옥, 무쇠는 입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는 소재로 활용되었으며, (가)에서는 구슬과 끈이 입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들이 나열된 것은 아니다. ⑤ (가)와 (나)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02 '대동강'은 입과의 이별의 공간이므로, 화자가 입에게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의 생계 수단을 버리고라도 입을 따르겠다는 것은 화자가 이별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괴사란티', 즉 '사랑만 해 주신다면'의 주체는 임이다. ③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입과 떨어져 지내도 입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응한다. ④ '즈른 히', 즉 '천년'은 입과 오랜 시간을 떨어져 지낸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03 구운 밤을 모래에 심어 흙이 돌고 싹이 나는 것, 옥으로 연꽃을 새겨 바위 위에 접붙여서 꽃이 피는 것, 무쇠로 갑옷을 마름질하여 철사로 주름을 박은 옷이 다 헐어 버리는 것, 무쇠로 소를 지어 철산에 놓고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먹는 것은 모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로, 이들을 나열한 후 그것들이 실현되면 이별하겠다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입과의 영원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ㄴ). 또한 '그즈리잇가'에서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입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ㄷ). 한편 '님'을 임금으로 본다면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신하나 백성이 임금에게 바치는 축수(祝壽)의 송축가로 볼 수 있으며(ㄹ), '님'을 사랑하는 연인으로 본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연정가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ㄱ. 고려 가요의 후렴구는 주제와 무관한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나)는 각 연마다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그것이 실현될 경우 입과 이별하겠다는 시구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주제와 관련 없는 후렴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ㄷ. 영탄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A]에서 화자는 입과 헤어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의 터전인 '쇼성경'에서 '질삼빔'도 버리고 입을 따르겠다고 노래한다. 또한 [B]에서는 화자가 입을 대동강 건너편으로 데려다주는 사공을 나무라는데, 사공은 화자와 입의 이별을 매개하는 인물로 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화자는 '쇼성경'을 사랑한다고 했으나, [B]에서 화자는 입을 대동강 건너로 데려다주는 사공을 나무라며 입이 다른 여인을 만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② [A]는 화자가 입과 함께하고 싶은 욕망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나, [B]에서 화자의 욕망은 입과 이별하지 않는 것이므로 욕망이 실현된 이후의 상황을 초점화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A]에 밝음과 어둠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으며, [B]에서는 이별 이후에 입이 다른 여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⑤ [A]에서 화자는 입과 이별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의 터전과 생계 수단을 버리겠다고 노래하므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고 볼 수 있으나, [B]에는 과거의 상황이 제시되지 않았다.

05 밤, 옥, 무쇠는 입과의 이별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입과 화자의 암담한 심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단단함의 정도는 '밤<옥<무쇠'의 순서로 강해진다. ③ 화자는 밤, 옥, 무쇠와 같은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한 후 그것이 실현되면 입과 이별하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입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단단한 소재들을 통해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⑤ 옥으로 새긴 연꽃에 꽃이 피는 것은 구운 밤에 읊이 돌아 씹이 나는 것, 무쇠로 만든 옷이 낡는 것, 무쇠로 만든 소가 철로 된 풀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재가 변화되지 못할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06 (가)는 '탁료계변, 금린어, 강과, 고기' 등의 자연물을, (나)는 '곳나모 가지(꽃나무 가지), 녹수(綠水, 시내), 낙홍(落紅, 떨어지는 꽃), 송(松, 소나무), 두견화(杜鵑花, 진달래꽃)' 등의 자연물을, (다)는 배나무라는 자연물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와 (나)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다)는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 가는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다)에만 '주령주령'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 ③ (가)와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 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자연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의지를 부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다)에서도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④ (나)에서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으나, 이를 (가)~(다)의 공통점이라 보기는 어렵다. 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의 글쓴이는 개과천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자연의 일반적인 속성을 인물이 소망하는 바에 대한 이유로 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7 (다)의 글쓴이는 배나무를 접붙이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으나 그 배나무에서 배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고 생각이 달라진다. 그리고 선친이 그 배나무를 물려주신 이유를 깨달으며 선친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선친이 돌아가신 후에야 글쓴이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선친이 키다리 전씨에게 배나무를 접붙이게 했으므로, 선친이 살아 계실 때 있었던 일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선친께서 글쓴이에게 배나무를 본받아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 가라는 뜻으로 배나무를 물려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글쓴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배나무를 베지 않고 잘 가꾸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글쓴이는 키다리 전씨가 배나무를 접붙이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터무니없다고 여겼으나, 그 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을 보고 의심이 사라졌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8 꽃나무 가지를 꺾어 술잔을 세면서 술을 마시겠다는 것은 자연을 즐기는 풍류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현실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금린어'는 물고기를 나타내므로, 자연 속에서 물고기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는 화자의 소박한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② '고기마다 살찌 있다'는 것은 가을의 풍요로운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무릉'은 '무릉도원'인데 이는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말로, 별천지, 이상향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화자는 자신의 눈에 비친 '저 밭(저 산)가 무릉이냐고 묻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이상향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청풍명월'이 자신의 벗이라는 것은 자연을 의인화한 표현이다.

09 ⑥는 화자가 '산수 구경'을 가자고 청하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속세에 대한 미련을 잊게 해 주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⑥는 '또한 임금님의 은혜'라는 의미로, 화자가 자연 속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는 인식은 유교적 충의 사상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②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는 것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③ 자연 속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해 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다. ⑤ 화자는 '니웃들(이웃 사람들)'에게 '산수 구경'을 가자고 청하므로, ⑥는 자연에서의 흥취를 함께 나누려는 대상에 해당한다.

10 접붙인 배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변화하게 된 경험과 함께 아버지께서 그 배나무를 물려주신 것은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 가라는 뜻일 것이라는 깨달음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고정 관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해설 ① 배나무를 접붙이는 것을 보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가 그 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진실인 것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음을 제시하며, 아버지께서 그 배나무를 물려주신 이유를 추측하고 있다. ② 선친이 살아 계실 때 배나무 접붙이는 것을 본 글쓴이의 경험을 기본으로 하여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③ 소백과 한선자의 고사는 주(周)나라 때 소백(召伯)의 은덕에 감화된 백성들이 그가 쉬었던 돌배나무도 차마 베지 않았다는 고사이다. 또한 노나라 계무자는 노나라의 예법을 칭찬한 한선자가 자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를 칭찬하자 한선자의 은혜를 간직하고자 그 나무를 베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아버지가 남기신 배나무를 자르지 않고 잘 가꾸겠다는 글쓴이의 다짐과 관련이 있다. ⑤ 글쓴이는 배나무를 접붙이는 것을 보았던 경험과 소백과 한선자의 고사를 통해 아버지가 배나무를 물려주신 이유('내가 이 배나무를 본받아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 가라는 뜻')를 헤아리고 있다.

11 서술자는 작품 속의 주인공인 '나'로, '나'의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이므로, 이야기 밖 서술자가 객관적인 위치에서 상황을 서술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서술자가 작품 속 주인공인 '나'이므로, 이야기 밖 서술자가 인물들의 내면을 서술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서술자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므로, 이야기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상황을 서술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서술자가 작품 속의 주인공 '나'로 자신의 관점에서 작중 상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야기 속 인물이 사건을 관찰하여 서술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2 구장은 장인의 귓속말을 들은 후 '나'에게 겁을 주면서 동시에 회유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해결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구장은 장인에게 땅을 얻어 부치기 때문에 장인에게 유리하도록 '나'를 설득한다. ② 구장은 처음에 '나'의 말을 듣고 장인에게 성례를 시켜 주라고 하지만, 장인의 귓속말을 들은 후 '나'를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설득하고 있다. ③ '나'가 일을 하지 않으면 징역을 갈 수 있고, 사경을 받으려 정장을 가면 죄를 뒤집어쓸 수 있다고 협박한다. ⑤ 구장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장인에게 성례를 시켜 주라고 했으므로, 처음에 '나'의 편을 들었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3 처음에 구장이 '나'의 편을 들었다가 장인이 화를 내자 장인의 편을 드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드러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성례를 시켜 주라는 구장의 말을 듣고 장인이 흥분하여 삿대질을 하고 눈을 부라리는 상황이다. ③ 성례를 시켜 주지 않으면 여태까지 일한 사경을 받기 위해 소장을 내려 관청에 가겠다는 '나'의 말에, 구장은 그럴 경우 '나'가 죄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나'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④ 구장은 '나'를 설득하기 위해 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⑤ 장인이 올라갈에는 성례를 시켜 주겠다는 것은 '나'가 원하는 바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4 [A]에서는 장인이 옥을 잘하는 것, 마름으로 인심을 잃은 상황을 제시하며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B]에서는 파

리를 쫓는 척하고 장인을 때다 밀었다는 진술을 통해 '나'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B]에서 '나'는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는 장인의 언행을 통해 장인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장인의 심리를 추측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A]에는 장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시되어 있을 뿐 그의 삶의 이력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또한 [B]에는 구장 앞에서 장인과 '나'의 해학적인 갈등 상황이 제시되어 있을 뿐, 과거 회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B]에서는 '나'가 장인의 엉덩이를 마는 행동으로 인해 장인이 넘어질 뻔했다. 한편 [A]의 동리 사람들의 말을 통해 장인이 욕을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름으로서 장인이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상황이 '나'의 관점에서 제시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나타났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A]에는 장인이 마름으로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횡포를 부려 동리 사람들이 장인에게 굽실거리며 비위를 맞추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장인은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한 [B]에 '나'가 장인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5** 구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나'의 어리숙한 모습은 해학성을 유발하고, 장인이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절망하지 않는 당대 농민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구장의 태도가 변하는 것은 마름과 소작농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장을 조종한 장인의 교활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② '나'는 구장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 몽태의 말을 믿지 않고 구장이 자신을 위해 조언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나'의 어리석음은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이다. ③ 구장이 마름인 장인의 땅을 얻어 부친다는 것에서 두 사람이 소작농과 마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⑤ 장인은 마름이라는 강자의 위치에서 약자인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성례는 시켜 주지 않는 교활한 인물이다. 이를 통해 당대 농촌의 계급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 16** '나'는 점순이의 충동질로 성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인과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것이므로, 성례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으로 장인과 싸운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점순이는 구장에게 갔다가 성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온 '나'를 나무라고 있다. ③ (가)에서 점순이의 키가 크지 않자 장인이 성례를 미루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나'가 계약이 애초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에서 장인은 배가 아프다는 '나'에게 남의 농사를 망치면 징역 간다고 협박하며 빨리 일을 하라고 재촉한다. ⑤ (다)에서 '나'는 점순이가 울타리 구멍으로 자신을 엿보는 것을 알고 일부러 장인의 수염을 잡아챈다.

- 17** (나)에서 점순이가 '나'를 나무라며 바보라고 하자, '나'는 그렇게 바보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오늘은 성례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여 (다)의 갈등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장인이 점순이와의 성례를 빌미로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우며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상황이 갈등의 원인이다. ② 점순이가 '나'를 바보라고 부르며 나무란 것은 '나'가 성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인과 충돌한 결정적인 이유이다. ④ '나'는 점순이에게 바보 소리를 들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매까지 맞는 모습을 점순이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아 장인의 수염을 잡아챈다. 이는 '나'가 (나)에서의 상황을 만회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는 장인과 과격한 싸움을 벌이지만 장인이 울가물에 성례를 시켜 주겠다고 '나'를 달래자 장인을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통해 '나'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8** 장인은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 목적이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례를 시켜 준다는 것을 핑계로 '나'의 노동력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장인은 '나'를 공짜로 부려 먹기 위해 성례를 구실로 삼으면서 정작 성례는 시켜 주지 않는다. ② 장인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으며, '나'의 노동력

를 이용하기 위해 성례를 약속하며 '나'를 달래는 것이다. ③ '나'와 크게 다툰 후에 또다시 성례 약속을 내세워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것으로 보아, 장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 ④ 장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례를 구실로 '나'를 이용하는 인물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계산하고 있지는 않다.

- 19** '나'가 머리가 터지게 얻어맞은 이유는 장인의 바짓가랑이를 꼭 움켜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장인의 속셈을 모르고 장인이 성례를 시켜 주겠다고 달래자 장인을 착하다고 생각한다.

오답 해설 ① '나'가 장인의 의도를 오해해서 얻어맞은 것이 아니고 장인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잡고 아프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장인이 '나'를 이해해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나'를 회유한 것이다. ② '나'는 점순이에게 보여 주기 위해 장인과 과격하게 싸움을 벌였으며, 장인은 울가물에 성례를 시켜 준다고 '나'를 달랬으나 성례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다. ③ 장인은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담배를 주며 '나'를 달래지만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④ '나'는 점순이와의 성례를 조건으로 데릴사위로 온 것이므로, 장인이 점순이와의 성례를 허락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20** '나'는 점순이와의 성례를 조건으로 데릴사위로 들어와 일을 해 준다. 그 조건에 따라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히 성례를 시켜 줄 것이라 기대한 것이지, 장인이 사회적 강자이기 때문에 기대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장인은 성례도 시켜 주지 않고 '나'를 마구 부려 먹으면서 '나'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걱정하는 인색한 인물이다. ③ 배가 아프다는 '나'에게 장인이 '왜 또 이러'냐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장인은 '나'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걱정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때리고 쿡쿡 찌른다. 이를 통해 장인이 약자인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장인이 여태 '나'에게 보여 준 모습을 고려했을 때, 장인은 '나'를 회유하여 계속 부려 먹기 위해 또다시 성례를 들먹인 것이다.

- 21** 점순이는 구장에게 갔다가 성례 문제를 해결하고 오지 못한 '나'를 나무라면서 장인의 수염이라도 잡아채라고 말하는데, 이는 '나'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길 바라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나'가 점순이에게 요구하는 바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몽태는 '나'에게 장인의 셋째 딸이 이제 겨우 여섯 살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은 장인이 '나'를 죽도록 부려 먹여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장가를 들여 달라고 조를 것을 부추긴다. ② '나'는 몽태가 장인에게 땅을 얻어 부치다가 떨어진 뒤로 장인을 보면 으르렁거리다고 생각하면서 몽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④ 몽태의 말을 통해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장인의 의도를 알 수 있다. ⑤ 성례 문제로 인해 몽태와 점순이가 '나'를 나무라는 상황이 연이어 나타난다.

- 22** 딸만 있는 장인이 십 년 동안 데릴사위를 갈아들이며 부려 먹는 상황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위 부자'에는 딸과의 성례를 빌미로 데릴사위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장인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

오답 해설 ① 딸만 가진 장인이 데릴사위를 갈아들이며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상황을 알 수 있다. ② 장인은 데릴사위를 부려 먹는 인물로, 그들을 아들처럼 대하지 않는다. ③ 장인은 일 잘하는 놈을 골라 데릴사위를 바꿔 들인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위 부자'는 장인이 데릴사위를 열네 명이나 갈아들인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장인이 데릴사위를 고르는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장인이 대가족을 거느리고 산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23** ㉠과 ㉡은 모두 '나'의 대응 방식을 나무라는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반응으로, '나'의 소극적인 성격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② 몽태와 점순이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나무란 것이므로, ㉠과 ㉡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장인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몽태에게 말하는 것으로, 조언을 구하는 행동이 아니다. 또한 ㉣은 자신의 행동을 나무라는 점순이에게 그려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되물

는 것이므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④ ㉠과 ㉡ 모두 상대방의 말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되묻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경청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⑤ ㉠과 ㉡ 모두 상대방의 말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되묻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상대방의 말에 수긍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24 ㉢는 사람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장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② 몽태는 '나'가 장인에게 맞은 상황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③ 몽태는 영득이 데릴사위를 일 년 하고 장가를 들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사 년이나 데릴사위를 하며 일을 해 주고도 여태 성례를 올리지 못한 '나'의 상황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④ 몽태는 '나'가 처한 상황이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고 하면서 우물에 가 빠져 죽으라고 말하는데, 이는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⑤ 수염을 잡아채라는 것은 성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점순이의 의도가 담긴 말이다.

25 '나'는 몽태의 말은 곧이곧대로 듣지 않지만 점순이가 바보라고 한 것에는 크게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점순이의 말로 인해 몽태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깨달은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장인과 '나'가 충돌한 것은 성례를 시켜 주지 않아서인데, 몽태의 말에 따르면 현재 여섯 살인 셋째 딸의 데릴사위를 맞아들일 때까지는 장인이 '나'를 죽도록 부려 먹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성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점순이의 부추김을 들은 '나'는 다시 장인과 갈등하게 된다. ③ '나'는 성례 문제를 담판 지으러 구장에게 가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온다. 점순이는 이를 알고 '나'를 나무란다. ④ '나'는 땅 때문에 몽태가 장인에게 공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몽태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제5회

본문 224~232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③	05 ③	06 ④	07 ②	08 ①
09 ②	10 ③	11 ④	12 ①	13 ①	14 ⑤	15 ②	16 ④
17 ③	18 ①	19 ①	20 ⑤	21 ④	22 ④	23 ②	24 ②
25 ①							

01 (가)에서 윤리적 소비를 소개하고, (나)에서 윤리적 소비의 등장 배경을 밝히고 있다. (다)에서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현황을 제시한 후, (라)에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에서 윤리적 소비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윤리적 소비는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윤리적 소비의 양상이 변화하게 된 원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다)에서 윤리적 소비가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과거와 현재의 윤리적 소비 양상을 비교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다)에서 윤리적 소비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글쓴이가 윤리적 소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방법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⑤ (마)에서 윤리적 소비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윤리적 소비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나)에서, 소비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 즉 윤리적 소비가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윤리적 소비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상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지나친 소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②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소비자는 소비 시스템의 객체로만 역할을 하였다면, 윤리적 소비에서 소비자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주체로 그 위상이 변화한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가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작동을 배경으로 등장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윤리적 소비에서 소비자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주체이므로, 소비자의 역할이 축소됐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소비 시스템은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상호 작용하면서 작동하는데 그동안 소비자는 그 시스템의 객체로서만 역할을 했다고 했으므로, 이것이 윤리적 소비의 등장 배경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3 (라)에서는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윤리적 소비의 실천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최근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며 윤리적 소비를 소개하고 있다. ② (나)에서, 윤리적 소비를 통해 소비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에서는 영국의 윤리적 소비 관련 지출 규모와 가구당 윤리적 소비 관련 물품 구입 비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⑤ (마)에서는 소비를 '투표'에 비유하며 윤리적 소비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04 ㉢은 윤리적 소비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된 이유를 보여 준다. 즉, 직접 기부를 하지 않아도 소비를 통해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 윤리적 소비가 증가한 원인이지만, 기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덜어 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윤리적 가치를 지닌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소비자들이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소비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소비의 사회적 의미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윤리적 소비란 소비를 통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⑤ 윤리적 소비를 통해 소비와 얽힌 여러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05 <보기>는 윤리적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윤리적 상품에 더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윤리적 소비는 가격보다 윤리적 가치의 실현에 더 중점을 두는 소비 활동이므로, 가격을 낮춰야 남성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윤리적 상품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내용을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소득이 높은 집안에서 윤리적 상품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가 일종의 사치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④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윤리적 상품에 호의적이라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소득 수준이 낮은 저개발국에서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호응이 낮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윤리적 소비자들이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통해, 경제적 능력이 윤리적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글쓴이는 세이모어의 다큐멘타리를 본 경험, 불필요한 그릇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경험 등을 언급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소비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면서 소비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세태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으나, 소비의 사회적 의미는 확인할 수 없다. ② 소비의 유래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소비가 주는 편리함에 익숙해져 거기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진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적 차원의 소비가 지니는 한계는 확인할 수 없다. ⑤ 소비의 익숙함과 편리함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수필로, 소비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07 블랙 프라이데이의 의미와 그 반동으로 나타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나, 블랙 프라이데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③ 글쓴이는 세이모어의 영화를 보고 꼭 필요한 것만 갖추고 사는 고귀한 삶의 방식을 엿본 것 같다고 생각한다. ④ 아무것도 사지 않는 하루를 보내려면 소풍 가듯 가방을 챙겨 다녀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글쓴이가 찬장 문을 열었다가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는 접시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후 꼭 필요한 것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8 글쓴이는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는 접시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경험과 아무것도 사지 않는 하루를 보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경험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삶, 즉 소비의 편리함에 익숙해졌음을 반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글쓴이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비가 주는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으나 이러한 풍족한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으므로 지속 가능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③ 글쓴이는 소비에 익숙한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일단 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글쓴이는 불필요한 접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비에 대해 성찰하고 있으나,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를 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사람들이 소비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으나 그러한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른다는 성찰을 확인할 수 있으나,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라고 한 법정 스님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세이모어는 무소유를 실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③ 법정 스님이 소유에 있어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세이모어의 삶은 그 자체로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것이므로, 무소유의 의미를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해석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세이모어는 무소유를 실천한 인물이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0 <보기>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내리막의 세상에서 소유에 관한 인식이 변화했다는 내용이지만, 소비 활동의 위축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성공이라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소유보다는 공유, 과시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몽골 사람들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의 개수가 현저하게 적다. 무소유란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몽골 사람들의 삶은 무소유를 실천하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④ 저성장 사회에서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위안을 얻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삶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⑤ 사람들은 소비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많은 것을 소유하며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 있다.

11 (나)에서 글쓴이는 세이모어가 노구를 이끌며 소파 침대를 접었다 펼쳤다 하는 모습에서 어떤 측은이나 가난 같은 낱말은 떠오르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그가 가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과 같은 하나의 기준으로만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심비'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즘 사람들은 소비를 할 때 심리적 만족감의 충족 여부를 중시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세이모어는 피아노가 놓인 거실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전부인 공간에서 소파 침대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통해, 그가 불필요한 물건 없이 소박하게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예를 들어 품질이 비슷하지만 가격과 디자인이 다른 제품들이 ~ 각자 자신의 기준에서 합리적 소비를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에서 심리적 만족감을 위해 소비하는 사례를 들어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다양해졌다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합리적 소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글쓴이는 이를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예상 반론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가심비'라는 신조어를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위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논의의 필요성을 밝힌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다양해졌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상반된 입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가)에서는, 과거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했으나 최근에는 심리적 만족감, 자신의 가치관 등과 같이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합리적 소비의 다양한 기준을 밝히고 있으나, 합리적 소비를 실천해야 하는 까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최근에는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현대인들의 소비 생활의 문 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경제적 합리성에서 심리적 만족감, 자신의 가치관 등으로 다양해졌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⑤ 심리적 만족감은 합리적 소비의 다양한 기준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14 무소유는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라면 소비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를 실천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무소유는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므로, 필요한 것이 있어도 참는 것은 무소유의 삶과 거리가 멀다. ② 무소유는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비 목적을 확인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③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사는 경우는 무소유의 태도와 관계가 없으므로, 재활용품 구입 여부로 무소유의 실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무소유의 목적이 짐을 늘리

지 않는 것은 아니다.

15 <보기>는 우리가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우리가 소비한 물건들이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이므로, (가)에서 말한 합리적 소비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 자체에 관한 반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를 통해 자신의 취향을 고려한 소비가 합리적 소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보기>는 우리가 소비한 물건들로 인한 기후 변화의 위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합리적 소비는 소비의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하지만 <보기>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또 사면서 기후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밝히며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도를 제시하고 있다. ④ <보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또 사면서 환경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는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에서는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다양해졌음을 밝히고 있으나, 합리적 소비를 핑계로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6 (나)는 최근의 소비 양상을 설명하며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다양해졌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소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가)는 윤리적 소비의 등장과 발전,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③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합리적 소비는 자신의 취향, 가치관, 경제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제는 윤리적 소비이고 (나)의 화제는 합리적 소비인데, 윤리적 소비는 합리적 소비의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7 (나)는 합리적 소비의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는 경우가 (가)의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윤리적 소비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소비자 소비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윤리적 소비는 가격보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난 소비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윤리적 소비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관련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윤리적 소비는 소비에 있어서 가격보다 윤리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18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소비 시스템은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상호 작용하면서 작동한다고 했으므로, 그것이 윤리적 소비의 특징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윤리적 소비는 대안적 소비 활동이자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자 운동이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소비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개인의 만족을 위한 소비에서 나아가 당연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로 나아가려 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직접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윤리적 소비를 통해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9 윤리적 소비는 소비를 통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윤리적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윤리적 소비의 예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②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 ③ 윤리적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 ④ 공정 무역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⑤ 노동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 (가)에서 윤리적 소비는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하려 한다는 것, 소비를 통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는 소비가 정치적 행위라고 하면서 동물 모피가 아닌 인조 모피 제품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동물 모피를 반대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기업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는,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을 더 지불해도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불매하는 '소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소비가 정치적인 행위에 가깝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다는 의미이므로, 소비자의 정치 성향이 세상을 바꾼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세운 윤리적 가치에 따른 소비이므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실천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소비가 가장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소비 행동의 변화로 투표와 같은 힘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④ 윤리적 소비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모두가 납득 가능한 우선순위에 따라 소비 활동을 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1 협상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양보하는 범위는 좁히고 이익은 최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지점과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을 분명히 정해야 하므로 양측의 요구 사항과 제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② 협상이 끝난 후에는 결과를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③ 협상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 가능 영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22 (가)에서 도서부장은 도서관 이용률이 줄고 있다고 하면서 도서관에 책을 읽을 공간이 부족하고 새로운 책이 별로 없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서관 이용에 관한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가)의 도서부장의 발언 중 '동아리 지원금으로 새 책을 구입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도서부장의 발언 중 '도서관에 책을 읽을 공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줄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도서부장의 발언 중 '가사실을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도서부장의 발언 중 '가사실은 도서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독서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하면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제과·제빵 동아리에서는, 동아리 시간에는 가사실을 자신들이 사용하고 동아리 시간 이외에는 도서관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동아리 시간에 도서관에서 가사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동아리 부장이 '가사실은 제과·제빵 동아리에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에서 도서부장이 '소음을 우려하자 동아리 부장이 '소음은 방음 시설을 설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제과·제빵 동아리의 입장을 정리하면, 가사실 이용 권한을 가지고 동아리 지원금으로 오븐을 구입한 후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 주고 음료를 판매한다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⑤ (나)에서 동아리 부장이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 주고 음료도 함께 판매한다면 매장 설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 도서관과 제과·제빵 동아리가 가사실 이용 권한과 동아리 지원

금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협상 과정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제과·제빵 동아리에서는 자신들이 가사실을 사용한다면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가사실 이용 권한을 갖겠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측의 요구를 반박하고 있지는 않다. ③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시한 후 상대측의 의견을 들으며 조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측이 원하는 것을 먼저 고려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사실 이용 권한과 동아리 지원금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두고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가 서로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으므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동아리 시간에는 제과·제빵 동아리가, 그 외의 시간에는 도서부가 가사실을 이용하는 것과, 동아리 지원금을 제과·제빵 동아리가 갖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5 (다)에서, 지도 교사가 오븐을 설치하면 남은 예산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새로운 책을 구매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묻고 있는데, 이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므로 서로의 입장과 목표를 절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후에 동아리 부장이 음료를 판매한 수익금을 도서 구입비에 보태면 책을 구매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는 과정은 서로의 입장과 목표를 절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도서부에서 소음 문제를 우려하자 제과·제빵 동아리는 방음 시설을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다. ③ (다)에서, 가사실을 책 카페로 만들고 이용권, 특별 간식 등을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책을 구입할 예산에 관한 논의에서 제과·제빵 동아리가 제안한 의견으로, 서로의 입장과 목표를 절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도서부에서도 가사실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동아리 시간에는 제과·제빵 동아리가 가사실을 사용하되 나머지 시간은 도서부에서 활용하도록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